농업·농촌경제동향

2004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책정보/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 (김병률, brkim@krei.re.kr/김종선, sun589@krei.re.kr)

연락처: 3299-4220 / 팩스: 964-5631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환율 및 원유가격 .................................................. 4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 ................................................ 6
2. 세계 곡물 전망 .................................................... 19

III.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 32
2. 소비 및 투자 ....................................................... 35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38
4. 고용 ................................................................. 39
5. 물가 ................................................................. 40
6. 금융 및 외환 ....................................................... 45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 47
2. 농가교역조건 ....................................................... 50
3. 농업인력 ............................................................. 51
4. 농산물 수출입 ....................................................... 52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 58
2. 채소류 ................................................................................. 63
3. 과일 ................................................................................. 80
4. 과채류 ................................................................................. 91
5. 축산 ................................................................................. 103

VI. 특별주제
1. 전환기에선 중국의 옥수수시장 .............................................. 117
2. 중국의 밀 산업 현황과 수입전망 ........................................ 136

부록
2004년 2/4분기 농정이슈와 여론동향 ............................................. 151
<요 약>

1. 국제경제 동향

○ 2/4분기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경제는 가계 소비지출 및 기업 자본지출이 건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높아짐에 따라 FRB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상하였음.

○ 일본경제는 해외수요에 의하여 수출 확대와 설비투자 증가의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와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음.

○ 유로경제는 그동안 부진하였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 중 실업률이 9.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 중국경제는 당국의 과열경기 정책력에 따라 투자와 생산의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소비와 물가의 증가세를 높이고 있음.

○ 동남아시아 경제는 미국 및 일본의 회복세와 중국의 호조세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 방침을 밝히며 따라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5월 하순 중 국제유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수준, 석유생산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 4월에 이어 6월 2~4일에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빵접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음. 이번 특별회의는 관세·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의 지침인 모델러터 기본골격(framework)을 7월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3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대체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위주로 진행되었음.

○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U 무역담당위원장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WTO 협상 국가들이 서울을 보냈음. 이 서울에서는 (1) 다른 국가들이 상용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균형 압박 포괄적 거래(balanced overall package)가 가능하다면, EU는 모든 수출 보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고, (2)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에 대한 신속적인 입장과, (3) WTO 회원국 중 최빈계도국(특히 G-90)에 대한 양보 의향을 밝혔음.

○ 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6월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태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FTA 체결의 추진하는 국가가 되는 것임. 태국은 이미 호주와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국, 인도와는 기본문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임. 태국은 미국과의 FTA 조기체결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경제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음.

○ 미국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지난 2월 전망보다 25억 달리, 2003년 수준보다 53억 달리 증가한 것임. 2월 전망이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7억 달리 증가했고, 옥수수는 4억 달리, 밀은 3억 달리 증가하였음. 또한 쇼고기,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회복세에 힘입어 축산물 수출액은 10억 달리 증가하였음. 주요 멀크 품목의 수출량은 2월 전망보다 300만 톤 증가한 1억 1,970만 톤에 달하며, 지난 1995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철레는 세계의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교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2년 말 기준 총 수출액은 180억 달리 (US$), 총 수입액은 172억 달리로 약 8억 달리의 국제수지 혹자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수지혹자 폭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9억 2,5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8,793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곡물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49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6,00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9억 6,31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보다 3.0% 증가한 3억 9,982만 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8.4%, 10.0%와 7.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1,73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441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소백 생산량은 5억 9,343만 톤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소백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841만 톤보다 약 734만 톤 증가한 5억 9,5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4,383만 톤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억 6,41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03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497만 톤으로 전년보다 1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7.9% 늘어난 2억 1,07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4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III. 국내 경제 동향

○ 2004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건설투자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호조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 섬유·의복, 인쇄 및 출판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화합물, 철강, 산업용기계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휴대용전화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음.

○ 5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하였음.

○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소매업의 감소 폭이 확대되고 도매업도 감소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하였음.

○ 2004년 1/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66.2천원으로 전년 동기 2,683.9천원에 비해 6.8%(182.3천원) 증가하였음. 월평균 소비지출은 2,106.7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950.4천원에 비해 8.0%(156.3천원) 증가하였음.

○ 2004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2.0% 증가한 20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3개월 연속으로 월간 수출규모가 200억 달러 규모로 기록하고 있으며, 6개월 연속으로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5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2.0% 증가한 178.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4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5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73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68천명

(1.6%)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788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하였음.

○ 2004년 6월 중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에서 내림세로 반전하였음. 이는 농림수산품이 일부 제조업체의 출하증가로 하락한 데다 공산품도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의하여 미등하였기 때문임.

○ 2004년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체소·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려 전월과 보합 수준이나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함.

○ 2004년 6월 중 수출 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데다 원화환율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식유화학 및 고무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 대다수 공산품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6% 하락하였음.

○ 6월 중 수입 물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수요 감소 및 대미달러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7% 하락(전년 동월대비 12.4% 상승)하였음.

○ 6월중 M3증가율은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늘어난 전월(6%, 잠정)보다 소폭 상승(6%초반)한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6월 들어 8%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압세와 국제유가 상승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1770원으로 상승하였음.
IV. 농촌경제 동향

○ 2004년 5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17.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9% 하락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5% 상승(전월대비 0.7% 하락)한 119.0을 기록함.

○ 5월 중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가 98.7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전월대비 2.0%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4.3%로 악화되었음.

○ 2004년 2/4 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7만 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2.25%로 크게 증가하였음. 농외취업자수는 51만 6천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3% 감소하였음.

○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797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0.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4%, 11.6%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1.4% 감소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한 7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 수입(18.4%)과 축산물 수입(15.3%)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중국에 대한 과자류와 합관계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0%,
32.0%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그러나 화훼류의 수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38.5%)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선정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호조로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2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남.

- 선정농산물은 감치(15.6%), 화훼(39.4%), 인삼(5.0%) 등은 증가하였으나 닭고기 및 산림부산물은 각각 46.6%, 15.0%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은 주류, 면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였음.
#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table>
<thead>
<tr>
<th>품목</th>
<th>단 위</th>
<th>2003 2/4</th>
<th>2004 1/4</th>
<th>2004 2/4</th>
<th>전년 동기 대비(%)</th>
<th>전기 대비 (%)</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미</td>
<td>원/80kg(상)</td>
<td>162,891</td>
<td>165,514</td>
<td>168,865</td>
<td>3.7</td>
<td>2.0</td>
<td>전라미</td>
</tr>
<tr>
<td>보리</td>
<td>원/70kg(상)</td>
<td>75,394</td>
<td>73,254</td>
<td>73,500</td>
<td>△2.5</td>
<td>0.3</td>
<td>햐보리</td>
</tr>
<tr>
<td>콩</td>
<td>원/70kg(상)</td>
<td>235,556</td>
<td>305,394</td>
<td>449,038</td>
<td>90.6</td>
<td>47.0</td>
<td>백비</td>
</tr>
<tr>
<td>감자</td>
<td>원/20kg(상)</td>
<td>21,301</td>
<td>41,713</td>
<td>30,907</td>
<td>45.1</td>
<td>△25.0</td>
<td>수비</td>
</tr>
<tr>
<td>고구마</td>
<td>원/15kg(상)</td>
<td>35,364</td>
<td>27,973</td>
<td>36,746</td>
<td>3.9</td>
<td>31.4</td>
<td></td>
</tr>
<tr>
<td>배추</td>
<td>원/5톤(상)</td>
<td>3,248</td>
<td>1,590</td>
<td>1,916</td>
<td>△41.0</td>
<td>20.4</td>
<td></td>
</tr>
<tr>
<td>무</td>
<td>원/15kg(상)</td>
<td>9,092</td>
<td>4,799</td>
<td>3,920</td>
<td>△56.9</td>
<td>△18.3</td>
<td></td>
</tr>
<tr>
<td>마늘</td>
<td>원/kg(상)</td>
<td>2,186</td>
<td>3,143</td>
<td>2,729</td>
<td>24.9</td>
<td>△13.2</td>
<td>난지향</td>
</tr>
<tr>
<td>양파</td>
<td>원/kg(상)</td>
<td>809</td>
<td>901</td>
<td>452</td>
<td>△44.1</td>
<td>△49.8</td>
<td></td>
</tr>
<tr>
<td>대파</td>
<td>원/kg(상)</td>
<td>1,154</td>
<td>1,346</td>
<td>751</td>
<td>△34.9</td>
<td>△44.2</td>
<td></td>
</tr>
<tr>
<td>건고추</td>
<td>원/600kg(상)</td>
<td>3,620</td>
<td>8,250</td>
<td>5,926</td>
<td>63.7</td>
<td>△28.2</td>
<td>화건</td>
</tr>
<tr>
<td>오이</td>
<td>원/20kg(상)</td>
<td>23,615</td>
<td>33,903</td>
<td>24,728</td>
<td>4.7</td>
<td>△27.1</td>
<td>취청</td>
</tr>
<tr>
<td>사과</td>
<td>원/15kg(상)</td>
<td>25,306</td>
<td>45,665</td>
<td>56,865</td>
<td>124.7</td>
<td>24.5</td>
<td>후지</td>
</tr>
<tr>
<td>배</td>
<td>원/15kg(상)</td>
<td>22,206</td>
<td>40,410</td>
<td>61,423</td>
<td>176.6</td>
<td>52.0</td>
<td>신고</td>
</tr>
<tr>
<td>수박</td>
<td>원/10kg(상)</td>
<td>15,153</td>
<td>14,779</td>
<td>15,758</td>
<td>4.0</td>
<td>6.6</td>
<td></td>
</tr>
<tr>
<td>참외</td>
<td>원/15kg(상)</td>
<td>42,283</td>
<td>60,864</td>
<td>42,186</td>
<td>△0.2</td>
<td>△30.7</td>
<td></td>
</tr>
<tr>
<td>한우</td>
<td>원/500kg</td>
<td>3,638</td>
<td>3,677</td>
<td>3,006</td>
<td>△17.4</td>
<td>△18.2</td>
<td>큰수소</td>
</tr>
<tr>
<td>성모</td>
<td>원/100kg</td>
<td>185</td>
<td>210</td>
<td>249</td>
<td>34.6</td>
<td>18.4</td>
<td></td>
</tr>
<tr>
<td>돼지고기</td>
<td>원/500g</td>
<td>4,728</td>
<td>5,155</td>
<td>5,676</td>
<td>20.0</td>
<td>10.1</td>
<td>소비자가격</td>
</tr>
<tr>
<td>닭고기</td>
<td>원/kg</td>
<td>2,372</td>
<td>2,568</td>
<td>3,131</td>
<td>32.0</td>
<td>22.0</td>
<td>소비자가격</td>
</tr>
<tr>
<td>계란</td>
<td>원/알10개</td>
<td>905</td>
<td>980</td>
<td>1,181</td>
<td>7.9</td>
<td>20.5</td>
<td>소비자가격</td>
</tr>
</tbody>
</tabl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농협중앙회
Ⅰ.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2/4분기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Global Insight는 최근 각국별 성장률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미국은 4.9%, 일본은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국경제는 가계 소비지출 및 기업 자본지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FRB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상하였음.
  - 5월 중 개인 소비지출은 개인 소득확대에 따라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고용사정의 개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5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장 가동률도 77.8%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수출은 2~3월 중 전월대비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 감소(-2.3%)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일본경제는 해외수요에 의하여 수출 확대와 설비투자 증가의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와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5월 중 전년 동기대비 9.8%의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명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증가세를 보였음. 특히 대 아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17.5%)하였음.

- 5월 중 산업생산은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IT제품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5%(전년 동월대비 4.2%)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 설물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취업자수는 3~5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5월 중 4.6%를 기록하여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table>
<thead>
<tr>
<th>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1)</th>
<th>단위: %</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1</td>
</tr>
<tr>
<td>전 세계</td>
<td>1.4[2.4]2)</td>
</tr>
<tr>
<td>선진국</td>
<td>(1.1)3)</td>
</tr>
<tr>
<td>미 국</td>
<td>0.5</td>
</tr>
<tr>
<td>일 본</td>
<td>0.4</td>
</tr>
<tr>
<td>영 국</td>
<td>2.1</td>
</tr>
<tr>
<td>유로지역</td>
<td>1.7</td>
</tr>
<tr>
<td>독 일</td>
<td>1.0</td>
</tr>
<tr>
<td>프랑스</td>
<td>2.1</td>
</tr>
<tr>
<td>개도국</td>
<td>(4.1)</td>
</tr>
<tr>
<td>아시아(일본제외)</td>
<td>4.2</td>
</tr>
<tr>
<td>중 국</td>
<td>7.3</td>
</tr>
<tr>
<td>중 남 미</td>
<td>0.3</td>
</tr>
<tr>
<td>중 동</td>
<td>2.3</td>
</tr>
<tr>
<td>아프리카</td>
<td>3.5</td>
</tr>
<tr>
<td>중앙·동유럽</td>
<td>-0.5</td>
</tr>
<tr>
<td>러시아</td>
<td>5.1</td>
</tr>
</tbody>
</table>

3) [ ]안의 수치는 IMF자료의 PPP방식 추정치임. UN 자료임.
3) ( )안의 수치는 IMF자료를 참조.
○ 유로경제는 그동안 부진하였던 수출이 두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 중 실업률이 9.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 수출(역의 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유로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3~4월에는 10.5% 증가하였음.

- 산업생산은 수출 증가에 합의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사정의 부진으로 인해 소비는 두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중국경제는 당국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에 따라 투자와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와 물가의 증가세를 높아지고 있음.

- 수출은 세계수요 확대로 5월 중 전년 동기대비 32.8%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35.4%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공업생산은 6월 중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소매판매와 물가는 5월 중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8%, 4.4% 증가하였음.

○ 동남아시아 경제는 미국 및 일본의 회복세와 중국의 호조세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동남아의 수출은 1/4분기에 이어 4~5월에도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대만은 5월 중 전년 동기대비 39.5% 증가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6.8% 증가하였음.

- 산업생산은 대만의 경우 5월 중 전년 동기대비 16.6%, 싱가포르는 21.0% 증가하였음.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나, 이후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음.

환율 동향 (기말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2001</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3월</td>
<td>4월</td>
<td>5월</td>
<td></td>
</tr>
<tr>
<td>엔/달러</td>
<td>131.38</td>
<td>118.52</td>
<td>106.99</td>
<td>105.84</td>
</tr>
<tr>
<td>달러/Euro</td>
<td>0.8843</td>
<td>1.0475</td>
<td>1.2545</td>
<td>1.2178</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2.2. 원유가격

원유 가격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2월</td>
<td>3월</td>
<td>4월</td>
</tr>
<tr>
<td>WTI (텍사스 중점유)</td>
<td>26.17</td>
<td>31.08</td>
<td>34.73</td>
</tr>
<tr>
<td></td>
<td>(0.8)</td>
<td>(18.8)</td>
<td>(3.0)</td>
</tr>
<tr>
<td>Brent (북해산)</td>
<td>25.20</td>
<td>28.81</td>
<td>30.89</td>
</tr>
<tr>
<td></td>
<td>(1.5)</td>
<td>(14.3)</td>
<td>(5.4)</td>
</tr>
<tr>
<td>Dubai (중동산)</td>
<td>23.88</td>
<td>26.80</td>
<td>28.63</td>
</tr>
<tr>
<td></td>
<td>(4.6)</td>
<td>(12.2)</td>
<td>(4.7)</td>
</tr>
</tbody>
</table>

주: (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년 5월 하순 중 국제유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수준,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테러 확산, 미국의 위발유 공급불안 등으로 걸프 전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나, OPEC의 생산 증가 확대 가능성 고조, 투기 펀드의 차익실현 등의 영향으로 6월에는 계속 하락하였음.

원유 가격 동향

단위: $/bbl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

1.1. 세계 농축산업 협상동향

가. DDA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 4월에 이어 6월 2~4일에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음. 이번 특별회의는 판세·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의 지침인 모델리티 기본골격(framework)을 7월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3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대체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위주로 진행되었음. 문책 특별회의는 비록 결정적인 전환은 없었지만 이전 회의에 비해 쟁점별로 의장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 특징임.

○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이 가장 많이 도출된 분야는 국내보조였으며, 수출경쟁은 수출신용과 보조를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입장차이 해소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시장접근은 G-20과 G-10간 대립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음. 우리의 최대 관심인 시장접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조화공식의 원리 아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대신, TRQ 증상을 통해 추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민감 품목의 선정방식과 융통성 부여 방식과 정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임.

2) 이 자료는 「월간 세계농업뉴스」제44호~제46호(농경연구센터 김태곤 부연구위원 (taegon@krei.re.kr)등 작성)에서 발췌하였음.
○ 간결 각료회의 이후 농업협상에서 미국-EU와 대립구조를 형성해 오던 G-20은 6월 특별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시장접근분야에 관한 새로운 제안서를 내놓았음.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을 주축으로 한 G-20은 제안서에서 농산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고추관계의 감축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TRQ 중량 등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고추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을 설정하되 매우 제한된 품목에 한정해서 관세상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며, 민감 품목과 관련해서 관세감축에 신중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관세감축과 TRQ 중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장접근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은 민감 품목에 대한 신중적인 관세감축의 필요성과 함께 관세상한 설정 및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의 의무 중량 반대를 주장하는 공동체안을 하기도 하였음.

○ 지난 6월 초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G8 정상들은 DDA 협상을 정상궤도에 옮기는데 동참하기로 하였음. 특히 정상회담에서 오는 7월말까지 DDA 협상의 기본골격안을 마련해 핵심항목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기도 함.

○ WTO 일반국사회 오시마 쇼타로 의장은 무역자유화 확대를 촉구한 도하 각료회의 선언을 기초로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무역원활화 부문에 대한 협상대결이 주요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일괄 합의안'을 마련하여 7월초까지 문서로 배포한 계획임을 밝혔음. 농업협상 그에 의장도 앞으로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의안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의장초안'을 배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6월 하순과 7월 중순을 전후해서 개최될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모델러티 기본골격안 마련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회원국간 의견수렴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기본골격안에 반영될 문안을 마
나. EU, DDA 농업협상에 새로운 제안

○ 도하개발이전인 디아(DDA)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U 무역담당협상위원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협상위원 프란츠 피슬러(Franz Fischler)는 WTO 협상 국가들에 서한을 보냈음. 이 서한은 EU가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 가지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음.

(1) 다른 국가들이 상호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거래(balanced overall package)가 가능하다면, EU는 모든 수출 보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음
(2)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에 대한 신속적인 입장을
(3) WTO 회원국 중 최빈개발국(특히 G-90)에 대한 양보

○ EU는 다른 WTO 회원국에도 이 정도 수준의 양보를 하여, 6월 DDA에서 아직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사안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자고 촉구하였음.

○ 파스칼 라미는 “DDA는 EU 무역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EU는 2004년까지 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50%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EU만 노력한 다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맡라한 모
든 WTO 회원국이 다 같이 모호한 정치적 사안들을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6월에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 프란츠 피슬러는 “EU는 대담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DDA에서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DDA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혁신 관련이기에 EU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장결근, 국내보조, 비교적적 관심사항(NTCs), 수출에 있어서의 엄격한 균형 유지에 대한 적절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EU는 수출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협상 상대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출보조(수출지원 보조, 식량보조의 요금, 국영무역기업 등)를 EU에 제시한 형태에 부합하게끔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EU는 칸쿤 회의 이전부터 개발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목록에 대한 수출 보조를 철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서 사전 적인 배제(priori exclusions)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음. 이런 점에서 EU는 모든 수출 보조 수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EU는 시장결근과 국내보조와 비교적적 기능에 대해서 수궁할만한 결과가 나오고, EU가 수출 보조에 대해 취한 입장이 다른 나라에도 대등하게 적용된다면 수출 보조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간 입장을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임.

○ 최근의 농업정책 개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EU는 국내 보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EU는 무역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trade-distorting) 보조금의 실질적인 삭제 조치, 선진국에 게 보조의 여지를 남겨주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폐지, 범주 (boxes)내·범주간 이전 보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 투명
성의 확보 등을 제안한 바 있음. 또한 EU는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그린 박스 조항은 제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EU는 많은 개도국의 주요 품목인 면화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음. 구체적으로 EU는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를 철회하고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허용하며 시장 왜곡적인 국내 보조를 최대한 줄이거나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음.

○ EU는 각각의 상가포르 이슈가 논의할 가치가 있을 경우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음. 다시 말해, 도하 라운드에서 교섭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조항에 대해서도 임장을 건지하겠다는 것임. 현 시점에서 이는 무역 활성화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투자와 경쟁에 관해서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정부 조달 분야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EU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

○ EU는 최저개발국가와 WTO 회원국 중 최빈국(특히 G-90)을 위한 특별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선진국과 부유한 개도국 시장에 대한 농산품, 공산품 판로를 확대해서 이득을 취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임. EU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국가의 취약한 경제는 다른 시장에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음. 여기에는 부유한 개도국 국가의 시장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G-90 국가들이 몇몇 선진국(특히 EU)에서 이미 누리고 있던 우선권(preferences)을 잡식당하는데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음.

○ 파스칼 라미와 프랑스 피슐리가 보낸 서한은 이러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도, 일부 예외를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간
명한 방식으로 통한 공산품 무역 관세의 실질적 인하를 촉구하고, 다른 WTO 회원국에게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EU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

○ EU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더불어 다른 WTO 회원국들이 새로운 제안과 유연한 태도를 통해서, 2003년 9월 간의 회의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세부원칙에 대한 협력을 2004년 6월까지 이루기를 원하고 있음.

다. 태국, 미국과 FTA 협상 개시

○ 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면 6월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태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FTA 체결의 추진하는 국가가 되는 것임. 태국은 이미 호주와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고, 중국, 인도와는 기본신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임. 태국은 미국과의 FTA 조기체결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경제적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음.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 6월 10일 미국을 방문한 태국의 탁신 총리와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에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도 그 의사를 강조하였음.

○ 미국은 싱가포르 다음의 목표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들었는데 올해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충전 등을 고려하여 태국을 우선선국으로 하여 6월경 협상에 들어가야 것으로 보임.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ASEAN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은 2위, 1인당 GDP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3위임. 또한 2003년 미국과 태국의 무역실적은 미국의 대 태국 수출액이 58억 달러, 수입액이 152억 달
리로 미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대폭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임.
태국에게 미국은 최대 수출상대국이면서 일본에 이은 수입상대국이며, 무역증액에서는 일본의 뒤를 이어 2위의 무역상대국임.

○ 미국에게 있어 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성가포르에 이르는 4번째로 무역액이 큰 중요한 상대국임. 미국은 태국에 대해 금융, 통신, 자동차, 농업관련 투자 무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태국에게는 이들 4분야와 함께 지속보완, 정부조달이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기체결을 원하는 양국 정상의 희망과는 달리 협상은 난항이 예상됨.

○ 태국개발연구원(TDRD)의 미국과의 FTA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수산물 거래에서 태국측이 경쟁우위에 있는 수출품목은 쌀, 연수, 브로콜리, 고무, 과일, 채소, 생산통조림 등이고 미국측이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품목은 대두, 옥수수, 감자, 땅콩 등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은 국내농업의 보호를 도모하면서 태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와 관세할당제한, 그리고 신기술에 관한 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해 온 것으로 보임. 미국은 WTO 농업협상에서 수출보조금문제 등으로 태국과 협력관계에 있는데, 태국측의 관세와 위생 및 식품위생조직(SPS)의 투명성 향상과 개선을 요구할 방침임.

○ 설망 등에 대해서는 태국은 브라질, 유럽연합(EU)에 이어 호주와 함께 세계 3위의 수출국인데, 미국은 최근 호주와 FTA 체결로 설망을 관세절제 외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국내 설망생산자를 보호할 자세를 표명하고 있음.

○ 태국의 탁신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일반일품운동’ 등 농촌진흥대책과 중소기업 중시의 편존형 대책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ASEAN의 주도국이 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
대를 지향하면서 대미수출경쟁을 벌이고 있음. 최근에는 금융 및 환율 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위안화와 연동한 정책도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 태국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농산물 관세철폐를 앞세웠지만, 공산품의 관세철폐에는 많은 과제가 많아 있음. 일본과의 경제협의협정(EPA) 협상이 올해 2월부터 시작되어 태국은 일본계 기업과 함께 부품조달, 조립공장의 집약으로 세계를 향한 자동차 등의 수출기지로 변모하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EP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 미국을 운직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의한 태국과의 FTA는 중국과 일본을 강하게 의식한 미국이 아시아지역의 균형을 취하려는 경제전략이 드러난 것이기도 함. 따라서 향후 미국과 태국의 FTA 협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2. 세계 농축산물 무역동향

가. 미국, 2004년도 농산물 무역 전망


○ 농산물 수출실적은 지난 2월 전망보다 25억 달러, 2003년 수준보다 5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2월 전망이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7억 달러 증가했고, 육수수는 4억 달러, 밀은 3억 달러 증가하였음.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회복세에 힘입어 축산물 수출액은 10억 달러 증가하였음. 주요 별크 품목의 수출량은 2월 전망보다 300만 톤 증가한 1억 1,970만 톤에 달하며, 지난 1995년 이후 최대 수준을 될 것으로 전망됨.

○ 사료곡물, 쌀, 면, 쇠고기, 원예농산물 등의 수출량 증가 및 단가 상승 전망에 따라 2004년 수출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농산물 수출액은 유리한 환율의 움직임, 세계 경기 호조, 밀, 육수수, 면화 수출량의 경쟁력 감소, 중국의 꾸준한 수입증가 및 면화 수요에 기인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대두 생산량 감소, 빅서(BSE) 관련 쇠고기 수출금지 요인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농산물 수입은 2003년보다 58억 달러 증가한 5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원예농산물은 수입은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전년 2004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3년보다 5억 달러 감소한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미국의 곡물과 사료 수출은 지난 2월 전망보다 9억 달러 증가하고, 2003년 수출실적보다는 3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
2월 이후 이러한 낙관적인 수출전망은 밀, 옥수수, 쌀의 수출량 증가와 옥수수의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2004년 밀 수출량은 2003년 수준보다 600만 톤 증가한 3,0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EU,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작황 악화로 인한 미국의 경쟁력 확보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수출가격이 상승하였음.

○ 지난 2월 이후 2004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대비 100만 톤 증가한 5,200만 톤, 수출액은 전년대비 4억 달러 증가한 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수요와 수출 강세에 힘입어 수출단가 또한 상승하였음.

○ 2004년 미국 쌀 수출은 중미, 카리브 해 연안국,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의 수출 강세에 힘입어 지난 2월 전망보다 50만 톤 증가한 3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가축, 가금류, 낙농품 수출은 지난 2월 전망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10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전망은 쇄고기, 부산물의 수출전망이 상승세로 반전되었기 때문임. 쇄고기의 평균 단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쇄고기 수출은 멕시코로의 수출이 가공품의 수출이 제거됨에 따라 7만5천 톤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일부 국가들이 쇄고기 부산물, 가축, 쇄기름 등에 대한 동우병(BSE) 관련 금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초기 우려가 가시화되지 않았음.

○ 미국 달러화의 약세, 쇄고기 대신 돼지고기 수요 증대로 인해서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67만 톤 증가함으로 전망됨. 닭고기 수출은 러시아로의 수출 감소, 국내수요 증가, 조류독감으로 인한 일부 수입국들의 금수조치로 인해서 28만 5천 톤 감소한 21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34억 달러로 6억
d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04년 과일류(신선, 건, 냉동, 저장)와 채
소류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임. 전체 원예농산물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66.7%, 올해 전망의 상승세는 주로 건과류와 가
공도가 높은 기타 원예농산물의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 동안 고부가가치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금중으로 인해서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전망은 지난 2월 전망보
다 20억 달러(13% 상승) 증가한 51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장기적으
로 수입은 인구증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 저렴한 과일
및 채소류의 수요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 품목은 적색육, 포도주, 백주, 채소류,
유지류(주로 식물성기름), 커피, 코코아, 고무류 등 열대성 농산물 등
이고, 2003년 이후 연평균 7억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지난 2월 전망보다 10억 달러 정도 증가했고,전년대비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 증가분인 58억 달러 가운데
64%를 차지하고 있음. 증가분의 75% 정도인 44억 달러는 가공식품
수입이 차지했다.

○ 현재 가공식품이 미국 총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5%에서 64%로 증가하였음. 커피, 코코아, 고무류의 수입액 증가는
주로 수입단가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지난 전망보다 4억 달러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코코아 수입액은 특히 전년대비 수입량의
22% 증가했기 때문임. 초코릿과 코코아 가공품 수입액은 2월 전망과
비교하여 약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카카오 열매 가격이

○ 채소류 수입액도 수입량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감
자, 고추, 오이, 양파, 올리브 등의 품목 또한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신선/냉동 과일 및 채소류 수입단가는 백서코와 캐나다 등지에
서의 온실가스로 인한 비용 상승과 폐지향상으로 인해 2002년 이후 상승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이 밖에 포도주, 멕주, 천화류, 묤목, 항유 등의 수입은 2003년보다 16억 달러, 2월 전망보다 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철레, 농산물 수출 개향

○ 철레는 세계의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교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2년 말 기준 총 수출액은 180억 달러(US$), 총 수입액은 172억 달러로 약 8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수지흑자 폭은 최근 조급식 증가하는 추세임.

○ 분야별로 보면 상공업, 광업, 농림업의 순으로 수출액이 많음. 농림업 분야는 수출 50억 달러, 수입 12억 달러로 연간 약 38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음. 농림업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업 분야의 수지흑자가 일반 소비재 수지흑자 폭을 상쇄하고 있음.

○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과일 및 과류가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목재 39%, 축산 6%의 순임. 과일 중에는 포도와 사과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아보카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포도주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1995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단일품목으로는 포도가 농림업 수출액의 1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율프 10.5%, 포도주 9.5, 목재 6.5%, 사과 4.9%의 순임.

○ 주요 수출입 대상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일본, 브라질, 중국, 멕시코, 영국,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등임. 미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여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무역규모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최근 수출액이 크게 늘어 있음. 또한 멕시코는 최근 ECA(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를 맺은 후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 경제권별로 보면 NAFTA가 전체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EU 23%, APEC 22%, MERCOSUR 6%의 순임.

○ 철레의 신선과일 수출산업은 7,800여명의 생산자와 510여개의 수출전문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신선과일 제반면적은 약 21만 1,000ha, 재배되는 품목은 75가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수출을 위한 진출장고는 385여개, 진출포장센터는 중앙에 100여개, 지역에 1,0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음.

○ 신선과일 수출량은 1998년에 147만 톤, 2001년 160만 톤, 2003년에는 190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수출액은 FOB 기준으로 16억 달러 정도인데 포도 5억 7,700만 달러(36%), 사과 2억 3,500만 달러(15%), 아보카도 7,800만 달러(5%), 자두 7,000만 달러(4%)이며 기타 과일이 나머지 6억 4,000만 달러(4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외 캐나다 41%, 유럽 27%, 라틴아메리카 20%, 아시아 8%, 중동 4%임.

○ 포도의 주요 품종은 Thompson Seedless (34%), Red Globe(24%), Flame Seedless(20%) 등인데 Red Globe는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Thompson 품종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최근에는 Red Globe 수출은 줄어들고 품질 좋은 쇼가 있는 Thompson과 Flame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사과의 주요 품종은 색깔이 빨간 로얄갈라(50%)와 맬러서스(20%)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후자의 재배면적과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2. 세계 곡물 전망 3)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9억 2,59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8,793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49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6,00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9억 6,31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2004/05년도에도 생산량의 증가로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0.6% 줄어들어 2억 3,23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3,809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4% 감소한 2억 9,684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3/04년도 17.2%에서 15.1%로 2.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3) 이 자료는 「월간 세계농업뉴스」제44호~제46호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농정연구센터, 김혜영 연구원(hykim@krei.re.kr) 작성)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Pinksheet, July, 2004. 내용과 미국 농무성(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 Outlook(RCS-04f)」June 14, 2004 에서 발췌하였음.
여기 있는 페이지는 두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내며, 두 번째 테이블은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첫 번째 테이블: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변동률(%)</th>
<th>전년대비</th>
<th>전월대비</th>
</tr>
</thead>
<tbody>
<tr>
<td>생산량</td>
<td>1,816.85</td>
<td>1,837.16</td>
<td>1,921.33</td>
<td>1,925.09</td>
<td>4.8</td>
<td>0.2</td>
</tr>
<tr>
<td>공급량</td>
<td>2,350.46</td>
<td>2,276.75</td>
<td>2,257.48</td>
<td>2,260.02</td>
<td>△0.7</td>
<td>0.1</td>
</tr>
<tr>
<td>소비량</td>
<td>1,910.86</td>
<td>1,941.83</td>
<td>1,960.82</td>
<td>1,963.18</td>
<td>1.1</td>
<td>0.1</td>
</tr>
<tr>
<td>교역량</td>
<td>241.28</td>
<td>233.64</td>
<td>230.40</td>
<td>232.30</td>
<td>△0.6</td>
<td>0.8</td>
</tr>
<tr>
<td>기말재고량</td>
<td>439.60</td>
<td>334.93</td>
<td>296.65</td>
<td>296.84</td>
<td>△11.4</td>
<td>0.1</td>
</tr>
<tr>
<td>기말재고율</td>
<td>23.0</td>
<td>17.2</td>
<td>15.1</td>
<td>15.1</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두 번째 테이블: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table>
<thead>
<tr>
<th>품목</th>
<th>2002년</th>
<th>2003년</th>
<th>2004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1/4</td>
<td>2/4</td>
<td>3/4</td>
</tr>
<tr>
<td></td>
<td>1/4</td>
<td>2/4</td>
<td>3/4</td>
</tr>
<tr>
<td>대두</td>
<td>212.7</td>
<td>242.7</td>
<td>246.7</td>
</tr>
<tr>
<td>육수수</td>
<td>99.3</td>
<td>105.9</td>
<td>106.8</td>
</tr>
<tr>
<td>소맥</td>
<td>148.1</td>
<td>147.4</td>
<td>137.3</td>
</tr>
</tbody>
</table>

주: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육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소맥은 U.S. Gulf No.1 HRW.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Pinksheets), July, 2004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생산량</th>
<th>공급량</th>
<th>소비량</th>
<th>교역량</th>
<th>제조량</th>
<th>재고율</th>
</tr>
</thead>
<tbody>
<tr>
<td>1980/81</td>
<td>1,446.90</td>
<td>1,642.30</td>
<td>1,463.20</td>
<td>215.20</td>
<td>190.90</td>
<td>13.0</td>
</tr>
<tr>
<td>1981/82</td>
<td>1,496.10</td>
<td>1,687.00</td>
<td>1,462.80</td>
<td>209.70</td>
<td>229.00</td>
<td>15.7</td>
</tr>
<tr>
<td>1982/83</td>
<td>1,547.70</td>
<td>1,776.70</td>
<td>1,499.90</td>
<td>200.60</td>
<td>354.70</td>
<td>23.6</td>
</tr>
<tr>
<td>1983/84</td>
<td>1,485.30</td>
<td>1,840.00</td>
<td>1,337.80</td>
<td>207.80</td>
<td>302.40</td>
<td>19.7</td>
</tr>
<tr>
<td>1984/85</td>
<td>1,646.60</td>
<td>1,949.00</td>
<td>1,585.80</td>
<td>218.70</td>
<td>364.30</td>
<td>23.0</td>
</tr>
<tr>
<td>1985/86</td>
<td>1,664.10</td>
<td>2,028.40</td>
<td>1,596.00</td>
<td>180.60</td>
<td>433.30</td>
<td>27.1</td>
</tr>
<tr>
<td>1986/87</td>
<td>1,663.20</td>
<td>2,096.50</td>
<td>1,633.00</td>
<td>186.50</td>
<td>465.20</td>
<td>28.5</td>
</tr>
<tr>
<td>1987/88</td>
<td>1,594.70</td>
<td>2,059.90</td>
<td>1,652.10</td>
<td>211.60</td>
<td>410.60</td>
<td>24.9</td>
</tr>
<tr>
<td>1988/89</td>
<td>1,546.10</td>
<td>1,956.70</td>
<td>1,637.00</td>
<td>211.80</td>
<td>319.40</td>
<td>19.5</td>
</tr>
<tr>
<td>1989/90</td>
<td>1,670.80</td>
<td>1,990.20</td>
<td>1,688.60</td>
<td>220.10</td>
<td>296.60</td>
<td>17.6</td>
</tr>
<tr>
<td>1990/91</td>
<td>1,768.90</td>
<td>2,065.50</td>
<td>1,726.50</td>
<td>202.10</td>
<td>338.90</td>
<td>19.6</td>
</tr>
<tr>
<td>1991/92</td>
<td>1,708.00</td>
<td>2,046.90</td>
<td>1,722.00</td>
<td>221.10</td>
<td>325.00</td>
<td>18.9</td>
</tr>
<tr>
<td>1992/93</td>
<td>1,789.60</td>
<td>2,114.60</td>
<td>1,751.60</td>
<td>220.10</td>
<td>362.80</td>
<td>20.7</td>
</tr>
<tr>
<td>1993/94</td>
<td>1,712.40</td>
<td>2,075.20</td>
<td>1,753.30</td>
<td>204.40</td>
<td>473.10</td>
<td>27.0</td>
</tr>
<tr>
<td>1994/95</td>
<td>1,758.90</td>
<td>2,232.00</td>
<td>1,772.00</td>
<td>220.60</td>
<td>459.80</td>
<td>25.9</td>
</tr>
<tr>
<td>1995/96</td>
<td>1,712.20</td>
<td>2,172.00</td>
<td>1,761.60</td>
<td>206.70</td>
<td>410.60</td>
<td>23.3</td>
</tr>
<tr>
<td>1996/97</td>
<td>1,870.90</td>
<td>2,281.50</td>
<td>1,827.80</td>
<td>213.20</td>
<td>450.60</td>
<td>24.7</td>
</tr>
<tr>
<td>1997/98</td>
<td>1,880.80</td>
<td>2,331.40</td>
<td>1,835.90</td>
<td>217.50</td>
<td>495.30</td>
<td>27.0</td>
</tr>
<tr>
<td>1998/99</td>
<td>1,872.70</td>
<td>2,368.00</td>
<td>1,839.70</td>
<td>223.40</td>
<td>528.40</td>
<td>28.7</td>
</tr>
<tr>
<td>1999/00</td>
<td>1,871.60</td>
<td>2,400.00</td>
<td>1,869.70</td>
<td>240.10</td>
<td>530.40</td>
<td>28.4</td>
</tr>
<tr>
<td>2000/01</td>
<td>1,839.80</td>
<td>2,370.20</td>
<td>1,868.30</td>
<td>231.60</td>
<td>501.90</td>
<td>26.9</td>
</tr>
<tr>
<td>2001/02</td>
<td>1,870.11</td>
<td>2,414.04</td>
<td>1,899.90</td>
<td>238.82</td>
<td>514.15</td>
<td>27.1</td>
</tr>
<tr>
<td>2002/03</td>
<td>1,816.85</td>
<td>2,350.46</td>
<td>1,910.86</td>
<td>241.28</td>
<td>439.60</td>
<td>23.0</td>
</tr>
<tr>
<td>2003/04</td>
<td>1,837.16</td>
<td>2,276.75</td>
<td>1,941.83</td>
<td>233.64</td>
<td>334.93</td>
<td>17.2</td>
</tr>
<tr>
<td>2004/05</td>
<td>1,925.09</td>
<td>2,260.02</td>
<td>1,963.18</td>
<td>232.30</td>
<td>296.84</td>
<td>15.1</td>
</tr>
</tbody>
</table>

2.1. 쌀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보다 3.0% 증가한 3억 9,982만 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8.4%, 10.0%와 7.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억 1,73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441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55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미국과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8.0%와 6.7%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1.2%가 줄어든 6,492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기말재고율은 15.6%로 2003/04년도의 20.0%보다 약 4.4%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변동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2004.5</td>
<td>2004.6</td>
</tr>
<tr>
<td>생산량</td>
<td>378.16</td>
<td>388.30</td>
<td>401.77</td>
<td>399.82</td>
</tr>
<tr>
<td>공급량</td>
<td>515.34</td>
<td>495.34</td>
<td>487.28</td>
<td>482.24</td>
</tr>
<tr>
<td>소비량</td>
<td>408.30</td>
<td>412.92</td>
<td>417.86</td>
<td>417.33</td>
</tr>
<tr>
<td>교역량</td>
<td>28.65</td>
<td>24.96</td>
<td>25.51</td>
<td>25.51</td>
</tr>
<tr>
<td>기말재고량</td>
<td>107.04</td>
<td>82.42</td>
<td>69.42</td>
<td>64.92</td>
</tr>
<tr>
<td>기말재고율</td>
<td>26.2</td>
<td>20.0</td>
<td>16.6</td>
<td>15.6</td>
</tr>
</tbody>
</table>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변동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2004.5</td>
<td>2004.6</td>
<td>전년대비</td>
</tr>
<tr>
<td>공급량</td>
<td>515.34</td>
<td>495.34</td>
<td>487.28</td>
<td>482.24</td>
</tr>
<tr>
<td>기초고항</td>
<td>137.18</td>
<td>107.04</td>
<td>85.51</td>
<td>82.42</td>
</tr>
<tr>
<td>생산량</td>
<td>378.16</td>
<td>388.30</td>
<td>401.77</td>
<td>399.82</td>
</tr>
<tr>
<td>미국</td>
<td>6.54</td>
<td>6.37</td>
<td>6.91</td>
<td>6.91</td>
</tr>
<tr>
<td>태국</td>
<td>17.20</td>
<td>17.70</td>
<td>17.90</td>
<td>17.90</td>
</tr>
<tr>
<td>베트남</td>
<td>21.53</td>
<td>21.34</td>
<td>21.50</td>
<td>21.50</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33.41</td>
<td>34.25</td>
<td>34.40</td>
<td>34.40</td>
</tr>
<tr>
<td>중국</td>
<td>122.18</td>
<td>112.46</td>
<td>122.50</td>
<td>120.75</td>
</tr>
<tr>
<td>일본</td>
<td>8.09</td>
<td>7.00</td>
<td>7.80</td>
<td>7.80</td>
</tr>
<tr>
<td>수입량</td>
<td>26.19</td>
<td>24.30</td>
<td>24.55</td>
<td>24.55</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2.75</td>
<td>1.25</td>
<td>2.00</td>
<td>2.00</td>
</tr>
<tr>
<td>중국</td>
<td>0.26</td>
<td>1.00</td>
<td>1.30</td>
<td>1.30</td>
</tr>
<tr>
<td>일본</td>
<td>0.63</td>
<td>0.70</td>
<td>0.70</td>
<td>0.70</td>
</tr>
<tr>
<td>소비량</td>
<td>408.30</td>
<td>412.92</td>
<td>417.86</td>
<td>417.33</td>
</tr>
<tr>
<td>미국</td>
<td>3.54</td>
<td>3.68</td>
<td>3.75</td>
<td>3.75</td>
</tr>
<tr>
<td>태국</td>
<td>9.92</td>
<td>10.20</td>
<td>10.30</td>
<td>10.30</td>
</tr>
<tr>
<td>베트남</td>
<td>18.70</td>
<td>18.20</td>
<td>18.60</td>
<td>18.60</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36.50</td>
<td>36.65</td>
<td>36.60</td>
<td>36.60</td>
</tr>
<tr>
<td>중국</td>
<td>134.80</td>
<td>135.40</td>
<td>135.70</td>
<td>135.70</td>
</tr>
<tr>
<td>일본</td>
<td>8.79</td>
<td>8.44</td>
<td>8.30</td>
<td>8.30</td>
</tr>
<tr>
<td>수출량</td>
<td>28.65</td>
<td>24.96</td>
<td>25.51</td>
<td>25.51</td>
</tr>
<tr>
<td>미국</td>
<td>3.86</td>
<td>3.26</td>
<td>3.52</td>
<td>3.52</td>
</tr>
<tr>
<td>태국</td>
<td>7.55</td>
<td>8.75</td>
<td>8.00</td>
<td>8.00</td>
</tr>
<tr>
<td>베트남</td>
<td>3.80</td>
<td>3.75</td>
<td>4.00</td>
<td>4.00</td>
</tr>
<tr>
<td>기말고항</td>
<td>107.04</td>
<td>82.42</td>
<td>69.42</td>
<td>64.92</td>
</tr>
<tr>
<td>미국</td>
<td>0.83</td>
<td>0.70</td>
<td>0.79</td>
<td>0.79</td>
</tr>
<tr>
<td>태국</td>
<td>2.13</td>
<td>0.88</td>
<td>0.48</td>
<td>0.48</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4.34</td>
<td>3.19</td>
<td>2.99</td>
<td>2.99</td>
</tr>
<tr>
<td>중국</td>
<td>67.22</td>
<td>44.09</td>
<td>33.82</td>
<td>29.24</td>
</tr>
<tr>
<td>일본</td>
<td>1.32</td>
<td>0.47</td>
<td>0.47</td>
<td>0.47</td>
</tr>
</tbody>
</table>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톤

<table>
<thead>
<tr>
<th>품목</th>
<th>2002/03</th>
<th>2003/04</th>
<th>2004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1월</td>
<td>2월</td>
<td>3월</td>
</tr>
<tr>
<td>중립중 쌀</td>
<td>286</td>
<td>506</td>
<td>521</td>
</tr>
<tr>
<td>장립중 쌀</td>
<td>199</td>
<td>219</td>
<td>220</td>
</tr>
</tbody>
</table>

1) 중립중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중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2) 추정치임.


USDA 계산 세계시장 쌀 가격 (rough basis)

단위: $/cwt

<table>
<thead>
<tr>
<th>단</th>
<th>2001/02</th>
<th>2002/03</th>
<th>2003/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중립중</td>
<td>단립중</td>
<td>중립중</td>
</tr>
<tr>
<td>8 월</td>
<td>2.57</td>
<td>2.58</td>
<td>2.99</td>
</tr>
<tr>
<td>9 월</td>
<td>2.69</td>
<td>2.70</td>
<td>2.96</td>
</tr>
<tr>
<td>10 월</td>
<td>2.80</td>
<td>2.81</td>
<td>2.95</td>
</tr>
<tr>
<td>11 월</td>
<td>2.86</td>
<td>2.87</td>
<td>2.91</td>
</tr>
<tr>
<td>12 월</td>
<td>3.02</td>
<td>3.02</td>
<td>2.93</td>
</tr>
<tr>
<td>1 월</td>
<td>3.06</td>
<td>3.06</td>
<td>2.96</td>
</tr>
<tr>
<td>2 월</td>
<td>3.31</td>
<td>3.35</td>
<td>3.01</td>
</tr>
<tr>
<td>3 월</td>
<td>3.23</td>
<td>3.27</td>
<td>2.97</td>
</tr>
<tr>
<td>4 월</td>
<td>3.20</td>
<td>3.24</td>
<td>2.91</td>
</tr>
<tr>
<td>5 월</td>
<td>3.30</td>
<td>3.34</td>
<td>2.92</td>
</tr>
<tr>
<td>6 월</td>
<td>3.42</td>
<td>3.47</td>
<td>3.21</td>
</tr>
<tr>
<td>7 월</td>
<td>3.45</td>
<td>3.49</td>
<td>3.43</td>
</tr>
</tbody>
</table>

평균 |

주: 세계시장 주 단위가격 단순평균
단위: Rice Conversions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453 metric ton
자료: USDA, Farm Service Agency
USDA, Rice Outlook, June 14, 2004.

2.2. 소맥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9,343만 톤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841만 톤보다 약 734만 톤 증가한 5억 9,5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12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4/05년에는 1억 363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도 17.5%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톤 |
|---|---|---|---|---|
| 구분 | 2002/03 | 2003/04 (추정) | 2004/05(전망) | 변동률(%) |
| | | | 2004.5 | 2004.6 | 전년대비 | 전월대비 |
| 생산량 | 566.86 | 550.02 | 588.67 | 593.43 | 7.9 | 0.8 |
| 공급량 | 768.73 | 717.16 | 717.42 | 722.17 | 0.7 | 0.7 |
| 소비량 | 601.60 | 588.41 | 594.15 | 595.75 | 1.2 | 0.3 |
| 교역량 | 108.49 | 107.26 | 102.13 | 103.63 | △3.4 | 1.5 |
| 기말재고량 | 167.14 | 128.74 | 123.26 | 126.43 | △1.8 | 2.6 |
| 기말재고율 | 27.78 | 21.88 | 20.75 | 21.22 |

2004/05년 기말재고량은 1억 2,643만 톤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1.88%에서 21.22%로 멀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유럽의 재고량은 2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table>
<thead>
<tr>
<th>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th>
<th>단위: 백만 톤</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2002/03</td>
</tr>
<tr>
<td></td>
<td>(추정)</td>
</tr>
<tr>
<td>공급량</td>
<td>768.73</td>
</tr>
<tr>
<td>기초재고량</td>
<td>201.87</td>
</tr>
<tr>
<td>생산량</td>
<td>566.86</td>
</tr>
<tr>
<td>미국</td>
<td>47.1</td>
</tr>
<tr>
<td>호주</td>
<td>10.06</td>
</tr>
<tr>
<td>캐나다</td>
<td>16.20</td>
</tr>
<tr>
<td>EU25</td>
<td>124.48</td>
</tr>
<tr>
<td>러시아</td>
<td>90.29</td>
</tr>
<tr>
<td>수입량</td>
<td>107.59</td>
</tr>
<tr>
<td>EU25</td>
<td>13.92</td>
</tr>
<tr>
<td>브라질</td>
<td>6.73</td>
</tr>
<tr>
<td>북아프리카</td>
<td>18.77</td>
</tr>
<tr>
<td>파키스탄</td>
<td>0.19</td>
</tr>
<tr>
<td>인도</td>
<td>0.03</td>
</tr>
<tr>
<td>러시아</td>
<td>1.05</td>
</tr>
<tr>
<td>소비량</td>
<td>601.60</td>
</tr>
<tr>
<td>미국</td>
<td>30.34</td>
</tr>
<tr>
<td>EU25</td>
<td>110.55</td>
</tr>
<tr>
<td>중국</td>
<td>105.20</td>
</tr>
<tr>
<td>파키스탄</td>
<td>18.38</td>
</tr>
<tr>
<td>러시아</td>
<td>39.32</td>
</tr>
<tr>
<td>수출량</td>
<td>108.49</td>
</tr>
<tr>
<td>미국</td>
<td>23.25</td>
</tr>
<tr>
<td>캐나다</td>
<td>9.40</td>
</tr>
<tr>
<td>EU25</td>
<td>19.94</td>
</tr>
<tr>
<td>기말재고량</td>
<td>167.14</td>
</tr>
<tr>
<td>미국</td>
<td>13.37</td>
</tr>
<tr>
<td>EU25</td>
<td>16.83</td>
</tr>
<tr>
<td>중국</td>
<td>60.38</td>
</tr>
</tbody>
</table>

○ 2003/04년 기말재고량은 1억 2,746만 톤으로 전년보다 23.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유럽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7.9%에서 21.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미국의 재고량은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3. 옥수수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4,383만 톤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억 6,41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03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7,846만 톤이 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8.0%, 14.0%로 이들 두 국가가 약 8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변동률(%)</th>
<th>전년대비</th>
<th>전월대비</th>
</tr>
</thead>
<tbody>
<tr>
<td>생산량</td>
<td>600.99</td>
<td>615.92</td>
<td>642.58</td>
<td>643.83</td>
<td>4.5</td>
<td>0.2</td>
</tr>
<tr>
<td>공급량</td>
<td>748.96</td>
<td>738.17</td>
<td>729.54</td>
<td>733.05</td>
<td>△0.7</td>
<td>0.5</td>
</tr>
<tr>
<td>소비량</td>
<td>626.70</td>
<td>648.96</td>
<td>662.74</td>
<td>664.19</td>
<td>2.3</td>
<td>0.2</td>
</tr>
<tr>
<td>교역량</td>
<td>78.26</td>
<td>77.30</td>
<td>77.74</td>
<td>78.46</td>
<td>1.5</td>
<td>0.9</td>
</tr>
<tr>
<td>기말재고량</td>
<td>122.25</td>
<td>89.22</td>
<td>66.80</td>
<td>68.86</td>
<td>△22.8</td>
<td>3.1</td>
</tr>
<tr>
<td>기말재고율</td>
<td>19.5</td>
<td>13.7</td>
<td>10.1</td>
<td>10.4</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단위: 백만 톤

##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2004.5</th>
<th>2004.6</th>
<th>전년대비</th>
<th>전월대비</th>
</tr>
</thead>
<tbody>
<tr>
<td>공급량</td>
<td>748.96</td>
<td>738.17</td>
<td>729.54</td>
<td>733.05</td>
<td>△0.7</td>
<td>0.5</td>
<td></td>
</tr>
<tr>
<td>기초저고향</td>
<td>147.97</td>
<td>122.25</td>
<td>86.96</td>
<td>89.22</td>
<td>△27.0</td>
<td>2.6</td>
<td></td>
</tr>
<tr>
<td>생산량</td>
<td>600.99</td>
<td>615.92</td>
<td>642.58</td>
<td>643.83</td>
<td>4.5</td>
<td>0.2</td>
<td></td>
</tr>
<tr>
<td>미국</td>
<td>227.77</td>
<td>256.90</td>
<td>264.81</td>
<td>264.81</td>
<td>3.1</td>
<td>0.0</td>
<td></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15.50</td>
<td>12.50</td>
<td>15.50</td>
<td>15.50</td>
<td>24.0</td>
<td>0.0</td>
<td></td>
</tr>
<tr>
<td>EU25</td>
<td>49.08</td>
<td>39.00</td>
<td>51.00</td>
<td>51.00</td>
<td>30.8</td>
<td>0.0</td>
<td></td>
</tr>
<tr>
<td>멕시코</td>
<td>19.28</td>
<td>20.50</td>
<td>20.30</td>
<td>20.30</td>
<td>△1.0</td>
<td>0.0</td>
<td></td>
</tr>
<tr>
<td>동남아시아</td>
<td>14.85</td>
<td>15.32</td>
<td>15.64</td>
<td>15.64</td>
<td>2.1</td>
<td>0.0</td>
<td></td>
</tr>
<tr>
<td>중국</td>
<td>121.30</td>
<td>115.83</td>
<td>115.00</td>
<td>115.00</td>
<td>△0.7</td>
<td>0.0</td>
<td></td>
</tr>
<tr>
<td>수입량</td>
<td>76.63</td>
<td>77.36</td>
<td>75.00</td>
<td>75.22</td>
<td>△2.8</td>
<td>0.3</td>
<td></td>
</tr>
<tr>
<td>EU25</td>
<td>4.33</td>
<td>5.00</td>
<td>2.50</td>
<td>2.50</td>
<td>△50.0</td>
<td>0.0</td>
<td></td>
</tr>
<tr>
<td>일본</td>
<td>16.87</td>
<td>16.80</td>
<td>16.80</td>
<td>16.80</td>
<td>0.0</td>
<td>0.0</td>
<td></td>
</tr>
<tr>
<td>멕시코</td>
<td>5.28</td>
<td>6.30</td>
<td>6.30</td>
<td>6.30</td>
<td>0.0</td>
<td>0.0</td>
<td></td>
</tr>
<tr>
<td>동남아시아</td>
<td>4.15</td>
<td>3.90</td>
<td>3.91</td>
<td>3.91</td>
<td>0.3</td>
<td>0.0</td>
<td></td>
</tr>
<tr>
<td>한도</td>
<td>8.79</td>
<td>9.50</td>
<td>9.30</td>
<td>9.30</td>
<td>△2.1</td>
<td>0.0</td>
<td></td>
</tr>
<tr>
<td>소비량</td>
<td>626.70</td>
<td>648.96</td>
<td>662.74</td>
<td>664.19</td>
<td>2.3</td>
<td>0.2</td>
<td></td>
</tr>
<tr>
<td>미국</td>
<td>200.63</td>
<td>212.23</td>
<td>213.50</td>
<td>213.50</td>
<td>0.6</td>
<td>0.0</td>
<td></td>
</tr>
<tr>
<td>EU25</td>
<td>49.24</td>
<td>45.80</td>
<td>51.50</td>
<td>51.50</td>
<td>12.4</td>
<td>0.0</td>
<td></td>
</tr>
<tr>
<td>일본</td>
<td>16.80</td>
<td>16.90</td>
<td>16.80</td>
<td>16.80</td>
<td>△0.6</td>
<td>0.0</td>
<td></td>
</tr>
<tr>
<td>멕시코</td>
<td>24.70</td>
<td>26.20</td>
<td>26.50</td>
<td>26.50</td>
<td>1.1</td>
<td>0.0</td>
<td></td>
</tr>
<tr>
<td>동남아시아</td>
<td>18.50</td>
<td>18.49</td>
<td>19.09</td>
<td>18.99</td>
<td>2.7</td>
<td>△0.5</td>
<td></td>
</tr>
<tr>
<td>한국</td>
<td>8.78</td>
<td>9.67</td>
<td>9.32</td>
<td>9.32</td>
<td>△3.6</td>
<td>0.0</td>
<td></td>
</tr>
<tr>
<td>중국</td>
<td>125.90</td>
<td>128.60</td>
<td>131.60</td>
<td>131.60</td>
<td>2.3</td>
<td>0.0</td>
<td></td>
</tr>
<tr>
<td>수출량</td>
<td>78.26</td>
<td>77.30</td>
<td>77.74</td>
<td>78.46</td>
<td>1.5</td>
<td>0.9</td>
<td></td>
</tr>
<tr>
<td>미국</td>
<td>40.45</td>
<td>52.07</td>
<td>53.34</td>
<td>53.34</td>
<td>2.4</td>
<td>0.0</td>
<td></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11.20</td>
<td>8.50</td>
<td>11.00</td>
<td>11.00</td>
<td>29.4</td>
<td>0.0</td>
<td></td>
</tr>
<tr>
<td>중국</td>
<td>15.24</td>
<td>8.00</td>
<td>4.00</td>
<td>4.00</td>
<td>△50.0</td>
<td>0.0</td>
<td></td>
</tr>
<tr>
<td>기말저고향</td>
<td>122.25</td>
<td>89.22</td>
<td>66.80</td>
<td>68.86</td>
<td>△22.8</td>
<td>3.1</td>
<td></td>
</tr>
<tr>
<td>미국</td>
<td>27.60</td>
<td>20.46</td>
<td>18.81</td>
<td>18.81</td>
<td>△8.1</td>
<td>0.0</td>
<td></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0.63</td>
<td>0.54</td>
<td>0.85</td>
<td>0.85</td>
<td>57.4</td>
<td>0.0</td>
<td></td>
</tr>
<tr>
<td>EU25</td>
<td>4.83</td>
<td>2.62</td>
<td>4.12</td>
<td>4.12</td>
<td>57.2</td>
<td>0.0</td>
<td></td>
</tr>
<tr>
<td>중국</td>
<td>64.97</td>
<td>44.30</td>
<td>22.07</td>
<td>23.90</td>
<td>△46.0</td>
<td>8.3</td>
<td></td>
</tr>
</tbody>
</table>

2004/05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2.8% 줄어든 6,88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2,036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임.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되기 때문임. 2004/05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3.3% 포인트 줄어든 10.4%가 될 전망임.

2.4. 대두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497만 톤으로 전년보다 1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중국 등의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7.9% 늘어난 2억 1,07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4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변동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2004.5 2004.6</td>
<td>전년대비  전월대비</td>
</tr>
<tr>
<td>생산량</td>
<td>197.31</td>
<td>189.12</td>
<td>190.05 224.97</td>
<td>19.0  18.4</td>
</tr>
<tr>
<td>공급량</td>
<td>229.49</td>
<td>228.84</td>
<td>229.86 257.98</td>
<td>12.7  12.2</td>
</tr>
<tr>
<td>소비량</td>
<td>190.57</td>
<td>195.38</td>
<td>198.01 210.77</td>
<td>7.9   6.4</td>
</tr>
<tr>
<td>교역량</td>
<td>62.07</td>
<td>59.05</td>
<td>61.89  66.36</td>
<td>12.4  7.2</td>
</tr>
<tr>
<td>기말재고량</td>
<td>39.72</td>
<td>33.01</td>
<td>31.73  46.69</td>
<td>41.4  47.2</td>
</tr>
<tr>
<td>기말재고율</td>
<td>20.8</td>
<td>16.9</td>
<td>16.0   22.2</td>
<td></td>
</tr>
</tbody>
</table>

##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2/03</th>
<th>2003/04 (추정)</th>
<th>2004/05(전망)</th>
<th>변동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4.5</td>
<td>2004.6</td>
<td>전년대비</td>
<td>전월대비</td>
</tr>
<tr>
<td>공급량</td>
<td>229.49</td>
<td>228.84</td>
<td>229.86</td>
<td>257.98</td>
</tr>
<tr>
<td>기초재고량</td>
<td>32.18</td>
<td>39.72</td>
<td>39.81</td>
<td>33.01</td>
</tr>
<tr>
<td>생산량</td>
<td>197.31</td>
<td>189.12</td>
<td>190.05</td>
<td>224.97</td>
</tr>
<tr>
<td>미국</td>
<td>75.01</td>
<td>65.80</td>
<td>65.80</td>
<td>80.69</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35.50</td>
<td>34.00</td>
<td>34.00</td>
<td>39.00</td>
</tr>
<tr>
<td>브라질</td>
<td>52.50</td>
<td>52.60</td>
<td>53.50</td>
<td>66.00</td>
</tr>
<tr>
<td>중국</td>
<td>16.51</td>
<td>16.00</td>
<td>16.20</td>
<td>17.50</td>
</tr>
<tr>
<td>수입량</td>
<td>62.87</td>
<td>58.60</td>
<td>61.77</td>
<td>65.85</td>
</tr>
<tr>
<td>EU25</td>
<td>16.82</td>
<td>15.59</td>
<td>17.03</td>
<td>16.09</td>
</tr>
<tr>
<td>일본</td>
<td>5.09</td>
<td>4.85</td>
<td>5.00</td>
<td>5.00</td>
</tr>
<tr>
<td>중국</td>
<td>21.42</td>
<td>19.00</td>
<td>20.25</td>
<td>24.00</td>
</tr>
<tr>
<td>소비량</td>
<td>190.57</td>
<td>195.38</td>
<td>198.01</td>
<td>210.77</td>
</tr>
<tr>
<td>미국</td>
<td>47.51</td>
<td>43.25</td>
<td>43.25</td>
<td>48.99</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24.86</td>
<td>26.31</td>
<td>26.23</td>
<td>27.57</td>
</tr>
<tr>
<td>브라질</td>
<td>29.76</td>
<td>34.16</td>
<td>34.16</td>
<td>38.36</td>
</tr>
<tr>
<td>EU25</td>
<td>17.84</td>
<td>16.38</td>
<td>17.94</td>
<td>16.94</td>
</tr>
<tr>
<td>일본</td>
<td>5.32</td>
<td>3.80</td>
<td>5.36</td>
<td>5.36</td>
</tr>
<tr>
<td>중국</td>
<td>35.29</td>
<td>36.94</td>
<td>37.64</td>
<td>39.10</td>
</tr>
<tr>
<td>수출량</td>
<td>62.07</td>
<td>59.05</td>
<td>61.89</td>
<td>66.36</td>
</tr>
<tr>
<td>미국</td>
<td>28.44</td>
<td>24.49</td>
<td>24.49</td>
<td>28.99</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8.71</td>
<td>8.78</td>
<td>9.75</td>
<td>8.82</td>
</tr>
<tr>
<td>브라질</td>
<td>20.13</td>
<td>21.00</td>
<td>23.00</td>
<td>23.20</td>
</tr>
<tr>
<td>기말재고량</td>
<td>39.72</td>
<td>33.01</td>
<td>31.73</td>
<td>46.69</td>
</tr>
<tr>
<td>미국</td>
<td>4.85</td>
<td>3.13</td>
<td>3.13</td>
<td>5.99</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12.48</td>
<td>11.70</td>
<td>10.80</td>
<td>14.66</td>
</tr>
<tr>
<td>브라질</td>
<td>15.00</td>
<td>13.14</td>
<td>12.04</td>
<td>18.38</td>
</tr>
</tbody>
</table>

○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4,669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301만 톤과 비교하여 4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5.3% 포인트 높은 22.2%가 될 것으로 전망됨.
III. 국내경제 동향\textsuperscript{4)}

1. 경기

- 2004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

- 정부소비지출이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승용차, 에어컨 등 내구재와 의류, 서적 등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함으로써 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하였음.

-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의 감소추세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신파세가 둔화됨에따라 증가율이 1.8%로 낮아짐.

\textbf{경제성장률(실질)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table>
<thead>
<tr>
<th></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연간</td>
<td>3.1</td>
<td>3.9</td>
</tr>
<tr>
<td>1/4</td>
<td>3.7</td>
<td>5.3</td>
</tr>
<tr>
<td>2/4</td>
<td>2.2</td>
<td></td>
</tr>
<tr>
<td>3/4</td>
<td>2.4</td>
<td></td>
</tr>
<tr>
<td>4/4</td>
<td>3.9</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최종 소비지출 (민 간)</td>
<td>△0.5</td>
<td>△0.6</td>
</tr>
<tr>
<td>(전 설)</td>
<td>△0.9</td>
<td></td>
</tr>
<tr>
<td>(설 비)</td>
<td>△0.9</td>
<td></td>
</tr>
<tr>
<td>총 고정자본형성</td>
<td>3.6</td>
<td>1.8</td>
</tr>
<tr>
<td>(전 설)</td>
<td>4.6</td>
<td></td>
</tr>
<tr>
<td>(설 비)</td>
<td>3.7</td>
<td></td>
</tr>
<tr>
<td>총 수출</td>
<td>15.7</td>
<td>26.9</td>
</tr>
<tr>
<td>총 수입</td>
<td>15.9</td>
<td></td>
</tr>
<tr>
<td></td>
<td>8.4</td>
<td></td>
</tr>
<tr>
<td></td>
<td>14.9</td>
<td></td>
</tr>
<tr>
<td></td>
<td>23.1</td>
<td></td>
</tr>
<tr>
<td></td>
<td>26.9</td>
<td></td>
</tr>
<tr>
<td></td>
<td>9.7</td>
<td></td>
</tr>
<tr>
<td></td>
<td>14.2</td>
<td></td>
</tr>
<tr>
<td></td>
<td>5.2</td>
<td></td>
</tr>
<tr>
<td></td>
<td>7.7</td>
<td></td>
</tr>
<tr>
<td></td>
<td>11.7</td>
<td></td>
</tr>
<tr>
<td></td>
<td>11.8</td>
<td></td>
</tr>
</tbody>
</table>

\textbf{단위: \% (전년 동기대비)}

\textbf{자료: 한국은행}

\textsuperscript{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 (sun3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 수출은 반도체, 통신기기, 사무용기계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다 가구, 담배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늘어나고, 서비스 수출도 늘어난 전년 동기대비 26.9% 증가하였음.

-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정밀기기, 산업용기계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의 수입 또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하였음.

- 내수부진으로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낮아졌으나 (-4.9%)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04.9로 전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100%를 상회하고 있음.

○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제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호조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음.

- 제배업은 과, 시설물 등 채소류와 화훼작물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축산업은 백지클레라와 조류독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파동에 따른 한우 선호에 힘입어 육우 사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하였음.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table>
<thead>
<tr>
<th></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1/4</td>
</tr>
<tr>
<td>전 산업</td>
<td>3.1</td>
<td>3.7</td>
</tr>
<tr>
<td>농림어업</td>
<td>△7.1</td>
<td>△5.1</td>
</tr>
<tr>
<td>제조업</td>
<td>4.8</td>
<td>5.1</td>
</tr>
<tr>
<td>건설업</td>
<td>8.1</td>
<td>8.4</td>
</tr>
<tr>
<td>서비스업</td>
<td>1.8</td>
<td>1.9</td>
</tr>
</tbody>
</tabl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 어업은 가다랑어, 오징어, 고등어 등 원앙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양식업 생산도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하였음.

○ 제조업은 섬유·의복, 인쇄 및 출판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화합물, 철강, 산업용기계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휴대용전화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음.

- 토목건설이 감소하고 상업용 건물건설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건설업은 전년대비 4.5% 증가에 그쳤음.

- 서비스업은 통신, 운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거나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에 그쳤음.

○ 5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3.5% 증가하였음.

○ 생산자재품 출하는 전년 동기대비 11.0% 증가하였음.

산업생산 추이

<table>
<thead>
<tr>
<th></th>
<th>2002 연간</th>
<th>2003 연간</th>
<th>1/4분기</th>
<th>4/4분기</th>
<th>1/4분기</th>
<th>5월</th>
</tr>
</thead>
<tbody>
<tr>
<td>생산</td>
<td>8.0</td>
<td>5.1</td>
<td>6.1</td>
<td>7.8</td>
<td>11.0</td>
<td>13.5</td>
</tr>
<tr>
<td>출하</td>
<td>7.9</td>
<td>4.2</td>
<td>4.7</td>
<td>6.8</td>
<td>9.9</td>
<td>11.0</td>
</tr>
<tr>
<td>(수출)</td>
<td>7.7</td>
<td>12.5</td>
<td>3.7</td>
<td>18.5</td>
<td>22.4</td>
<td>28.7</td>
</tr>
<tr>
<td>(내수)</td>
<td>8.1</td>
<td>0.1</td>
<td>6.9</td>
<td>0.7</td>
<td>3.0</td>
<td>1.3</td>
</tr>
<tr>
<td>재고</td>
<td>△0.4</td>
<td>5.7</td>
<td>11.0</td>
<td>5.7</td>
<td>4.2</td>
<td>3.5</td>
</tr>
<tr>
<td>평균가동율</td>
<td>78.3</td>
<td>78.3</td>
<td>77.4</td>
<td>80.4</td>
<td>81.5</td>
<td>81.3</td>
</tr>
</tbody>
</table>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수출출하는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28.7% 증가.

- 내수출하는 석유정제,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하여 1.3%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이 감소로 반전됨에 따라 소폭의 증가에 그침.

○ 생산자제품 제조는 섬유제품,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하였음.

○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기타제조업,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하였음.

2. 소비 및 투자

○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소매업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도매업도 감소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하였음.

소비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2002 연간</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1/4</td>
<td>4/4</td>
</tr>
<tr>
<td>도소매 판매</td>
<td>8.3</td>
<td>△1.0</td>
<td>△0.2</td>
</tr>
<tr>
<td>내수용 소비재목</td>
<td>8.3</td>
<td>△5.9</td>
<td>△1.6</td>
</tr>
<tr>
<td>(내구재)</td>
<td>17.1</td>
<td>△11.5</td>
<td>△4.2</td>
</tr>
<tr>
<td>(비내구재)</td>
<td>4.1</td>
<td>△3.1</td>
<td>△0.3</td>
</tr>
</tbody>
</table>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자료:재정경제부, 통계청
○ 5월중 생산자의 대수용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함.

- 내구소비재는 휴대용전화기, FPD TV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냉장고 등에서 감소하여 11.3% 감소하였음.

- 비 내구소비재는 담배, 의약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농수, 휘발유 등에서 감소하여 1.1% 감소하였음.

○ 2004년 1/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66.2천원으로 전년 동기 2,683.9천원에 비해 6.8%(182.3천원)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은 1,800.1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하였음.

  -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527.5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 증가하였음.

<table>
<thead>
<tr>
<th>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th>
<th>단위: %(전년동기대비)</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2</td>
</tr>
<tr>
<td>연간</td>
<td>연간</td>
</tr>
<tr>
<td>소득</td>
<td>6.4</td>
</tr>
<tr>
<td>소비 지출</td>
<td>4.3</td>
</tr>
<tr>
<td>(식료품)</td>
<td>3.9</td>
</tr>
<tr>
<td>(교통)</td>
<td>5.0</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 도시근로자의 1/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106.7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960.4천원에 비해 8.0%(156.3천원) 증가하였음.

  - 식료품의 소비지출은 512.6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하였음. 또한 교육비는 302.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하여 가계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2004년 5월 중 설비투자는 컴퓨터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3% 증가하였음.

  - 기계류내수출하는 기계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조립금속 등의 출하가 감소하여 2.9% 감소하였음.

○ 5월 중 기계수주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발주가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대비 20.1% 증가하였음.

○ 5월 중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민간 및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9.4% 증가하였음.

  - 건축공사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증가하여 10.7%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일반토목 등이 증가하여 6.0% 증가하였음.

### 투자 추이

<table>
<thead>
<tr>
<th></th>
<th>2002 연간</th>
<th>2003 연간</th>
<th>1/4</th>
<th>4/4</th>
<th>1/4</th>
<th>5월</th>
</tr>
</thead>
<tbody>
<tr>
<td>설비투자</td>
<td>1.6</td>
<td>△2.3</td>
<td>△3.4</td>
<td>△5.3</td>
<td>△3.8</td>
<td>1.3</td>
</tr>
<tr>
<td>기계류내수출</td>
<td>9.4</td>
<td>△1.1</td>
<td>10.4</td>
<td>△4.2</td>
<td>△2.3</td>
<td>△2.9</td>
</tr>
<tr>
<td>국내기계 수주</td>
<td>21.0</td>
<td>△8.5</td>
<td>△18.2</td>
<td>△5.0</td>
<td>19.0</td>
<td>20.1</td>
</tr>
<tr>
<td>건설투자 기성</td>
<td>3.7</td>
<td>18.8</td>
<td>16.0</td>
<td>18.6</td>
<td>9.8</td>
<td>9.4</td>
</tr>
<tr>
<td>건설투자 수주</td>
<td>21.3</td>
<td>22.5</td>
<td>△2.0</td>
<td>2.1</td>
<td>△14.2</td>
<td>△24.0</td>
</tr>
</tbody>
</table>

단위: %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통계청
○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24.0% 감소하였음.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2004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2.0% 증가한 20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3개월 연속으로 월간 수출규모가 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6개월 연속으로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종목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69.6% 증가하여 4개월 연속 6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66.6%), 기계류·정밀기기(56.2%), 철강·금속제품(37.9%), 승용차(31.0%) 등의 수출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73.5%로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35.6%), 일본(39.4%), EU(40.8%) 등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5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2.0% 증가한 178.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table>
<thead>
<tr>
<th></th>
<th>2002</th>
<th>2003</th>
</tr>
</thead>
<tbody>
<tr>
<td></td>
<td>1/4</td>
<td>3/4</td>
</tr>
<tr>
<td>수 출(FOB)</td>
<td>1,624.7</td>
<td>1,938.2</td>
</tr>
<tr>
<td>(전년동기중감출)</td>
<td>8.0</td>
<td>19.3</td>
</tr>
<tr>
<td>수 입(CIF)</td>
<td>1,521.3</td>
<td>1,788.3</td>
</tr>
<tr>
<td>(전년동기중감출)</td>
<td>7.8</td>
<td>17.5</td>
</tr>
<tr>
<td>무역수지</td>
<td>103.4</td>
<td>149.9</td>
</tr>
</tbody>
</table>

단위: %(전년 동기대비), 억달러

자료: 재정경제부, 관세청
- 품목별로는 원유(34.1%) 및 반도체(32.5%)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각각 32.5%, 3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지역별로는 중국(42.4%) 및 일본(35.5%)으로부터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5월중 무역수지는 30억 달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14개월 연속 흑자로 1998년 12월(38억 달리) 이후 원간기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였음.

4. 고용

○ 2004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5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하였음.

<table>
<thead>
<tr>
<th>고용 활동</th>
<th>단위: 천명, %</th>
<th>2003</th>
<th>2004</th>
<th>동월대비</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1/4</td>
<td>2/4</td>
<td>3/4</td>
<td>4/4</td>
</tr>
<tr>
<td>경제활동인구</td>
<td></td>
<td>22,439</td>
<td>23,055</td>
<td>23,050</td>
<td>23,119</td>
</tr>
<tr>
<td>(경제활동참가율)</td>
<td></td>
<td>60.3</td>
<td>61.8</td>
<td>61.6</td>
<td>61.7</td>
</tr>
<tr>
<td>취업자</td>
<td></td>
<td>21,633</td>
<td>22,303</td>
<td>22,295</td>
<td>22,325</td>
</tr>
<tr>
<td>농림어업</td>
<td></td>
<td>1,699</td>
<td>2,127</td>
<td>2,090</td>
<td>1,882</td>
</tr>
<tr>
<td>광공업(제조업)</td>
<td></td>
<td>4,185</td>
<td>4,255</td>
<td>4,184</td>
<td>4,264</td>
</tr>
<tr>
<td>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건설업)</td>
<td></td>
<td>15,749</td>
<td>15,902</td>
<td>16,021</td>
<td>16,179</td>
</tr>
<tr>
<td>실업자</td>
<td></td>
<td>1,734</td>
<td>1,854</td>
<td>1,821</td>
<td>1,854</td>
</tr>
<tr>
<td>실업률(계절조정)</td>
<td></td>
<td>3.1</td>
<td>3.4</td>
<td>3.5</td>
<td>3.6</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5월 중 취업자 수는 22,738천명으로 전월대비 65천명(0.3%)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368천명(1.6%)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8.0% 감소한 1,984천명을 기록함.

- 광공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함.

○ 실업자 수는 788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하였음.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음.

5. 물가

○ 2004년 6월 중 생산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에서 내림세로 반전하였음. 이는 농림수산품이 일부 계절체소의 출하증가로 하락한 데다 공산품도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미등하였기 때문임. 전년 동월대비로는 6.8%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3년 6월 중 생산자물가가 크게 하락(-0.5%)한데 따른 반등효과 때문임.

- 농림수산품은 체소류(-9.3%), 과실류(-2.6%) 등이 출하량 등 측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 1.5%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18.8%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로 금속1차제품(-0.6%)이 내려고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도 내려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8.4% 상승하였음.
##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2000년=100)

<table>
<thead>
<tr>
<th></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1/4</td>
<td>2/4</td>
<td>3/4</td>
</tr>
<tr>
<td>총 지수</td>
<td>99.2</td>
<td>101.2</td>
<td>101.0</td>
<td>101.1</td>
</tr>
<tr>
<td></td>
<td>(△0.3)</td>
<td>(3.0)</td>
<td>(1.3)</td>
<td>(1.9)</td>
</tr>
<tr>
<td>농림수산품</td>
<td>106.3</td>
<td>109.0</td>
<td>108.0</td>
<td>112.6</td>
</tr>
<tr>
<td></td>
<td>(2.6)</td>
<td>(2.6)</td>
<td>(0.6)</td>
<td>(5.3)</td>
</tr>
<tr>
<td>광 산 품</td>
<td>109.1</td>
<td>110.8</td>
<td>111.6</td>
<td>111.1</td>
</tr>
<tr>
<td></td>
<td>(7.8)</td>
<td>(4.0)</td>
<td>(1.6)</td>
<td>(1.0)</td>
</tr>
<tr>
<td>공 산 품</td>
<td>96.4</td>
<td>98.4</td>
<td>97.9</td>
<td>97.5</td>
</tr>
<tr>
<td></td>
<td>(△1.5)</td>
<td>(3.2)</td>
<td>(0.9)</td>
<td>(1.1)</td>
</tr>
<tr>
<td>전력/수도/가스</td>
<td>104.9</td>
<td>107.9</td>
<td>109.1</td>
<td>107.9</td>
</tr>
<tr>
<td></td>
<td>(△3.3)</td>
<td>(3.4)</td>
<td>(4.4)</td>
<td>(3.2)</td>
</tr>
<tr>
<td>서 비 스</td>
<td>103.1</td>
<td>104.8</td>
<td>105.1</td>
<td>105.5</td>
</tr>
<tr>
<td></td>
<td>(2.1)</td>
<td>(2.4)</td>
<td>(1.9)</td>
<td>(2.4)</td>
</tr>
</tbody>
</table>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는 금융(0.1%)이 자동차보험료, 은행수수료 상승 등으로 오르고, 운수(-0.4%)가 외항 및 항공화물운임 하락으로, 리스 및 임대(-0.8%)가 금리 및 환율 하락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하였음.

- 2004년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체소·과실류 등의 출하증가로 농축수산품이 내려 전월과 보합 수준이나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함.
-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과(-20.9%), 무(-17.6%) 등이 하락하였으나 참 معدل(-15.5%), 닭고기(35.8%), 간고추(34.4%), 돼지고기
(27.3%)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11.8% 상승하였음.

- 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월대비 잡세(1.6%), 공공서비스(1.0%), 개인
서비스(4.2%)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2.7% 상승하였음.

###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2000년=100)

<table>
<thead>
<tr>
<th></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1/4</td>
<td>2/4</td>
</tr>
<tr>
<td>총 지 수</td>
<td>106.9</td>
<td>109.8</td>
<td>110.5</td>
</tr>
<tr>
<td></td>
<td>(2.8)</td>
<td>(4.1)</td>
<td>(3.3)</td>
</tr>
<tr>
<td>상 품</td>
<td>106.4</td>
<td>109.9</td>
<td>109.1</td>
</tr>
<tr>
<td></td>
<td>(2.8)</td>
<td>(4.9)</td>
<td>(2.6)</td>
</tr>
<tr>
<td>농축수산물</td>
<td>112.9</td>
<td>118.4</td>
<td>116.3</td>
</tr>
<tr>
<td></td>
<td>(6.2)</td>
<td>(6.1)</td>
<td>(2.8)</td>
</tr>
<tr>
<td>공업 제품</td>
<td>104.3</td>
<td>107.2</td>
<td>106.8</td>
</tr>
<tr>
<td></td>
<td>(1.6)</td>
<td>(4.5)</td>
<td>(2.5)</td>
</tr>
<tr>
<td>서비스</td>
<td>107.5</td>
<td>109.8</td>
<td>111.6</td>
</tr>
<tr>
<td></td>
<td>(2.8)</td>
<td>(3.4)</td>
<td>(3.9)</td>
</tr>
<tr>
<td>잡세</td>
<td>110.1</td>
<td>112.7</td>
<td>113.8</td>
</tr>
<tr>
<td></td>
<td>(5.7)</td>
<td>(4.4)</td>
<td>(3.8)</td>
</tr>
<tr>
<td>공공서비스</td>
<td>106.1</td>
<td>107.6</td>
<td>109.4</td>
</tr>
<tr>
<td></td>
<td>(△1.3)</td>
<td>(1.1)</td>
<td>(3.2)</td>
</tr>
<tr>
<td>개인서비스</td>
<td>106.9</td>
<td>109.7</td>
<td>111.7</td>
</tr>
<tr>
<td></td>
<td>(3.7)</td>
<td>(4.2)</td>
<td>(4.4)</td>
</tr>
</tbody>
</table>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통계청
○ 2004년 6월 중 수출 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데다
원화율을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 대다수 공산품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6% 하락
하였음. 전년 동월대비로는 7.3% 상승하였음.

- 농수산품은 일본의 계절적인 수요 감소 및 원화율 하락 등으로
참치, 오징어, 굴, 조개 등 수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2.3% 하락(전년
동월대비 19.3%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국제유가와 원화율 하락 및 수요부진 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1.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2.7%), 일반기계장
비제품(-1.5%), 심유의복 및 가죽제품(-1.4%) 등 대부분이 내려 전
월대비 1.6% 하락(전년 동월대비 7.1% 상승)하였음.

수출물가지수(2000년=100)

<table>
<thead>
<tr>
<th></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1/4</td>
<td>2/4</td>
</tr>
<tr>
<td>농 수 산 품</td>
<td>102.4</td>
<td>95.3</td>
<td>96.3</td>
</tr>
<tr>
<td></td>
<td>(△8.2)</td>
<td>(△9.7)</td>
<td>(△4.0)</td>
</tr>
<tr>
<td>공 산 품</td>
<td>89.4</td>
<td>89.1</td>
<td>86.9</td>
</tr>
<tr>
<td></td>
<td>(△7.0)</td>
<td>(△3.9)</td>
<td>(△4.5)</td>
</tr>
<tr>
<td>원 자 재</td>
<td>84.0</td>
<td>86.0</td>
<td>82.6</td>
</tr>
<tr>
<td></td>
<td>(△6.2)</td>
<td>(0.3)</td>
<td>(△3.5)</td>
</tr>
<tr>
<td>자 본 재</td>
<td>94.3</td>
<td>87.4</td>
<td>87.1</td>
</tr>
<tr>
<td></td>
<td>(△8.4)</td>
<td>(△13.2)</td>
<td>(△10.2)</td>
</tr>
<tr>
<td>소 비 재</td>
<td>100.3</td>
<td>97.3</td>
<td>97.3</td>
</tr>
<tr>
<td></td>
<td>(△7.9)</td>
<td>(△7.9)</td>
<td>(△3.9)</td>
</tr>
<tr>
<td>총 지 수</td>
<td>89.5</td>
<td>89.1</td>
<td>86.9</td>
</tr>
<tr>
<td></td>
<td>(△7.0)</td>
<td>(△3.9)</td>
<td>(△4.5)</td>
</tr>
</tbody>
</table>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6월 중 수입 물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중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수요 감소 및 대미달러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7% 하락(전년 동월대비 12.4% 상승)하였음.

- 원자재는 옥수수(전월대비 -7.4%), 대두(-6.2%), 꽃유(-14.8%), 원유 (-4.7%)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1.8% 하락(전년 동월대비 14.9% 상승)하였음.

- 소비재는 국제유가 및 대미달러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내구재(전월대비 -1.6%), 비내구재(-2.4%)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2.1% 하락(전년 동월대비 6.1% 상승)하였음.

수입물가지수(2000년=100)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수산품</td>
<td>113.4</td>
<td>116.0</td>
<td>115.6</td>
<td>111.7</td>
<td>125.5</td>
<td>129.3</td>
</tr>
<tr>
<td></td>
<td>(2.0)</td>
<td>(1.0)</td>
<td>(1.9)</td>
<td>(1.0)</td>
<td>(9.6)</td>
<td>(14.0)</td>
</tr>
<tr>
<td>광산품</td>
<td>100.7</td>
<td>113.9</td>
<td>101.2</td>
<td>104.5</td>
<td>108.5</td>
<td>130.2</td>
</tr>
<tr>
<td></td>
<td>(△0.3)</td>
<td>(22.8)</td>
<td>(△3.3)</td>
<td>(2.5)</td>
<td>(5.0)</td>
<td>(26.5)</td>
</tr>
<tr>
<td>공산품</td>
<td>95.0</td>
<td>96.0</td>
<td>94.8</td>
<td>93.1</td>
<td>97.2</td>
<td>100.9</td>
</tr>
<tr>
<td></td>
<td>(△8.4)</td>
<td>(△1.8)</td>
<td>(△1.4)</td>
<td>(1.1)</td>
<td>(3.2)</td>
<td>(7.7)</td>
</tr>
<tr>
<td>원자재</td>
<td>96.0</td>
<td>100.9</td>
<td>96.2</td>
<td>96.0</td>
<td>100.6</td>
<td>110.0</td>
</tr>
<tr>
<td></td>
<td>(△6.4)</td>
<td>(5.6)</td>
<td>(△1.5)</td>
<td>(1.8)</td>
<td>(4.4)</td>
<td>(14.9)</td>
</tr>
<tr>
<td>자본재</td>
<td>100.5</td>
<td>98.2</td>
<td>99.3</td>
<td>96.8</td>
<td>100.6</td>
<td>98.6</td>
</tr>
<tr>
<td></td>
<td>(△6.3)</td>
<td>(△5.7)</td>
<td>(△2.2)</td>
<td>(△1.1)</td>
<td>(2.0)</td>
<td>(0.1)</td>
</tr>
<tr>
<td>소비재</td>
<td>107.2</td>
<td>107.6</td>
<td>107.0</td>
<td>103.6</td>
<td>108.0</td>
<td>112.0</td>
</tr>
<tr>
<td></td>
<td>(△3.1)</td>
<td>(△3.9)</td>
<td>(△2.6)</td>
<td>(1.3)</td>
<td>(3.3)</td>
<td>(6.1)</td>
</tr>
<tr>
<td>총지수</td>
<td>97.1</td>
<td>100.9</td>
<td>97.2</td>
<td>96.4</td>
<td>101.0</td>
<td>108.6</td>
</tr>
<tr>
<td></td>
<td>(△6.2)</td>
<td>(3.5)</td>
<td>(△1.6)</td>
<td>(1.4)</td>
<td>(4.0)</td>
<td>(12.4)</td>
</tr>
</tbody>
</table>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6. 금융 및 외환

 ordeal 6월 중 M3증가율은 재정지출 증가로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늘어나 전월(6%, 잠정)보다 소폭 상승(6%초반)한 것으로 추정됨.

 ordeal M1증가율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6월 들어 8%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table>
<thead>
<tr>
<th>통화지표 증감률(평잔기준)</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r>
<td></td>
</tr>
<tr>
<td>M1</td>
</tr>
<tr>
<td>M2</td>
</tr>
<tr>
<td>M3</td>
</tr>
<tr>
<td>본원통화</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ordeal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회복 지연 우려로 4.84%까지 하락하였음.

<table>
<thead>
<tr>
<th>금리</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r>
<td></td>
</tr>
<tr>
<td>총 금 리</td>
</tr>
<tr>
<td>CD유통수익률</td>
</tr>
<tr>
<td>외사채유통수익률</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CD(3개월)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는 투신사 MMF 감소에 따른 매입수요 축소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1770원으로 상승하였음.

### 달러 환율

<table>
<thead>
<tr>
<th></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중</td>
<td>4/4</td>
<td>1/4</td>
</tr>
<tr>
<td>원/달러</td>
<td>1,251.2</td>
<td>1,191.7</td>
<td>1,181.3</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IV. 농촌경제 동향5)

1. 농촌물가

○ 2004년 5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17.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9% 하락하였음.

농가판매가격지수(2000=100)

<table>
<thead>
<tr>
<th></th>
<th>가증차</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3</td>
<td>20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4월</td>
<td>5월</td>
<td>4월</td>
<td>5월</td>
<td>전 년 대비</td>
<td>전 월 대비</td>
<td></td>
</tr>
<tr>
<td>총 지수</td>
<td>1000</td>
<td>115.2</td>
<td>111.3</td>
<td>123.5</td>
<td>117.4</td>
<td>5.5</td>
<td>△4.9</td>
</tr>
<tr>
<td>곡물</td>
<td>388</td>
<td>98.3</td>
<td>98.2</td>
<td>110.1</td>
<td>109.0</td>
<td>11.0</td>
<td>△1.0</td>
</tr>
<tr>
<td>미곡</td>
<td>349.6</td>
<td>96.3</td>
<td>96.3</td>
<td>102.9</td>
<td>103.5</td>
<td>7.5</td>
<td>0.6</td>
</tr>
<tr>
<td>백류</td>
<td>10.4</td>
<td>104.0</td>
<td>104.0</td>
<td>104.0</td>
<td>104.0</td>
<td>0.0</td>
<td>0.0</td>
</tr>
<tr>
<td>잡곡</td>
<td>4.2</td>
<td>107.3</td>
<td>107.4</td>
<td>108.7</td>
<td>108.7</td>
<td>1.2</td>
<td>0.0</td>
</tr>
<tr>
<td>두류</td>
<td>8.4</td>
<td>101.5</td>
<td>101.6</td>
<td>140.5</td>
<td>144.5</td>
<td>42.2</td>
<td>2.8</td>
</tr>
<tr>
<td>서류</td>
<td>15.4</td>
<td>159.9</td>
<td>132.0</td>
<td>262.4</td>
<td>218.7</td>
<td>65.7</td>
<td>△16.7</td>
</tr>
<tr>
<td>청과물</td>
<td>328.2</td>
<td>119.3</td>
<td>103.8</td>
<td>126.3</td>
<td>113.3</td>
<td>9.2</td>
<td>△10.3</td>
</tr>
<tr>
<td>체소</td>
<td>207.2</td>
<td>143.0</td>
<td>118.2</td>
<td>137.1</td>
<td>114.5</td>
<td>△3.1</td>
<td>△16.5</td>
</tr>
<tr>
<td>과실</td>
<td>121</td>
<td>78.8</td>
<td>79.2</td>
<td>107.7</td>
<td>111.3</td>
<td>40.5</td>
<td>3.3</td>
</tr>
<tr>
<td>캡산물</td>
<td>225.2</td>
<td>138.0</td>
<td>144.1</td>
<td>143.5</td>
<td>137.8</td>
<td>△4.4</td>
<td>△4.0</td>
</tr>
<tr>
<td>가축</td>
<td>196.5</td>
<td>143.2</td>
<td>150.2</td>
<td>149.2</td>
<td>142.2</td>
<td>△5.3</td>
<td>△4.7</td>
</tr>
<tr>
<td>유란</td>
<td>28.7</td>
<td>102.1</td>
<td>102.1</td>
<td>104.1</td>
<td>107.5</td>
<td>5.3</td>
<td>3.3</td>
</tr>
<tr>
<td>기타</td>
<td>58.6</td>
<td>116.4</td>
<td>113.4</td>
<td>120.2</td>
<td>117.3</td>
<td>3.4</td>
<td>△2.4</td>
</tr>
<tr>
<td>특작</td>
<td>45.3</td>
<td>115.2</td>
<td>116.5</td>
<td>122.0</td>
<td>122.2</td>
<td>4.9</td>
<td>0.2</td>
</tr>
<tr>
<td>화훼</td>
<td>12.7</td>
<td>121.0</td>
<td>102.4</td>
<td>113.8</td>
<td>99.6</td>
<td>△2.7</td>
<td>△12.5</td>
</tr>
<tr>
<td>부산물</td>
<td>0.6</td>
<td>110.8</td>
<td>110.8</td>
<td>118.5</td>
<td>118.6</td>
<td>7.0</td>
<td>0.1</td>
</tr>
</tbody>
</table>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 (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 서류의 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65.7%로 크게 상승하고 두
류가 42.2%로 상승한데 기인하여, 5월 중 곡물 농가판매가격은 전
년 동월대비 11.0% 상승(전월대비 1.0% 하락)한 109.0을 기록함.

- 과실이 전년 동월대비 40.5%로 상승하고, 체소류가 전년 동월대비
3.1% 하락함으로써 정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9.2% 상승(전월대비 10.3% 하락)한 113.3을 기록함.

- 가축이 전년 동월대비 5.3% 하락함으로써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
수는 전년 동월대비 4.4% 하락(전월대비 4.0% 하락)한 137.8을 기
록함

- 전년 동월대비 화훼의 판매가격지수가 2.7% 하락하였으나, 부산물
의 판매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7.0% 상승하여 기타작물의 농가판매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41% 상승(전월대비 2.4% 하락)한 117.3을
기록함.

○ 2004년 5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5% 상승(전월대
비 0.7% 하락)한 119.0을 기록함.

- 가계용품 구입가격지수는 117.3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3.7%
(전월대비 0.1%) 상승함. 이는 전년 동월대비 괴목 및 신발류
(-2.7%)가 하락하였으나, 광열·수도비(8.5%), 교육비(6.0%), 식료
품 구입비(5.9%) 등이 크게 올른데 기인함.

- 농업용품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상승한 122.0을 기
록하였음. 이는 가축 구입비(-14.1%)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영농자
재(22.1%), 사료비(15.1%) 등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함.

- 농촌임료금은 농가계 임차료(4.8%), 도정료(3.5%)가 상승하여 전년
동월대비 0.5% 상승한 117.6을 기록함.
<table>
<thead>
<tr>
<th>가용치</th>
<th>2003</th>
<th></th>
<th>2004</th>
<th></th>
<th>동락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4월</td>
<td>5월</td>
<td>4월</td>
<td>5월</td>
<td></td>
</tr>
<tr>
<td>총지수</td>
<td>1000</td>
<td>114.7</td>
<td>115.0</td>
<td>119.8</td>
<td>119.0</td>
</tr>
<tr>
<td>가계용품</td>
<td>559.3</td>
<td>113.7</td>
<td>113.1</td>
<td>117.2</td>
<td>117.3</td>
</tr>
<tr>
<td>식료품</td>
<td>100.7</td>
<td>122.1</td>
<td>119.1</td>
<td>126.8</td>
<td>126.1</td>
</tr>
<tr>
<td>의복및</td>
<td>27.6</td>
<td>109.7</td>
<td>110.6</td>
<td>108.6</td>
<td>107.6</td>
</tr>
<tr>
<td>가구잡기및</td>
<td>42.2</td>
<td>95.4</td>
<td>95.0</td>
<td>96.2</td>
<td>96.4</td>
</tr>
<tr>
<td>광열수도</td>
<td>50</td>
<td>110.5</td>
<td>109.8</td>
<td>117.6</td>
<td>119.1</td>
</tr>
<tr>
<td>보건의료</td>
<td>79.5</td>
<td>114.6</td>
<td>114.9</td>
<td>117.3</td>
<td>117.3</td>
</tr>
<tr>
<td>교육</td>
<td>111.1</td>
<td>120.9</td>
<td>121.0</td>
<td>128.2</td>
<td>128.2</td>
</tr>
<tr>
<td>교양교육</td>
<td>7.9</td>
<td>103.2</td>
<td>103.3</td>
<td>104.0</td>
<td>104.1</td>
</tr>
<tr>
<td>교통통신</td>
<td>109.4</td>
<td>108.2</td>
<td>107.9</td>
<td>108.8</td>
<td>109.1</td>
</tr>
<tr>
<td>기타잡비</td>
<td>30.9</td>
<td>114.3</td>
<td>114.4</td>
<td>115.3</td>
<td>115.3</td>
</tr>
<tr>
<td>농업용품</td>
<td>359.4</td>
<td>116.1</td>
<td>117.4</td>
<td>124.6</td>
<td>122.0</td>
</tr>
<tr>
<td>종자</td>
<td>19.6</td>
<td>98.2</td>
<td>98.2</td>
<td>97.1</td>
<td>97.1</td>
</tr>
<tr>
<td>비료</td>
<td>34.2</td>
<td>100.2</td>
<td>100.2</td>
<td>107.1</td>
<td>107.1</td>
</tr>
<tr>
<td>농약</td>
<td>39.8</td>
<td>100.3</td>
<td>100.3</td>
<td>100.7</td>
<td>100.7</td>
</tr>
<tr>
<td>농기구</td>
<td>93.3</td>
<td>100.6</td>
<td>100.6</td>
<td>100.8</td>
<td>100.8</td>
</tr>
<tr>
<td>영농명부비</td>
<td>28</td>
<td>106.9</td>
<td>107.8</td>
<td>119.5</td>
<td>123.3</td>
</tr>
<tr>
<td>가축</td>
<td>45.8</td>
<td>202.9</td>
<td>212.6</td>
<td>205.1</td>
<td>182.6</td>
</tr>
<tr>
<td>사료</td>
<td>63.4</td>
<td>111.4</td>
<td>111.4</td>
<td>135.9</td>
<td>135.9</td>
</tr>
<tr>
<td>영농자재</td>
<td>35.3</td>
<td>103.0</td>
<td>103.0</td>
<td>125.8</td>
<td>125.8</td>
</tr>
<tr>
<td>농촌임금</td>
<td>81.3</td>
<td>115.1</td>
<td>117.0</td>
<td>116.8</td>
<td>117.6</td>
</tr>
<tr>
<td>농업노동임금</td>
<td>36.8</td>
<td>118.8</td>
<td>122.3</td>
<td>117.9</td>
<td>117.9</td>
</tr>
<tr>
<td>기타임금</td>
<td>2.2</td>
<td>123.7</td>
<td>125.2</td>
<td>120.9</td>
<td>122.0</td>
</tr>
<tr>
<td>도정료</td>
<td>7.4</td>
<td>111.8</td>
<td>111.8</td>
<td>115.7</td>
<td>115.7</td>
</tr>
<tr>
<td>농기계임차료</td>
<td>34.9</td>
<td>111.4</td>
<td>112.1</td>
<td>115.6</td>
<td>117.5</td>
</tr>
</tbody>
</table>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 2004년 5월 중 서류, 두류, 과실류의 판매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함으로써 농가판매가격지수 117.4를 기록하였으며, 사료구입비, 영농 자체 구입비 등이 올라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9.0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5월 중 패리티 지수가 98.7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동월대비 2.0%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4.3%로 악화되었다.

<table>
<thead>
<tr>
<th>농가교역조건의 변화</th>
<th>2003</th>
<th>2004</th>
<th>등락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4월</td>
<td>5월</td>
<td>4월</td>
</tr>
<tr>
<td>농가판매가격지수(A)</td>
<td>115.2</td>
<td>111.3</td>
<td>123.5</td>
</tr>
<tr>
<td>농가구입가격지수(B)</td>
<td>114.7</td>
<td>115.0</td>
<td>119.8</td>
</tr>
<tr>
<td>패리티지수(A/B*100)</td>
<td>100.4</td>
<td>96.8</td>
<td>103.1</td>
</tr>
</tbody>
</table>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image-url)
3. 농업인력

- 2004년 2/4 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7만 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2.25%로 크게 증가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9.7% 감소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20.1% 증가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8.8%, 전 분기 대비로는 37.8% 증가하였음.

<table>
<thead>
<tr>
<th>농림업 취업자수 동향</th>
<th>2003</th>
<th>2004</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2/4</td>
<td>1/4</td>
</tr>
<tr>
<td>경제활동 인구</td>
<td>22,916</td>
<td>23,065</td>
<td>22,982</td>
</tr>
<tr>
<td>취 업 자</td>
<td></td>
<td></td>
<td></td>
</tr>
<tr>
<td>전 산업</td>
<td>22,139</td>
<td>22,303</td>
<td>22,104</td>
</tr>
<tr>
<td>농림업업</td>
<td>1,950</td>
<td>2,127</td>
<td>1,609</td>
</tr>
<tr>
<td>농가</td>
<td>1,733</td>
<td>1,889</td>
<td>1,420</td>
</tr>
<tr>
<td>비농가</td>
<td>217</td>
<td>238</td>
<td>188</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 2/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와 농가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 분기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외취업자수 또한 51만 6천명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3% 감소하였음.

<table>
<thead>
<tr>
<th>농가의 취업자 변화</th>
<th>2003</th>
<th>2004</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2/4</td>
<td>1/4</td>
</tr>
<tr>
<td>농림업취업자</td>
<td>1,733</td>
<td>1,889</td>
<td>1,420</td>
</tr>
<tr>
<td>농외취업자</td>
<td>539</td>
<td>539</td>
<td>558</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797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0.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3년</th>
<th>2003. 1~5</th>
<th>2004. 1~5</th>
<th>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축산물</td>
<td>1,859.8</td>
<td>688.2</td>
<td>797.1</td>
<td>15.8</td>
</tr>
<tr>
<td>농산물</td>
<td>1,563.2</td>
<td>609.0</td>
<td>695.2</td>
<td>14.2</td>
</tr>
<tr>
<td>축산물</td>
<td>119.5</td>
<td>41.6</td>
<td>58.4</td>
<td>40.4</td>
</tr>
<tr>
<td>임산물</td>
<td>177.1</td>
<td>37.6</td>
<td>43.5</td>
<td>15.4</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중 인삼(24.3%), 김치(14.9%), 화훼(8.9%), 채소(8.7%) 등은 증가하였으나, 닭고기(-52.7%), 과실류(-4.2%), 밥 등 산림부산물 (-7.5%)는 감소하였음.

○ 또한 가공농산물은 가공식품 및 목재류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8.0% 증가하였음.
  - 연초류(34.6%), 소스류(21.0%), 주류(19.3%), 면류(15.4%), 목재류(19.9%) 증가
주요 품목의 수출액

<table>
<thead>
<tr>
<th>품 목</th>
<th>2002</th>
<th>2003</th>
<th>2004(목표)</th>
<th>2003.1~5</th>
<th>2004.1~5</th>
<th>전년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채 소</td>
<td>89.5</td>
<td>100.6</td>
<td>120</td>
<td>45.1</td>
<td>48.0</td>
<td>6.3</td>
</tr>
<tr>
<td>김 치</td>
<td>79.3</td>
<td>93.2</td>
<td>100</td>
<td>37.5</td>
<td>43.0</td>
<td>14.9</td>
</tr>
<tr>
<td>인 삼</td>
<td>55.0</td>
<td>66.6</td>
<td>73</td>
<td>17.8</td>
<td>22.1</td>
<td>24.3</td>
</tr>
<tr>
<td>화 헤클</td>
<td>32.1</td>
<td>45.3</td>
<td>50</td>
<td>14.8</td>
<td>16.2</td>
<td>8.9</td>
</tr>
<tr>
<td>과 실</td>
<td>82.8</td>
<td>70.5</td>
<td>70</td>
<td>25.7</td>
<td>24.6</td>
<td>△4.2</td>
</tr>
<tr>
<td>돼지고기</td>
<td>22.2</td>
<td>31.3</td>
<td>30</td>
<td>7.6</td>
<td>8.9</td>
<td>16.7</td>
</tr>
<tr>
<td>닭고기</td>
<td>3.3</td>
<td>3.8</td>
<td>2</td>
<td>1.6</td>
<td>0.7</td>
<td>△52.7</td>
</tr>
<tr>
<td>산림부산물</td>
<td>95.1</td>
<td>96.2</td>
<td>110</td>
<td>6.0</td>
<td>5.5</td>
<td>△7.5</td>
</tr>
<tr>
<td>가공식품</td>
<td>1,108.8</td>
<td>1,271.4</td>
<td>1,355</td>
<td>500.4</td>
<td>590.1</td>
<td>17.9</td>
</tr>
<tr>
<td>목재류</td>
<td>71.8</td>
<td>80.9</td>
<td>90</td>
<td>31.7</td>
<td>38.0</td>
<td>19.9</td>
</tr>
<tr>
<td>합 계</td>
<td>1,639.9</td>
<td>1,859.8</td>
<td>2,000</td>
<td>688.2</td>
<td>310.7</td>
<td>15.8</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수입동향

- 2004년 5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4%, 11.6%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1.4% 감소하였음.

- 주요 품목별로는 닭고기(-50.8%), 쇠고기(-49.9%), 밀(-7.3%)의 수입 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49.0%), 옥수수(41.1%) 등은 증가하였음.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3년</th>
<th>2003.1~5</th>
<th>2004.1~5</th>
<th>전년 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축산물</td>
<td>8,328.2</td>
<td>4,325.0</td>
<td>4,701.2</td>
<td>8.7</td>
</tr>
<tr>
<td>농산물</td>
<td>6,212.7</td>
<td>2,594.7</td>
<td>3,043.4</td>
<td>18.4</td>
</tr>
<tr>
<td>축산물</td>
<td>2,115.6</td>
<td>829.3</td>
<td>651.9</td>
<td>△21.4</td>
</tr>
<tr>
<td>임산물</td>
<td>1,892.9</td>
<td>901.0</td>
<td>1,005.9</td>
<td>11.6</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입액

<table>
<thead>
<tr>
<th>품목</th>
<th>2002</th>
<th>2003</th>
<th>2003.1~5</th>
<th>2004.1~5</th>
<th>전년 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돼지고기</td>
<td>987.5</td>
<td>1,054.6</td>
<td>397.6</td>
<td>561.1</td>
<td>41.1</td>
</tr>
<tr>
<td>밥</td>
<td>543.4</td>
<td>612.1</td>
<td>283.7</td>
<td>263.0</td>
<td>△7.3</td>
</tr>
<tr>
<td>대두</td>
<td>328.9</td>
<td>410.7</td>
<td>162.9</td>
<td>207.8</td>
<td>27.6</td>
</tr>
<tr>
<td>쇠고기</td>
<td>946.8</td>
<td>1,177.0</td>
<td>451.7</td>
<td>226.2</td>
<td>△49.9</td>
</tr>
<tr>
<td>돼지고기</td>
<td>216.4</td>
<td>195.9</td>
<td>79.5</td>
<td>118.5</td>
<td>49.0</td>
</tr>
<tr>
<td>닭고기</td>
<td>101.9</td>
<td>95.0</td>
<td>37.2</td>
<td>18.3</td>
<td>△50.8</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4년 5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와 파인애플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72.5%, 31.4% 증가하여 지난분기의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그러나 포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table>
<thead>
<tr>
<th>품목</th>
<th>2002</th>
<th>2003</th>
<th>2003.1~5</th>
<th>2004.1~5</th>
<th>전년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오렌지</td>
<td>147.6</td>
<td>168.7</td>
<td>119.4</td>
<td>146.7</td>
<td>22.9</td>
</tr>
<tr>
<td>키위</td>
<td>16.4</td>
<td>22.5</td>
<td>5.1</td>
<td>8.8</td>
<td>72.5</td>
</tr>
<tr>
<td>포도</td>
<td>30.3</td>
<td>39.0</td>
<td>22.7</td>
<td>22.3</td>
<td>△1.8</td>
</tr>
<tr>
<td>파인애플</td>
<td>23.2</td>
<td>28.1</td>
<td>12.1</td>
<td>15.9</td>
<td>31.4</td>
</tr>
<tr>
<td>바나나</td>
<td>78.2</td>
<td>90.7</td>
<td>41.6</td>
<td>42.2</td>
<td>1.4</td>
</tr>
<tr>
<td>레몬</td>
<td>6.0</td>
<td>4.7</td>
<td>1.8</td>
<td>2.0</td>
<td>11.1</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한 7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 수입(-18.4%)과 축산물 수입(-15.3%)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3년</th>
<th>2003.1~5</th>
<th>2004.1~5</th>
<th>전년동기대비 증감률 (%)</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축산물</td>
<td>2,321.0</td>
<td>861.9</td>
<td>777.1</td>
<td>△9.8</td>
</tr>
<tr>
<td>농산물</td>
<td>1,725.5</td>
<td>633.2</td>
<td>516.8</td>
<td>△18.4</td>
</tr>
<tr>
<td>축산물</td>
<td>38.5</td>
<td>16.3</td>
<td>13.8</td>
<td>△15.3</td>
</tr>
<tr>
<td>임산물</td>
<td>557.0</td>
<td>212.4</td>
<td>246.5</td>
<td>16.0</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대중국수출 품목의 수출액

<table>
<thead>
<tr>
<th>품목</th>
<th>2002</th>
<th>2003</th>
<th>2003. 1~5</th>
<th>2004. 1~5</th>
<th>2003년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과자류</td>
<td>7.4</td>
<td>12.5</td>
<td>5.0</td>
<td>8.1</td>
<td>62.0</td>
</tr>
<tr>
<td>면류</td>
<td>4.7</td>
<td>18.0</td>
<td>6.2</td>
<td>8.6</td>
<td>38.7</td>
</tr>
<tr>
<td>당류</td>
<td>21.4</td>
<td>24.3</td>
<td>9.3</td>
<td>10.7</td>
<td>15.1</td>
</tr>
<tr>
<td>화훼류</td>
<td>4.7</td>
<td>10.0</td>
<td>2.6</td>
<td>1.6</td>
<td>△38.5</td>
</tr>
<tr>
<td>커피</td>
<td>11.4</td>
<td>7.6</td>
<td>3.6</td>
<td>4.5</td>
<td>25.0</td>
</tr>
<tr>
<td>합판</td>
<td>12.0</td>
<td>15.3</td>
<td>7.5</td>
<td>9.9</td>
<td>32.0</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국에 대한 과자류와 합판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0%, 32.0%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그러나 화훼류의 수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38.5%)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 동향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호조로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2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남.

○ 신선농산물은 김치(15.6%), 화훼(39.4%), 인삼(5.0%) 등은 증가하였으나 닭고기 및 산림부산물은 각각 46.6%, 15.0%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은 주류, 면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였음.

- 면류(87.4%), 주류(28.9%), 과자류(25.4%), 목재류(9.4%) 증가
대일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품 목</th>
<th>2002</th>
<th>2003</th>
<th>2003.1~5</th>
<th>2004.1~5</th>
<th>비중 (%)</th>
<th>전년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채 소</td>
<td>66.4</td>
<td>76.0</td>
<td>36.2</td>
<td>36.7</td>
<td>76.5</td>
<td>1.2</td>
</tr>
<tr>
<td>김 치</td>
<td>74.1</td>
<td>87.2</td>
<td>35.3</td>
<td>40.8</td>
<td>94.9</td>
<td>15.6</td>
</tr>
<tr>
<td>인 삼</td>
<td>28</td>
<td>29.2</td>
<td>9.3</td>
<td>9.8</td>
<td>44.3</td>
<td>5.0</td>
</tr>
<tr>
<td>화 쇠</td>
<td>22.9</td>
<td>29.7</td>
<td>9.3</td>
<td>13.0</td>
<td>80.2</td>
<td>39.4</td>
</tr>
<tr>
<td>과 실</td>
<td>5.5</td>
<td>7.0</td>
<td>3.1</td>
<td>4.4</td>
<td>17.9</td>
<td>40.6</td>
</tr>
<tr>
<td>돼지고기</td>
<td>0.8</td>
<td>0.9</td>
<td>0.3</td>
<td>0.7</td>
<td>7.9</td>
<td>146.9</td>
</tr>
<tr>
<td>닭고기</td>
<td>2</td>
<td>2.6</td>
<td>1.1</td>
<td>0.6</td>
<td>85.7</td>
<td>△ 46.6</td>
</tr>
<tr>
<td>산림부산물</td>
<td>77.3</td>
<td>66.8</td>
<td>3.2</td>
<td>2.7</td>
<td>49.1</td>
<td>△ 15.0</td>
</tr>
<tr>
<td>가공식품</td>
<td>287</td>
<td>331.0</td>
<td>129.8</td>
<td>153.2</td>
<td>26.0</td>
<td>18.0</td>
</tr>
<tr>
<td>목재류</td>
<td>26</td>
<td>27.1</td>
<td>10.4</td>
<td>11.4</td>
<td>30.0</td>
<td>9.4</td>
</tr>
<tr>
<td>합 계</td>
<td>590.0</td>
<td>657.5</td>
<td>238.0</td>
<td>273.3</td>
<td>34.3</td>
<td>14.8</td>
</tr>
</tbody>
</table>

주: 비중은 전월 수출 중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6)

1.1. 쌀

○ 2003년도 쌀 재배면적은 101만 6천 ha로 전년도 재배면적(105만 3천 ha)에 비해 3.8% 감소하였음. 또한 2003년도 쌀 생산량은 445만 1천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492만 7천톤)에 비해 9.7% 감소하였음.

○ 2004년 2/4분기 중 쌀 도매가격은 지난 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음. 6월 중 쌀 도매가격은(전라남, 상품기준) 80kg 당 17만 1천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였으며, 평년 대비 7.4% 상승하였음.

**쌀 도매가격 동향 (전라남, 상품 기준)**

![그래프]

주) 평년은 1998~2003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업공사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종선 전문연구원 (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1.2. 보리

○ 2003년도 보리(쌀보리) 재배면적은 2만 4천 ha로 전년도(3만 6천 ha)에 비해 34.4%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6만 톤으로 전년도 (9만 4천 톤)에 비해 36.4% 감소하였음.

○ 2004년도 2/4 분기 평균 보리(쌀보리, 상품기준) 도매가격은 70kg 당 7만 3천 5백 원으로 전 분기와 거의 변동이 없었음. 6월 중 쌀보리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2%, 평년 대비 1.3% 상승하였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03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두

○ 2003년도 콩 재배면적은 8만 ha로 전년도(8만 1천 ha)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0만 5천 톤으로 전년도(11만 5천 톤)에 비해 8.6% 감소하였음.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03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04년 2/4분기 대두 평균 도매가격(국산 백태, 상품기준)은 70kg 당 44만 9천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47.2%로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6 월 중 대두 도매가격은 52만 4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105.8%, 평년대 비 156.5%로 크게 상승하였음.

1.4. 고구마

○ 2003년도 고구마 재배면적은 1만 4천 ha로 전년도(1만 5천 ha)에 비해 3.8%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26만 9천 톤으로 전년도(31만 7천 톤)에 비해 15.1% 감소하였음.

○ 2004년 2/4분기 중 고구마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은 15kg당 3만 7 천으로 전 분기대비 31.1%로 크게 상승하였음. 6월중 고구마 도매가 격은 3만 6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25.9% 하락하였으나, 평년대비 24.1% 상승하였음.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image)

주: 평년은 1998~2003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사료곡물

○ 2004년도 1~5월 누계 사료곡물 수입량은 348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하였으며, 도입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25.2%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2.7% 증가한 4억 8천 3백만 달러 입.

○ 같은 기간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267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음. 반면 사료용 밀 수입량은 34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로 감소하여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도입단가는 사료용 옥수수가 158달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4%로 상승하였고, 사료용 밀은 172달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2.0%로 크게 상승하였음.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수입량</th>
<th>단가</th>
<th>수입액</th>
<th>전년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단가</td>
<td>6,938</td>
<td>6,605</td>
<td>2,529</td>
<td>2,674</td>
</tr>
<tr>
<td>수입액 백만US$</td>
<td>106</td>
<td>117</td>
<td>115</td>
<td>158</td>
</tr>
<tr>
<td>수입액 백만US$</td>
<td>735</td>
<td>773</td>
<td>290</td>
<td>423</td>
</tr>
<tr>
<td>단가</td>
<td>1,609</td>
<td>1,372</td>
<td>742</td>
<td>348</td>
</tr>
<tr>
<td>수입액 백만US$</td>
<td>100</td>
<td>109</td>
<td>100</td>
<td>172</td>
</tr>
<tr>
<td>수입액 백만US$</td>
<td>161</td>
<td>150</td>
<td>74</td>
<td>60</td>
</tr>
<tr>
<td>단가</td>
<td>8,547</td>
<td>7,977</td>
<td>3,271</td>
<td>3,483</td>
</tr>
<tr>
<td>수입액 백만US$</td>
<td>105</td>
<td>111</td>
<td>111</td>
<td>139</td>
</tr>
<tr>
<td>수입액 백만US$</td>
<td>897</td>
<td>923</td>
<td>364</td>
<td>483</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 7)

2.1 배추

○ 배추의 2/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1,895만원(상품 기준)으로 가격이 낮았던 1/4분기보다 20% 높고, 평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6월 중순 농업관측정보센터의 표본농가 조사결과, 균 년고령 배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한 8,5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평년 재배면적인 9,700ha보다는 12% 적을 것으로 나타남.

○ 7월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5%, 8월에는 7% 내외 적을 것으로 조사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td>
<td>1,285</td>
<td>1,377</td>
<td>2,004</td>
<td>2,238</td>
<td>1,623</td>
<td>1,695</td>
<td>1,395</td>
<td>1,400</td>
<td>1,400</td>
<td>1,400</td>
<td>1,400</td>
<td>1,400</td>
</tr>
<tr>
<td>2003</td>
<td>4,008</td>
<td>4,081</td>
<td>5,813</td>
<td>4,889</td>
<td>3,339</td>
<td>1,514</td>
<td>2,753</td>
<td>2,827</td>
<td>3,135</td>
<td>4,004</td>
<td>2,965</td>
<td>1,627</td>
</tr>
<tr>
<td>평년</td>
<td>2,422</td>
<td>2,320</td>
<td>2,791</td>
<td>2,132</td>
<td>1,709</td>
<td>1,767</td>
<td>2,317</td>
<td>3,963</td>
<td>3,341</td>
<td>2,768</td>
<td>2,348</td>
<td>2,250</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는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홍승지(hseungj@krei.re.kr), 서대석(dssuh@krei.re.kr), 한석호(shohan@krei.re.kr), 김성우(swookim@krei.re.kr) 전문연구원, 송성환(song9870@krei.re.kr), 전상수(ss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 7월에 출하된 고랭지배추의 예상단수는 생육기 고온, 건조한 날씨로 작년보다 5% 내외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7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1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7월의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300~350만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평년 동기보다는 40%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됨.

○ 8월에 출하된 고랭지배추의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7% 내외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평년 작황을 유지할 경우 가격은 평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1,2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평년 재배면적인 13,231h보다는 15% 적은 수준임.

2.2 무

○ 무의 2/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156만원으로(상품 기준)로 지난 1/4분기보다 30%, 평년 2/4분기보다는 40% 낮은 수준이었음. 이는 채종무 및 품종무의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그러나 6월 이후 봄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가격은 상승세에 있음.

○ 6월 중순 농업관측정보센터의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고랭지무 과종면적은 작년보다 13% 감소한 2,5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평년 재배면적인 3,400ha 보다는 25% 적을 것으로 전망됨.

○ 6월 중순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7월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20% 내외 적을 것으로 나타났고, 8월 이후에는 작년보다 13% 내외 적을 것으로 조사됨.
○ 7월에 출하할 고령지무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10%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7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3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호남 충남 등지의 평지 여름무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단수도 작년보다 10% 내외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평지 여름 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7월의 전체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27% 내외 적을 것으로 나타나, 7월의 무 도매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250~3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크게 낮았던 작년 동기보다는 60%, 평년 동기보다는 2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됨.

○ 8월에 출하될 고령지무의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평년 작황을 유지할 경우 가격은 평년 가격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td>
<td>1,903</td>
<td>2,125</td>
<td>2,520</td>
<td>1,996</td>
<td>1,229</td>
<td>2,410</td>
<td>1,903</td>
<td>2,125</td>
<td>2,520</td>
<td>1,996</td>
<td>1,229</td>
<td>2,410</td>
</tr>
<tr>
<td>2003</td>
<td>3,963</td>
<td>4,256</td>
<td>6,391</td>
<td>5,058</td>
<td>3,110</td>
<td>1,441</td>
<td>1,525</td>
<td>1,765</td>
<td>2,956</td>
<td>4,261</td>
<td>3,647</td>
<td>3,148</td>
</tr>
<tr>
<td>평년</td>
<td>2,568</td>
<td>2,718</td>
<td>2,980</td>
<td>2,913</td>
<td>2,614</td>
<td>2,135</td>
<td>2,034</td>
<td>2,770</td>
<td>3,167</td>
<td>3,519</td>
<td>2,760</td>
<td>2,760</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 ~ 2003년 12월의 평균, 최소를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가을두 과종의향면적은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재배면적은 10,6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평년 재배면적이 12,300ha보다 14% 적은 수준임.

2.3 교추

○ 건고추의 2/4분기 도매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6,1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 평년 동기보다 40% 높은 반면, 1/4분기보다 4% 낮은 수준이었음. 이처럼 가격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았으나 1/4분기보다 낮았던 것은 정부가 MMA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방출하였고,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부담으로 상인들이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임.

○ 작년 8월~금년 6월말까지 고추관련품목 수입량을 건고추로 환산한 고추 전체 수입량은 6만 840톤으로 전년 동기(3만 3,260톤)보다 83%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r>
</thead>
<tbody>
<tr>
<td>2003년산</td>
<td>4,511</td>
<td>6,146</td>
<td>5,988</td>
<td>6,020</td>
<td>6,045</td>
<td>6,192</td>
<td>6,336</td>
<td>6,465</td>
<td>6,315</td>
<td>6,118</td>
<td>5,872</td>
<td></td>
</tr>
<tr>
<td>평년</td>
<td>3,523</td>
<td>4,248</td>
<td>4,448</td>
<td>4,482</td>
<td>4,430</td>
<td>4,449</td>
<td>4,565</td>
<td>4,557</td>
<td>4,394</td>
<td>4,291</td>
<td>4,406</td>
<td>4,076</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작년 8월~금년 6월말까지 고추의 공급량은 21만 850여톤, 소비량은 19만 3,550여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내외 적은 수준이었음. 6월말 현재 재고량은 1만 7,3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동기(1만 9,770톤)보다 13% 적은 수준임.

○ 6월말 현재 중국 산동성의 익도산 고추 재고량은 약 4,500톤으로 작년 동기(1만 8천톤)보다 75% 적은 것으로 조사됨.

○ 6월말 현재 중국 산지 가격은 통상 16,000원으로 작년 동기(3,800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임. 이는 중국의 2003년산 고추 생산량이 2002년산보다 50% 이상 감소하였고, 최대 수입국인 한국의 고추 생산량이 크게 적어 수입수요가 많기 때문임.

○ 고추 민간 수입량은 중국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수요 증가로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4배 이상 높아 작년 10월에 7,700여톤에서 점차 감소하여 금년 6월에는 4,560톤이었음. 중국내 재고량이 작년보다 크게 적고, 산지 가격도 높아 민간 수입 감소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국내 재고량이 적고 민간 수입은 감소되나 MMA 물량을 고려할 경우 고추의 7월 가격은 약세가 될 전망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의 6월 15일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작년보다 6%, 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월 중에 조사한 결과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6월 중순 이후의 집중호우로 인한 고추의 피해 면적은 적었으나, 비가 많이 내려 역병이 예년보다 한달 정도 빨리 발생할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20% 정도 증가하여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됨.

2.4. 마늘

○ 마늘의 2/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2,69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단정
  기인 1/4분기보다 5% 낮으나, 작년 동기보다 24%, 평년 동기보다는
  34% 높은 수준임.

○ 이처럼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금년 생산량이 작년보다 6% 적
  었기 때문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종 조사한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산
  보다 9% 감소한 3만 237ha임.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2% 감소한
  6,060ha, 난지형은 10% 감소한 2만 4,177ha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table>
<thead>
<tr>
<th>원/kg</th>
</tr>
</thead>
<tbody>
<tr>
<td>500</td>
</tr>
<tr>
<td>1,000</td>
</tr>
<tr>
<td>1,500</td>
</tr>
<tr>
<td>2,000</td>
</tr>
<tr>
<td>2,500</td>
</tr>
<tr>
<td>3,000</td>
</tr>
<tr>
<td>3,50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td>
<td>2,839</td>
<td>2,840</td>
<td>2,847</td>
<td>2,940</td>
<td>2,890</td>
<td>2,25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td>
<td>1,889</td>
<td>2,100</td>
<td>2,227</td>
<td>2,302</td>
<td>2,216</td>
<td>2,007</td>
<td>1,87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년</td>
<td>1,633</td>
<td>2,045</td>
<td>2,121</td>
<td>2,287</td>
<td>2,041</td>
<td>1,700</td>
<td>1,734</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품질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결과, 금년산 마늘의 단수는 작년산보다 4% 많은 10a당 1,183kg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작년 동기보다 2% 적고, 난지형이 5%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35만 7,697톤으로 작년산(37만 8,795톤)보다 6% 적은 것으로 추정됨.

<table>
<thead>
<tr>
<th>금년산 마늘 생산량</th>
</tr>
</thead>
<tbody>
<tr>
<td>재배면적</td>
</tr>
<tr>
<td>2003년</td>
</tr>
<tr>
<td>천ha</td>
</tr>
<tr>
<td>천톤</td>
</tr>
<tr>
<td>한지</td>
</tr>
<tr>
<td>난지</td>
</tr>
</tbody>
</tabl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중국의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수출기대감과 작년산 마늘의 농가 판매가격이 줄어 작년산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황은 구비대기 기상효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중국의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6월 현재 중국의 산지수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달보다 105달러 하락한 톤당 145달러로 조사됨. 중국산 마늘의 국내 수입원가는 신선·냉장마늘이 kg당 2,170원, 간마늘은 2,850원 수준이며, 도매원가는 신선마늘이 2,390원, 간마늘은 3,130원으로 추정됨.

○ 2004년 6월 수입량은 간마늘 200톤, 냉동마늘 1,902톤, 건조마늘 8톤, 초산조제마늘 303톤이며, 신선마늘로 환산할 경우 3,040톤으로 작년보다 56% 많은 수준임.
○ 6월 20일 현재 난지형 마늘의 포전거래면적은 재배면적의 12%로 작년 동기(14%)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전거래가격은 평당 7,000~9,000원(상품기준)으로 작년산보다 20% 높은 수준임.

○ 재장업체 임고의향 조사결과, 금년산 마늘 임고의향률은 작년 동기의 7만 8,700톤보다 8% 적은 7만 2,700톤 내외로 조사되었음. 임고에 정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6월 중순~7월 상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임고회망가격은 작년(1,450원)보다 15% 높은 kg당 1,680원 내외로 조사되었음.

○ 생산량이 작년산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가격 상승으로 7월 이후 마늘 수입은 신선·냉장마늘과 냉동마늘 중심으로 작년 동기보다 다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7월 난지형 마늘의 평균도매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5. 양과

○ 양과의 2/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450원(상품 기준)으로 단경기인 1/4분기보다 50%, 작년 동기보다 44%, 평년 동기보다는 1% 낮은 수준임.

○ 이처럼 가격이 지난 1/4분기와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생산량이 작년보다 27% 많았기 때문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종 조사한 금년산 양과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26% 증가한 1만 5,563ha임.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1% 증가한 2,769ha, 중만생종은 27% 증가한 1만 2,794ha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결과, 금년산 양과의 단수는 작년산보다 1% 많은 10a당 6,090kg으로 조사되었음.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4% 많고, 중만생종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평균을 평균값.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94만 7,774톤으로 작년산(74만 5,203톤)보다 27% 많은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 조생중은 작년산보다 26% 많은 17만 2,841톤, 중반생중은 27% 많은 77만 4,933톤임.

○ 중국의 금년산 양파 채배면적은 작년산보다 10% 증가하였으며, 우량 종자보급에 따라 단수는 작년산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금년산 중국의 양파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샤먼, 운남지역의 금년 생산량은 20만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동지역의 생산량은 100만톤 이상, 간수성 지역은 30만톤 이상으로 조사됨. 산동성 지역의 저장 및 수출가능량은 20만톤 내외로 추정됨.

○ 6월 현재 중국의 산지수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달보다 12달러
하락한 톤당 85달러로 조사되었음. 신선양과의 경우 국내수입원가는 kg당 500원으로 추정됨.

○ 2004년 6월 수입량은 신선양과 23톤, 건조양과 15톤, 냉동양과 22톤이며, 신선양과로 환산할 경우 250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24% 적은 수준이었음.

○ 6월말 현재 중만생중 양과의 포전거래비용은 제배면적의 25%로 작년 동기 (3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포전거래가격은 평당 5,000~7,000원(상품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낮은 수준임.

○ 저장업체 입고의향 조사결과, 금년산 양과 입고의향율은 작년동기 의 38만 7,000톤보다 6% 많은 41만톤 내외로 조사됨. 입고예정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6월 중순~7월 상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입고저량 가격은 작년(430원)보다 16% 낮은 kg당 360원 내외로 조사됨.

○ 중국산 양과의 수입단가가 kg당 500원으로 당분간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중만생중 양과 생산량이 작년 동기보다 23% 많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7월 양과가격은 작년 동기(620원)보다 낮은 상품 kg당 4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양과 생산량

<table>
<thead>
<tr>
<th></th>
<th>제배면적</th>
<th>10㎡당 수량</th>
<th>생산량</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3년</td>
<td>2004년</td>
<td>%</td>
</tr>
<tr>
<td>양파</td>
<td>12.4</td>
<td>15.6</td>
<td>26.0</td>
</tr>
<tr>
<td>조생종</td>
<td>2.3</td>
<td>2.8</td>
<td>20.8</td>
</tr>
<tr>
<td>중만생종</td>
<td>10.1</td>
<td>12.8</td>
<td>27.2</td>
</tr>
</tbody>
</tabl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6 대파

○ 대파의 2/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780원으로 1/4분기보다 44%, 작년
동기보다는 32% 낮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3% 높은 수준임. 이처럼 가격이 1/4분기와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주출하 작정인 하우스 대파와 노지대파의 정식시기에 가격이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7~8월의 여름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좋은 편이어서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4%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7~8월의 여름대파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13% 많아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1,000원)보다 40% 낮은 상품 kg당 600원 내외로 전망됨.

○ 9~11월의 가을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정식기 대파 가격이 높아 작년 동기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table>
<thead>
<tr>
<th>원/kg</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td>
<td>1,043</td>
<td>1,600</td>
<td>1,539</td>
<td>1,161</td>
<td>593</td>
<td>59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td>
<td>1,522</td>
<td>1,696</td>
<td>1,608</td>
<td>1,435</td>
<td>1,161</td>
<td>866</td>
<td>892</td>
<td>1,003</td>
<td>2,020</td>
<td>2,105</td>
<td>1,796</td>
<td>1,185</td>
</tr>
<tr>
<td>평년</td>
<td>778</td>
<td>876</td>
<td>894</td>
<td>709</td>
<td>792</td>
<td>716</td>
<td>1,117</td>
<td>1,406</td>
<td>902</td>
<td>829</td>
<td>827</td>
<td></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값의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1월 하순 이후에 출하되는 남부지방 거울대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한 5,270ha 내외로 평년(5,000ha)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됨.
○ 근년의 기상 여건이 평년 수준일 경우 거울대파 주출하기인 근년 12월 이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낮을 전망임.

2.7 쪽과
○ 쪽과의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74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는 5%, 1/4분기와 작년 동기보다는 각각 18%, 27% 낮았음. 이는 작년의 쪽과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기상여건이 좋아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았기 때문임.

![쪽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image)

<table>
<thead>
<tr>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년</td>
<td>2,750</td>
<td>2,462</td>
<td>1,170</td>
<td>1,079</td>
<td>1,750</td>
<td>2,3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년</td>
<td>4,419</td>
<td>3,685</td>
<td>2,033</td>
<td>1,781</td>
<td>2,363</td>
<td>3,040</td>
<td>1,833</td>
<td>2,796</td>
<td>3,304</td>
<td>3,578</td>
<td>2,450</td>
</tr>
<tr>
<td>평년</td>
<td>2,038</td>
<td>1,586</td>
<td>1,047</td>
<td>962</td>
<td>1,878</td>
<td>2,645</td>
<td>1,517</td>
<td>1,809</td>
<td>1,919</td>
<td>1,638</td>
<td>1,382</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1~3월 가격은 작과 가격이며, 4~12월 가격은 쪽과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8월 여름쪽과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다소 나빠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1% 적을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름쪽과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7%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파의 7~8월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2,320원)보다 20% 이상 낮은 상품 kg당 1,7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9~10월의 가을쪽과 제배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이 7%, 호남과 영남 4%, 제주는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가을쪽과 제배의향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고, 중국중구의 수입 증가로 종구가격도 작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2.8 당근

2/4분기 당근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8,29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 낮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23% 높은 수준임.

2/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낮었던 것은 거울당근 저온저장물량과 봄당근 재배면적 감소로 국내 출하량은 적었지만, 중국산 당근 수입량이 작년보다 2.5배 증가하여 전체적인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7~8월의 국내 당근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0% 내외 적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당근의 수입량 증가로 전체적인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7~8월 당근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당근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평균임.
|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 7~8월에 과중될 가을당근의 과중의향면적은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농가들이 중국산 당근의 수입 증가를 우려해 쪽과, 부추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2.9 양배추

○ 2/4분기 양배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당 4,26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54%, 작년 동기보다는 47% 높은 수준임.

○ 2/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거울양배추 저온저장물량이 적은데, 봄양배추의 생산량도 적어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7~8월의 양배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봄양배추 생산량과 고랭지양배추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7~8월 양배추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높을 전망.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Graph showing the wholesale price trend of radish (product)](image)

<table>
<thead>
<tr>
<th></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td>
<td>3,720</td>
<td>4,529</td>
<td>4,535</td>
<td>5,165</td>
<td>5,112</td>
<td>5,05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td>
<td>7,884</td>
<td>7,159</td>
<td>6,402</td>
<td>5,044</td>
<td>3,704</td>
<td>1,674</td>
<td>2,176</td>
<td>2,812</td>
<td>4,124</td>
<td>6,609</td>
<td>5,084</td>
<td>3,556</td>
</tr>
<tr>
<td>평년</td>
<td>4,949</td>
<td>5,179</td>
<td>4,789</td>
<td>4,240</td>
<td>3,272</td>
<td>2,436</td>
<td>2,259</td>
<td>3,345</td>
<td>3,782</td>
<td>3,988</td>
<td>4,546</td>
<td>4,051</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제조되는 가을양배추 재배의 향연에는 작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긴급 봄양배추 가격이 높아 가을양배추 제조를 늘리려 하기 때문임.

### 2.10 감자

- 감자 수비의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0,910원으로 1/4분기보다 26% 낮았으나,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는 각각 45%, 67% 높았음. 대저의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5,520원으로 1/4분기보다 69% 낮았으나,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는 각각 9%, 11% 높았음.

- 2/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4분기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이 출하를 앞당겼고, 노지감자 작황도 좋지 않아 상품(상품)의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적었기 때문임.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table>
<thead>
<tr>
<th>원/20kg</th>
<th>5,000</th>
<th>10,000</th>
<th>15,000</th>
<th>20,000</th>
<th>25,000</th>
<th>30,000</th>
<th>35,000</th>
<th>40,000</th>
<th>45,000</th>
<th>50,000</th>
<th>55,000</th>
</tr>
</thead>
<tbody>
<tr>
<td>2004 년</td>
<td>32,977</td>
<td>40,663</td>
<td>51,130</td>
<td>49,250</td>
<td>25,885</td>
<td>17,587</td>
<td>15,648</td>
<td>18,202</td>
<td>21,391</td>
<td>25,991</td>
<td>31,490</td>
</tr>
<tr>
<td>평년</td>
<td>9,471</td>
<td>9,957</td>
<td>10,073</td>
<td>14,000</td>
<td>15,648</td>
<td>13,202</td>
<td>12,769</td>
<td>22,049</td>
<td>22,167</td>
<td>11,239</td>
<td>9,400</td>
</tr>
<tr>
<td>2003 년</td>
<td>9,340</td>
<td>10,318</td>
<td>12,789</td>
<td>26,192</td>
<td>23,630</td>
<td>14,000</td>
<td>14,400</td>
<td>9,400</td>
<td>10,302</td>
<td>10,276</td>
<td>10,604</td>
</tr>
<tr>
<td></td>
<td>1월</td>
<td>3월</td>
<td>4월</td>
<td>5월</td>
<td>6월</td>
<td>7월</td>
<td>8월</td>
<td>9월</td>
<td>10월</td>
<td>11월</td>
<td>12월</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 ~ 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5월 제해면적 조사결과, 노지봄감자 제해면적은 작년 동기 조사치(12,296ha)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노지봄감자 제해면적은 14,820ha 내외로 추정됨.

○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7월 노지봄감자(수미)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예상단수는 5월 말 ~ 6월 상순의 가뭄으로 작년보다 9% 적은 2,210kg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7월 노지봄감자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5% 적을 것으로 나타남.

○ 농업관측정보센터 지역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고랭지감자 제해면적은 작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강릉, 횡성, 홍천 등 중고랭지지역의 7월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3% 증가하고, 예상단수는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6% 많을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노지봄감자와 준고랭지감자의 7월 출하예상량을 고려할 경우
7월 수미 출하량은 작년 동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자, 7월 수미가격은
상품 20kg당 15,5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이 10%
내외 증가하는 반면, 경남과 제주는 각각 1～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제주와 경남의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과중시기에
태풍 및 침수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3. 과일

3.1. 사과

○ 2/4분기 사과 가격은 상품 15kg당 4월 5만 7,900원, 5월 5만 7,800원, 6월 5만 5,000원으로 지난해 및 평년보다 1.9~2.3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 가격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지난해 태풍피해로 생산량 및 저장량이 적어 시장에 반입량이 적기 때문임.

○ 사과 재배면적은 신규 식재로 인한 유목면적 증가로 지난해보다 1%(340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재배면적은 2만 6,73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사과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5%(950ha) 적은 1만 6,98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 성목면적을 살펴보면, 후지는 6%, 쓰가루는 8% 줄어든 반면 홍로와 기타 품종은 각각 2%, 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생육상황은 개화기의 저온 및 서리피해로 수점률이 저조하여 착과량이 부족하였고 액아의 결정량이 많아 정형과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 생육상태는 지난해보다 좋으며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사과 성목면적이 감소했지만 생육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으며 평년 수준임 것으로 전망되어 단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생산량은 태풍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39~4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이원진(wjlee), 박재홍(jhpark), 박미성(mspark)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랍.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품종 기준임. 평년은 1998. 8 ~ 2003. 7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table>
<thead>
<tr>
<th>사과 품종별 성목면적</th>
<th>후지</th>
<th>쓰가루</th>
<th>홍로</th>
<th>홍월</th>
<th>기타</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성목면적 (ha)</td>
<td>2003년</td>
<td>2004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년</td>
<td>12,480</td>
<td>11,679</td>
<td>1,274</td>
<td>1,300</td>
<td>1,575</td>
<td>17,933</td>
</tr>
<tr>
<td>2004년</td>
<td>1,969</td>
<td>1,806</td>
<td>635</td>
<td>610</td>
<td>1,588</td>
<td>16,983</td>
</tr>
<tr>
<td>'04/'03 증감율 (%)</td>
<td>-6.4</td>
<td>-8.3</td>
<td>2.1</td>
<td>-4.0</td>
<td>0.8</td>
<td>-5.3</td>
</tr>
</tbody>
</table>

주: 품종별 성목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체 성목면적).

<table>
<thead>
<tr>
<th>사과 생산량 추정</th>
<th>2003년</th>
<th>2004년</th>
<th>2004/2003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성목면적 (ha)</td>
<td>17,933</td>
<td>16,983</td>
<td>-5.3</td>
</tr>
<tr>
<td>생산량 (천톤)</td>
<td>395</td>
<td>386~386</td>
<td>5.7~8.1</td>
</tr>
</tbody>
</table>

주: 2004년 생산량은 7월 1일 현재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2004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말 조사치.
3.2. 배

○ 2/4분기 배 가격은 상품 15kg당 4월 4만 9,700원, 5월 6만 700원, 6월 7만 3,6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3.1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지난해 태풍피해 및 흉성병의 발생으로 생산량 및 저장량이 적어 반입량이 적었기 때문임.

○ 배 재배면적은 2만 3,100ha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1,010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100ha) 줄어든 1만 7,44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 성목면적을 살펴 보면, 장식량은 6%, 신고는 1% 줄어들고, 원황은 5%, 황금배는 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개화기에 일부 지역에 저온 및 서리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봉지수가 9% 증가하여 착과 및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배 도매가격 차트]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지난해에 비해 채과 및 생육상태가 좋아 단수는 지난해보다 증가 하여 평년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베 생산량은 태풍피해 및 흉성병의 발생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해보다 27~31% 늘어난 40~41만톤 내외가 될 전망임.

<table>
<thead>
<tr>
<th>배 폼종별 성목면적</th>
<th>신고</th>
<th>장십량</th>
<th>완급배</th>
<th>원황</th>
<th>기타</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성목면적 (ha)</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년</td>
<td>13,900</td>
<td>749</td>
<td>368</td>
<td>862</td>
<td>1,642</td>
<td>17,541</td>
</tr>
<tr>
<td>2004년</td>
<td>13,787</td>
<td>705</td>
<td>373</td>
<td>902</td>
<td>1,674</td>
<td>17,441</td>
</tr>
<tr>
<td>'04/'03 증감률(%)</td>
<td>-0.8%</td>
<td>-5.8%</td>
<td>1.3%</td>
<td>4.6%</td>
<td>0.7%</td>
<td>-0.6%</td>
</tr>
</tbody>
</table>

주: 폼종별 성목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조사·추정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체 성목면적).

| 배 생산량 추정 | | | | | | |
|----------------|-----------------|-----------------|-----------------|-----------------|-----------------|
|                | 2003년(톤) | 2004년(톤) | 2004/2003 증감률(%) |
| 성목면적(ha)   | 17,541 | 17,441 | -0.6% |
| 생산량(천톤)  | 317   | 403~414 | 27.3~30.8 |

주: 2004년은 7월 1일 현재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2004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말 조사치.

3.3. 포도

○ 5월 캠벨로리 2kg당 도메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낮았지만 6월에는 12% 높음. 5월 텔라웨어 2kg당 도메가격은 17%, 6월에는 4% 높은 수준임. 7월 상순 캠벨로리 가격은 1만 3천원, 텔라웨어는 1만 1천원 수준임.

○ 캠벨로리 품질간 가격 차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텔라웨어는 상품내비 하품 가격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34%로 품질간 가격 차이가 약간 커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텔라웨어 주산
지의 3월초 폭설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품질 차이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상반기 포도 수입량은 8,574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 적고, 평년보다 33% 많은 수준임.

○ 포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7%(1,850ha) 감소한 2만 2,960ha, 성목면적은 7%(1,410ha) 감소한 1만 9,800ha 수준임.

○ 일부 지역 및 농가에 따라 작년 짜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저장양분이 부족하고 금년 발아기에 저온 피해가 있었으나 포도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단위당 수확량은 짜은 강우로 열과 화진 및 각종 병해충이 심했던 지난해(1,775kg/10a)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포도 도매가격(상품)

![포도 도매가격(상품) 막대그래프]

주: 평년은 ’98~’03년 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5~6월 중순은 멜라딘이, 6월 중순~10월은 펄프, 11~12월은 MBA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7% 감소하고 단수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감소한 37만톤 수준이 될 전망. 품종별 생산량은 캐بل러리가 3%, 거봉이 2%, 세단이 20% 감소할 전망. MBA의 생산량은 10% 증가할 전망.

○ 노지재배 면적의 감소로 8월 출하하면은 지난해보다 4%, 9월 이후에는 10% 감소할 전망. 단수는 각각 4%씩 증가하여, 8월 출하량은 지난해 수준이며 9월 출하량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

<table>
<thead>
<tr>
<th>포도 생산량 전망</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r>
<td>------------------</td>
</tr>
<tr>
<td>성목면적 (ha)</td>
</tr>
<tr>
<td></td>
</tr>
<tr>
<td>증감률(%)</td>
</tr>
<tr>
<td>성목단수 (kg/10a)</td>
</tr>
<tr>
<td></td>
</tr>
<tr>
<td>증감률(%)</td>
</tr>
<tr>
<td>생산량 (천톤)</td>
</tr>
<tr>
<td></td>
</tr>
<tr>
<td>증감률(%)</td>
</tr>
</tbody>
</table>

주: '04년 7월 1일 기준 농업통계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04년 성목면적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3.4. 복숭아

○ 6월 암영 도배가격은 지난해보다 15%, 원봉은 71% 높은 수준임. 7월 상순 사자와 창풍은 지난해보다 25% 낮았고, 선프레는 17% 낮은 수준임. 7월 상순 복숭아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것은 출하량 증가 및 수확기 가중으로 조생종 복숭아의 소과 생산량이 많았고, 선프레는 열과로 인해 상품성이 풀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복숭아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350ha) 감소한 1만 5,530ha, 성
목면적은 3%(290ha) 늘어난 9,910ha 수준임.

○ 복숭아 생육상황은 잔은 경우로 인해 병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경북지역의 천도재통에서 열과 세균성 구명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당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3%, 단수가 7% 증가하여 생산량은 10% 증가한 21만톤 수준이 될 전망. 속기별 생산량은 조생종이 지난해보다 9%, 중생종은 1%, 만생종은 18% 증가할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조생종 면적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3% 증가하고 단수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8% 증가한 것으로 보임. 8월에는 출하면적이 1% 증가하고 단수가 7% 증가하여 출하량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값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조종생종 북숭아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당도는 난은 강우와 일조량이 부족하였던 지난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북숭아 생산량 전망

<table>
<thead>
<tr>
<th></th>
<th>성목면적(㏊)</th>
<th>단수(kg/10㏊)</th>
<th>생산량(천톤)</th>
</tr>
</thead>
<tbody>
<tr>
<td>'03</td>
<td>9,622</td>
<td>1,960</td>
<td>189</td>
</tr>
<tr>
<td>'04</td>
<td>9,909</td>
<td>2,099</td>
<td>208</td>
</tr>
<tr>
<td>'04/'03 증감율(min)</td>
<td>3.0</td>
<td>6.6</td>
<td>9.8</td>
</tr>
</tbody>
</table>

주: '04년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04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월 조사치임.

북숭아 지난해대비 월별 예상출하량 증감률

<table>
<thead>
<tr>
<th></th>
<th>7월</th>
<th>8월</th>
<th>9월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면적</td>
<td>26</td>
<td>0.9</td>
<td>9.9</td>
</tr>
<tr>
<td>단수</td>
<td>4.9</td>
<td>7.2</td>
<td>8.6</td>
</tr>
<tr>
<td>출하량</td>
<td>7.7</td>
<td>8.1</td>
<td>19.4</td>
</tr>
</tbody>
</tabl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1일~28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5. 감골

4~5월 월동온주 상품 5kg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67~87% 높은 1만 9천원~2만원 수준이었음. 4~5월 한라봉 상품 3kg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18%~30% 낮은 2만원~2만 1천원, 6월에는 1만 7천원 수준이었음. 5~6월 하우스온주 상품 5kg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42%~58% 높은 2만 6천원~2만 8천원 수준이었음.

2/4분기 월동온주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았던 것은 출하량이 감소했고, 생육기간동안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았기 때문임. 한라봉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생산량 증
가로 출하량이 증가하였고 품질의 편차가 커 가격이 하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인. 하우스온주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조기가 은면적의 감소로 출하량이 적었고, 당도, 산도, 외관 등 품질이 좋았기 때문인.

○ 4월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4만 3,148톤이었으나, 4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톨레어와 프레스노 카운티에서 생산된 오렌지의 수입급지 조치로 5~6월에는 지난해보다 44% 감소한 1만 5,595톤이었음. 수입단가는 지난해보다 10% 높은 0.92 US$(kg당)이었다.

○ 노지온주의 꽃수는 감귤수세가 좋은 데다, 지난 겨울과 봄철의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지난해보다 60%, 평년보다 36%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과수원별, 나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만개기는 도 평균 5월 11일로 지난해보다 3일, 평년보다 4일 빨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귀포시가 5월 8일로 가장 빨르고 북제주군이 5월 15일로 가장 늦었던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는 콘텐츠사업계획을 당초 1,000ha에서 2,500ha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콘텐츠 추진 중임. 따라서 노지감귤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1만 9,8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2간별 사업은 1,000ha를 계획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작수 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올해 휴식년은 175ha가 시행되었음.

○ 올해 노지온주의 10a당 착과 수는 해거리를 풍년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농가별, 나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7월 상순 현재 감귤의 2차 생리낙과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과량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추가 재원(1,500ha)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노지온주 재배면적은 
12% 감소하지만, 작과수증가로 인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61~6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감귤 도매가격(상품)

주: 4월 1일~10일까지는 월동 및 하우스온주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 임별 가격은 전주 2 
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 평균가격은 '97년 5월~'03년 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table>
<thead>
<tr>
<th></th>
<th>재배면적(ha)</th>
<th>생산량(천톤)</th>
</tr>
</thead>
<tbody>
<tr>
<td>'03</td>
<td>22,473</td>
<td>567</td>
</tr>
<tr>
<td>'04</td>
<td>19,800</td>
<td>606~627</td>
</tr>
<tr>
<td>'04~'03 증감율(%)</td>
<td>-11.9</td>
<td>15~50</td>
</tr>
</tbody>
</table>

주: '03년 생산량은 제주도 잠정치, '04년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면적은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조사사.

3.6. 단감

○ 단감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5%(1,080ha) 감소한 1만 8,540ha 수 
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560ha) 감소한
1만 5,690ha 수준이고, 유목면적은 15%(520ha) 감소한 2,860ha 수준으로 나타남.

- 단감의 10a당 착과 수는 지난 겨울과 봄철 기상이 양호했으나, 차량의 해거리와 지난해 대풍 피해로 따른 저장양분 감소로 지난해 동기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이 2% 증가했으나, 경북이 지난해 대풍과 일부 지역의 서리 피해 등으로 2% 감소하고, 차량 재배면적이 많은 전남은 해거리로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7월 상순 현재 단감의 생리나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과량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단감의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 감소하고 10a당 착과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 적지만, 생산량은 대풍으로 단수가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보다 9~15% 증가한 18~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단감 품종별 성목면적

<table>
<thead>
<tr>
<th></th>
<th>부유</th>
<th>차량</th>
<th>시존</th>
<th>상시</th>
<th>기타</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03</td>
<td>13,258</td>
<td>1,653</td>
<td>832</td>
<td>100</td>
<td>404</td>
<td>16,247</td>
</tr>
<tr>
<td>'04</td>
<td>12,762</td>
<td>1,601</td>
<td>819</td>
<td>101</td>
<td>404</td>
<td>15,687</td>
</tr>
<tr>
<td>'04/'03 증감율(%)</td>
<td>-3.7</td>
<td>-3.1</td>
<td>-1.6</td>
<td>0.8</td>
<td>0.1</td>
<td>-3.4</td>
</tr>
</tbody>
</table>

주: '04년 전재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이고, 품종별로는 농업관측정보센터 6월 25일~28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 추정치임.

### 단감 생산량 전망

<table>
<thead>
<tr>
<th></th>
<th>성목면적(ha)</th>
<th>생산량(톤)</th>
</tr>
</thead>
<tbody>
<tr>
<td>'03</td>
<td>16,247</td>
<td>163</td>
</tr>
<tr>
<td>'04</td>
<td>15,687</td>
<td>177~187</td>
</tr>
<tr>
<td>'04/'03 증감율(%)</td>
<td>-3.4</td>
<td>8.6~14.7</td>
</tr>
</tbody>
</table>

주: '04년 생산량은 7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04년 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치.
4. 과채류 9)

4.1. 일반토마토

○ 2/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4월 2만 4,800원, 5월 1만 7,200원, 6월 1만 2,000원으로 4월과 6월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6%, 12% 높았으며 5월에는 지난해와 비슷하였음. 공급량이 지난해 평년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토마토 가격이 높았던 것은, 토마토 품질이 좋고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일반토마토 7~8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53~59%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이는 토마토 가격이 좋아 경북 안동, 칠곡, 봉화 등지에서 수박, 오이, 고추, 염채류에서 일반토마토로 품목이 전환된 면적이 많고, 춘천 등 강원지역과 전남,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일반토마토 7~8월 단수는 평년에 비해 단수가 적었던 지난해보다도 3% 적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강원 춘천, 홍천 등지에서 5~6월 일교차가 커서(춘천 기준 11℃) 저온장애를 입었고, 경북 봉화, 안동 등지에서는 6월의 고온으로 끌마름병(청고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7~8월 토마토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53% 정도 많고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등 대체재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8월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10kg 상자당 7월 2만 900원, 8월 2만 2,400원)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현 연구위원(yslee@krie.re.kr), 정학균(haked247@krie.re.kr), 김진태(wtkim@krie.re.kr), 최익창 (cic@krie.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일반토마토 7, 8월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34%, 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이는 토마토 가격이 좋아 강원 춘천, 영월, 경기 이천, 평택,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 화순, 경북 포항, 충남 예산, 논산, 부여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상품)](image)

<table>
<thead>
<tr>
<th>년도</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년</td>
<td>25,870</td>
<td>31,729</td>
<td>31,852</td>
<td>24,827</td>
<td>17,154</td>
<td>12,010</td>
<td>11,320</td>
<td>15,613</td>
<td>17,875</td>
<td>16,751</td>
<td>14,183</td>
<td>8,738</td>
</tr>
<tr>
<td>2003년</td>
<td>12,720</td>
<td>20,023</td>
<td>20,865</td>
<td>18,250</td>
<td>16,944</td>
<td>10,580</td>
<td>20,870</td>
<td>22,404</td>
<td>19,196</td>
<td>28,630</td>
<td>23,000</td>
<td>22,870</td>
</tr>
<tr>
<td>평년</td>
<td>11,320</td>
<td>15,613</td>
<td>17,875</td>
<td>16,751</td>
<td>14,183</td>
<td>8,604</td>
<td>11,864</td>
<td>15,616</td>
<td>18,379</td>
<td>15,973</td>
<td>12,020</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2. 방울토마토

- 2/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당 4월 1만 6,700원, 5월 1만 2,000원, 6월 1만 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38% 높았음. 4~5월 방울토마토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고 평년보다 적었으며 품질이 좋았기 때문임. 6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4% 많았는데 방울토마토 가격이 높았던 것은,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품질이 좋았으며 수박, 사과, 오렌지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적었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7~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5%정도 낮을 것으로 조사됨. 지난해 7~8월 가격이 약간 높아 강원 춘천 지역은 오이, 호박을 방울토마토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많고, 충남 보령은 연장재배를 하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논산, 부여, 전남 보성, 강진, 전북 김제, 경북 구미 등지에서는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7~8월 단수는 지난해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주출하지인 강원 춘천과 충남 공주, 전남 강진, 경북 김천, 충북 청주 등지에서 과거대기에 일조량이 많았기 때문임.

○ 7~8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9% 많고 수박, 참외, 복숭아 등 대체제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8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5kg상자당 7월 1만 3,800원, 8월 1만 5,300원)보다 낮을 전망임.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그래프](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방울토마토 7, 8월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8%, 2%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 충남, 논산, 전북 고창 등지에서 유량비 상승으로 정식시장을 앞당기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등지에서 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4.3 수박

○ 2/4분기의 수박 도배가격은 평균 8kg 개당 4월 9,000원, 5월 9,400원, 6월 1만 100원로 4월에는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18%, 3% 낮았고, 5월에는 지난해보다 9% 낮았으나 평년보다는 11% 높았으며, 6월에는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30%, 52% 높았음. 5월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5월에 비가 자주 내려 경북 안동, 충남 부여지역의 출하가 지연되어 공급량이 평년보다 10% 적었기 때문임. 6월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했음에도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소비자의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수박의 품질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7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진천, 전남 영암지역의 반듯성출하면적과 충남 부여지역의 하우스 2기작 출하면적이 지난해보다 많지만 경북 안동의 일부 노지재배면적이 비가입제대로 전환되어 6월로 출하가 앞당겨졌고, 전북 고창의 일부 노지재배면적이 인삼, 고추, 복분자 등으로 작목이 바뀌었기 때문임.

○ 지난해 8월 수박가격이 좋아 충남 부여, 논산지역의 하우스 2기작 수박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비피해를 입은 경북 용화와 전북고창, 강북지역의 노지수박이 인삼, 고추, 토마토 등의 작목으로 전환되어 8월 수박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망됨.
○ 7, 8월에 출하될 수박 단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7%, 1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급년 6월 주산지 일조시간이 지난해보다 32~64% 많아 생육상태가 좋지만, 6월하순 이후 계속되는 장마로 병해가 발생하여 예상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박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지만 단수가 증가하여 7월 수박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 정도 많은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는 평년보다는 21% 적은 수준임. 8월 수박 출하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9%, 평년보다는 4% 정도 많은 것으로 전망됨.

수박 도매가격 (상품)

<table>
<thead>
<tr>
<th></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평년</td>
<td></td>
<td></td>
<td>13,588</td>
<td>14,532</td>
<td>15,587</td>
<td>9,343</td>
<td>8,466</td>
<td>6,690</td>
<td>6,145</td>
<td>4,745</td>
<td>8,643</td>
<td>6,000</td>
</tr>
<tr>
<td>2004년</td>
<td>12,413</td>
<td>14,983</td>
<td>17,361</td>
<td>9,033</td>
<td>9,425</td>
<td>10,14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년</td>
<td>11,080</td>
<td>13,114</td>
<td>17,433</td>
<td>11,040</td>
<td>10,343</td>
<td>7,772</td>
<td>8,748</td>
<td>10,396</td>
<td>9,150</td>
<td>6,704</td>
<td>7,054</td>
<td>9,880</td>
</tr>
<tr>
<td>8월</td>
<td>13,990</td>
<td>14,592</td>
<td>15,857</td>
<td>9,033</td>
<td>8,466</td>
<td>6,690</td>
<td>8,146</td>
<td>4,745</td>
<td>8,643</td>
<td>6,000</td>
<td>6,921</td>
<td>11,027</td>
</tr>
</tbody>
</table>

주: 평년가격은 1999~2003년의 일평균가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4~8월 가격은 8kg개당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많았으나, 수박의 품질이 좋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월 수박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8kg 개당 8,700원)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8월 수
박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8kg 개당 1만 400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7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충남 부여, 전북 고창 지역에서 멜론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면적이 많아 지난해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4.4. 참외

○ 2/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상자 상품 기준으로 4월 5만 2,200원, 5월 4만 400원, 6월 3만 3,9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월에는 13% 낮았고, 5~6월에는 지난해보다 각각 2%, 22% 높았음. 4월 참외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하였으나 참외의 품질이 좋아 가격하락폭은 크지 않았음. 6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주산지인 성주지역의 화방교체가 지연되었고, 산지출하량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으로의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임.

○ 7월 참외 출하면적은 올해 참외 가격이 좋아 연장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8월은 올해 연장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많고 지난해 7월 성주지역에 계속된 비로 고사주가 발생한 포장이 많아 출하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9% 증가할 전망임.

○ 7월에 출하된 참외의 단수는 중순까지는 주출하지만 성주지역이 지난해보다 4% 정도 증가하였지만 하순에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7월에 성주지역이 습해를 입어 고사주포장이 많이 발생하였고 작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8월 참외의 단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월 참여 토채가격은 출하량과 단수가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12% 정도 많았으며, 평년보다는 28% 정도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46% 정도 많았으며,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됨.

7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과일인 포도, 복숭아 등의 공급량도 증가하여 7월 참여 토채가격은 지난해(상품 15kg 상자당 3만 200원)보다 낮겠으며 평년(1만 6,900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8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지만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8월 참여 토채가격은 지난해(상품 15kg 상자당 3만 4,800원)보다는 낮고 평년(1만 8,7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참여 외연장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율해 참여가격이 평년보다 높아 주산지인 경북 성주, 김천지역에서 작물관리가 양호하였고 비농사대신 연장재배를 택한 농가가 증가하였음.

참여 토채가격 (상품)
4.5. 오이(백다기)

○ 백다기 오이의 2/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당 4월에 2만 4,900원으로 작년보다 12% 낮았으나 평년보다 8% 높았고, 5월에는 1만 9,900원으로 작년보다 4% 낮았으나 평년보다 6% 높았음. 6월에는 1만 9,500원으로 작년보다 8% 높았고, 평년보다 13% 높았음.

○ 4월 백다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일사량이 많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8% 증가하였기 때문임. 5월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5월 상·중순에 충남 천안, 경기 평택 주산지에서 야간 기온이 낮고 비가 자주 내려 공급량이 평년보다 11% 감소하였기 때문임. 6월 백다기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하였지만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6월 중순의 집중호우로 취청 공급량이 감소하여 취청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백다기로 소비가 대체되었기 때문임.

○ 7~8월 백다기 출하면적은 7월 중순까지 지난해보다 3% 정도 적고, 7월 하순 이후에는 2~4%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백다기 주산지인 강원 춘천, 화천에서 지난해와 올해 일반도마토 가격이 좋아 도마토 작물은 전환한 농가가 많았고, 경기 평택, 충남 아산 지역 일부 농가가 노동력이 적게 드는 가치, 배추로 작물이 전환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최근 백다기 가격이 좋아 강원 화천, 경기 연천, 충북 제천 지역의 노지면적은 늘어났음.

○ 7월 중순 이후에 출하된 백다기 단수는 지난해보다 3~5%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주산지인 강원 화천, 충남 서산의 6월 일사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임.

○ 7월에 백다기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하나 대체재인 배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월 백다기 가격은 지난해(상
품 100개당 2만 2,300원)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됨. 8월 백따끼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7% 많고 평년보다 10%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지난해(상품 100개당 2만 8,500원)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됨.

오이(백따끼) 도매가격 (상품)

<table>
<thead>
<tr>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년</td>
<td>36,987</td>
<td>36,983</td>
<td>36,463</td>
<td>26,962</td>
<td>19,039</td>
<td>19,519</td>
<td>19,519</td>
<td>18,989</td>
<td>22,269</td>
<td>28,519</td>
<td>33,759</td>
</tr>
<tr>
<td>2003년</td>
<td>40,080</td>
<td>39,682</td>
<td>37,231</td>
<td>28,308</td>
<td>20,833</td>
<td>18,020</td>
<td>22,259</td>
<td>28,519</td>
<td>33,413</td>
<td>25,278</td>
<td>32,140</td>
</tr>
<tr>
<td>평년</td>
<td>38,984</td>
<td>38,785</td>
<td>31,163</td>
<td>23,045</td>
<td>18,781</td>
<td>17,300</td>
<td>22,114</td>
<td>28,000</td>
<td>33,549</td>
<td>22,723</td>
<td>28,196</td>
</tr>
</tbody>
</tabl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6. 오이(취 정)

- 2/4분기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20kg 상품기준으로 4월에 2만 3,200원으로 작년보다 14% 높았으나 평년보다 11% 높았고, 5월에 2만 5,800원으로 작년보다 8% 높았고, 평년보다 37% 높았음. 6월에는 2만 5,300원으로 작년보다 27% 높았고 평년보다 38% 높았음.

- 4월 취청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하였지만,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
던 것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취청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5월 취청 가격은 전년 주산지에서 호리고 비 오는 날의 많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하였기 때문임. 6월 취청 가격이 높았던 것은 취청 주산지인 전남 순천, 구례에서 6월 중 하순 태풍 ‘디엔무’ 영향으로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1% 감소(전국기준 -3%)하였으며, 기온이 높아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또 전남 주산지 끝물이 죽어있면서 상⋅중품간 가격변차(41%)가 전월(29%)에 비해 확대되었음.

- 7월 취청 출하가격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하고, 8월에는 9~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봄철 취청 가격이 평년보다 좋아 전남 순천, 구례에서 재정식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임. 강원 황령, 충남 천안에서 배추, 애호박을 제때다른 농가가 취청이므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오이(취청) 도매가격 (상품)

![ график 오이(취청) 도매가격 (상품) ]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중순 이후에 수확될 취청 예상단수는 지난해보다 3~5%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주산지인 강원 화천, 횡성의 6월 일사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임. 또, 지난해 7~8월에는 비 오는 날이 많아 노규병, 흙성병 등이 많았지만 올해는 기상이 지난해보다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7월 취청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고가지자재로 이용되는 취청오이 수요가 감소하여 7월 가격은 작년수준(2만 7,2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8월 가격은 공급량이 지난해 평균보다 증가하여 지난해(상품 20kg 상자당 2만 8,400원)와 평균(상품 20kg 상자당 2만 8,800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4.7. 호박(에호박)

○ 에호박 2/4분기 도매가격은 20개 상품기준으로 4월에 1만 3,500원으로 작년보다 16% 낮았으나, 평년보다 5% 높았고, 5월에 1만 400원으로 작년보다 9% 높았고, 평년보다 27% 높았음. 6월에는 9,200원으로 작년보다 14% 높았고, 평년보다 30% 높았음.

○ 에호박 4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았지만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대형할인업체가 할인행사를 하여 에호박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5월 에호박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경기 평택 주산지에서 아간 기온이 낮아 공급량이 평년보다 15% 적었기 때문임. 6월 에호박 가격이 높았던 것은 에호박 주산지인 충북 청원, 충남 예산에서 6월 중·하순 태풍 ‘디엔무’ 영향(정주기준 강수량 작년대비 127% 증가)으로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하였기 때문임.

○ 7월 에호박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4% 많고 8월에는 7~8%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강원 화천, 홍천, 양구 노지재배 지역에서 콩, 배추, 감자 등을 재배하던 농가가 지난해 올기기에 가격이 좋았던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일. 현련 강원 춘천에서는 애호박을 재배하던 일부 농가가 지난해에 올해 가격이 좋은 일반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하였고, 경기 평택에서는 노령화와 연작과해로 재배작목을 애호박에서 가지로 전환한 농가가 있음.

○ 7월 상순에 출하된 애호박 예상단수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적고 7월 중순 이후에는 2~8%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7월 상순 단수는 강원 춘천, 경기 평택의 연작과 해로 지난해보다 낮겠으며, 7월 중순 이후에는 강원 화천, 홍천 애호박 생육상태가 좋아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상품)](image)

<table>
<thead>
<tr>
<th>연도</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4년</td>
<td>25,717</td>
<td>23,042</td>
<td>22,444</td>
<td>13,481</td>
<td>10,362</td>
<td>9,238</td>
<td>13,481</td>
<td>10,362</td>
<td>9,238</td>
<td>13,481</td>
<td>10,362</td>
<td>9,238</td>
</tr>
<tr>
<td>2005년</td>
<td>25,040</td>
<td>22,591</td>
<td>25,865</td>
<td>15,981</td>
<td>9,509</td>
<td>8,140</td>
<td>12,337</td>
<td>29,978</td>
<td>12,537</td>
<td>16,860</td>
<td>21,481</td>
<td></td>
</tr>
<tr>
<td>평균</td>
<td>23,888</td>
<td>22,591</td>
<td>25,865</td>
<td>15,981</td>
<td>9,509</td>
<td>8,140</td>
<td>12,337</td>
<td>29,978</td>
<td>12,537</td>
<td>16,860</td>
<td>21,481</td>
<td></td>
</tr>
</tbody>
</table>

주: 평균가격은 1999~2003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값.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8월에 애호박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애호박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20개당 7월 8,100원, 8월 1만 2,300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5. 축산10)

5.1. 한육우

○ 2004년 6월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62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10만 6천두(7.0%), 전년 동기에 비해 20만 4천두(14.3%) 증가하였음.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차트]

주: 1) 2003년 3월부터는 신표본으로 변경되어, 과거 시계열 자료와 일부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10) 이 자료는 농업관련센터 신승열 연구위원(syshin@krei.re.kr), 송우진(gnos@krei.re.kr), 김현중(kim1025@krei.re.kr), 이현우(ihw090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 2004년 6월 한육우 2세 이상 암소는 60만두로 3개월 전보다 3만 1천두(5.4%), 전년 동기에 비해 7만 9천두(15.2%) 증가하였음.

○ 2004년 6월 1세미만 출아지 두수는 58만 6천두로 3개월 전보다 5만두(9.3%), 전년 동기에 비해 5만 7천두(10.8%) 증가하였음.

○ 사육가구수는 2004년 6월에 18만 9천호로 3개월 전과 같고, 전년 동기보다는 1천호(0.5%) 감소하였음.

○ 미국 광우병 발생 이후 소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함. 단기간에 산지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농가 중심으로 한육우 출하시장을 지연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로 인해 2004년 1~5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23.1% 감소하였음.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table>
<thead>
<tr>
<th>농림부 제공</th>
<th>2002년</th>
<th>2003년</th>
</tr>
</thead>
<tbody>
<tr>
<td>123456789</td>
<td>101112</td>
<td>101112</td>
</tr>
<tr>
<td>2002년</td>
<td>555035424236404666404347</td>
<td></td>
</tr>
<tr>
<td>2003년</td>
<td>762636393734374548363645</td>
<td></td>
</tr>
<tr>
<td>2004년</td>
<td>4417273739</td>
<td></td>
</tr>
</tbody>
</table>
○ 한우 산지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사료가격이 상승하여 출하시연에 의한 경영압박이 심해지면서 5월 들어 한우 도축수수는 증가하고 있음. 5월 도축수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7.1% 늘어난 3만 9천두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급지로 인하여 2004년 1~6월 쇠고기 수입량은 7만 6천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48.5% 감소함.

○ 1~6월까지 국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호주가 59.3%, 뉴질랜드 40.4%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부터 수입이 시작된 멕시코는 0.3%를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5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는 품목에 소의 살코기가 포함됨. 이로 인해 항우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table>
<thead>
<tr>
<th></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r>
</thead>
<tbody>
<tr>
<td>2002</td>
<td>29</td>
<td>20</td>
<td>25</td>
<td>24</td>
<td>25</td>
<td>21</td>
<td>24</td>
<td>28</td>
<td>25</td>
<td>26</td>
<td>20</td>
<td>26</td>
</tr>
<tr>
<td>2003</td>
<td>29</td>
<td>20</td>
<td>27</td>
<td>25</td>
<td>23</td>
<td>24</td>
<td>31</td>
<td>22</td>
<td>25</td>
<td>21</td>
<td>19</td>
<td></td>
</tr>
<tr>
<td>2004</td>
<td>8</td>
<td>7</td>
<td>12</td>
<td>13</td>
<td>17</td>
<td>1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미국 광우병과 경기 침체로 연초부터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함. 6월 이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기피 현상이 악화되면서 한우 산지가격은 상승하고 있음.

-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5월 292만원까지 하락하였고 암소 산지가격은 6월 394만원까지 하락함. 이후 산지가격이 상승하여 7월(7월 9일까지 평균) 수소 가격은 327만원, 암소 가격은 407만원 수준임.

- 송아지가격도 6월 이후 상승하고 있음. 7월 수송아지 가격은 220만원, 암송아지 가격은 313만원으로 상승함.

- 쇠고기 도매가격도 5월이 가장 낮았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7월 한우 지육(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만 2,300원임.

한우우 산지가격 변동

![한우우 산지가격 변동 차트](chart.png)

<table>
<thead>
<tr>
<th>산지가격(천원/두)</th>
<th>평균도매가격(원/kg)</th>
</tr>
</thead>
<tbody>
<tr>
<td>6,000</td>
<td>16,000</td>
</tr>
<tr>
<td>5,000</td>
<td></td>
</tr>
<tr>
<td>4,000</td>
<td></td>
</tr>
<tr>
<td>3,000</td>
<td></td>
</tr>
<tr>
<td>2,000</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03.7</th>
<th>08</th>
<th>09</th>
<th>10</th>
<th>11</th>
<th>12</th>
<th>04.1</th>
<th>02</th>
<th>03</th>
<th>04</th>
<th>05</th>
<th>06</th>
<th>07</th>
</tr>
</thead>
<tbody>
<tr>
<td>한우수소</td>
<td>3,934</td>
<td>4,120</td>
<td>4,129</td>
<td>4,141</td>
<td>4,122</td>
<td>4,039</td>
<td>3,944</td>
<td>3,645</td>
<td>3,456</td>
<td>3,180</td>
<td>2,919</td>
<td>2,921</td>
</tr>
<tr>
<td>한우암소</td>
<td>4,886</td>
<td>4,900</td>
<td>4,911</td>
<td>4,957</td>
<td>5,007</td>
<td>5,077</td>
<td>5,105</td>
<td>4,871</td>
<td>4,696</td>
<td>4,440</td>
<td>4,087</td>
<td>3,943</td>
</tr>
<tr>
<td>수송아지</td>
<td>2,607</td>
<td>2,616</td>
<td>2,630</td>
<td>2,631</td>
<td>2,660</td>
<td>2,658</td>
<td>2,729</td>
<td>2,578</td>
<td>2,431</td>
<td>2,251</td>
<td>1,996</td>
<td>2,059</td>
</tr>
<tr>
<td>한우지육</td>
<td>14,75</td>
<td>15,00</td>
<td>14,87</td>
<td>14,62</td>
<td>14,38</td>
<td>14,73</td>
<td>13,77</td>
<td>13,56</td>
<td>12,84</td>
<td>11,83</td>
<td>10,60</td>
<td>11,32</td>
</tr>
<tr>
<td>쇠고기 도매가격</td>
<td>12,3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2. 젖소

○ 2004년 6월 젖소 사육두수는 50만 9천두로 전년동기보다 3만 2천두(△5.9%) 감소하였고, 가림암소 두수는 35만 2천두로 전년동기보다 2만두(△5.4%) 감소하였음.

○ 1세미만 두수는 9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1만두(△9.3%) 감소하였고, 1~2세 두수는 11만 9천두로 전년동기보다 5천두(△4.0%) 감소하였음. 2세이상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7천두(△5.5%) 감소하면서, 경산우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7천두(△5.6%), 착육우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2천두(△4.7%) 감소하였음.

○ 6월 젖소 사육농가수는 1만 100호로 전년동기보다 1,200호(△10.6%)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16.4%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는 4.3% 감소하였음.

![젖소 사육두수 변동](attachment:graph.png)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6월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4.7%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0.9% 감소하였음. 사육농가수가 감소하여 흡당사육두수는 50.2두로 전년동기보다 2.5두(5.2%) 증가하였음.

○ 젖소 산지가격 변동

- 초유PackageName): 낙농폐업, 원유감사정책, 원유생산취제, 향후 축산업등록제 시행, 분뇨처리 문제 등으로 사육의향이 낮아져 초유PackageName) 산지가격은 2004년 2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함. 6월 가격은 33만 2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2.9% 하락하였음.

- 초입망상우: 2003년 7월 이후 상승하던 초입망상우 산지가격이 2004년 2월 이후 하락세 돌아왔음. 6월 가격은 201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7% 하락하였음.

![젖소 산지가격 변동](image_url)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접소수소: 2003년 하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수소가격이 지난해 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에 접어들면서 하락하다가 4월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음. 6월 접소수소 가격은 155만 9천원 으로 전년동월보다 7.2% 상승하였음.

5.3. 돼 지

○ 2004년 6월 사육중수와 모돈수는 지난 겨울 발생한 유형성질사병 (PED)과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피해가 6월까지 영향을 미쳐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음. 사육중수는 901만 7천두로 전년동 기보다 3만 4천두(△0.4%) 감소하였고, 모돈수는 96만 7천두로 전 년동기보다 1만 8천두(△1.8%) 감소하였음.

○ 6월 돼지 사육농가수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 분뇨처리 문제 등으 로 사육의향이 낮아지면서 3개월 전보다 360호(△2.6%), 전년동기 보다 1,810호(△11.8%) 감소한 1만 3,580호였음.

**돼지 사육중수 변동**

![그래프](#)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온도 1,000명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전년동기보다 1,730호(△13.9%) 감소하였고 1,000명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수는 전년동기보다 80호(△2.7%) 감소하였음.

규모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1,000명 미만 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5.4% 감소하였고, 1,000명 이상 전업농가의 사육두수는 1.5% 증가하여, 1,000명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 73.6%를 차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663.9두로 전년동기보다 75.7두(12.9%) 증가하였음.

- 돼지고기 수입

2004년 1~5월 국내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1~5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59.1% 증가한 43,474톤(검역기준)이었고, 이는 2003년 수입량(60,790톤)의 71.5% 수준임. 부위별 수입량을 보면, 삼겹살의 수입비중은 감소한 반면
목실과 갈비의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임(삼겹살 수입비중 : 3월 57.1%, 4월 46.9%, 5월 42.0%).

대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대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그림]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4. 답

○ 3월 이후 계란 산지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도태의향이 낮아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3월보다 증가함.

-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806만수로 3개월 전보다 3.4%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는 2.1% 감소하였음. 6월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2,043호로 3개월 전보다 6.9% 증가한 반면 2003년 6월보다 16.4% 감소하였음.

○ 비수기인 6월 육계 가격이 다소 낮았으나 여름철 복경기에 대비한 입식증가로 6월 육계 사육수수가 3월보다 크게 증가함.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차트 이미지]

<table>
<thead>
<tr>
<th></th>
<th>01.3</th>
<th>02.3</th>
<th>03.3</th>
<th>04.3</th>
<th>05.3</th>
<th>06.3</th>
</tr>
</thead>
<tbody>
<tr>
<td>산란계</td>
<td>49.3</td>
<td>50.7</td>
<td>49.3</td>
<td>49.8</td>
<td>50.5</td>
<td>50.3</td>
</tr>
<tr>
<td>육계</td>
<td>43.4</td>
<td>46.7</td>
<td>48.9</td>
<td>45.7</td>
<td>52.4</td>
<td>72.2</td>
</tr>
</tbody>
</tabl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6월 육계 사육수수는 6,853만수로 3개월 전보다 87.8%, 전년동기보다 2.7% 증가함. 6월 육계 사육 가구수는 2,237호로 3개월 전보다 72.9%, 2003년 6월보다 0.5% 증가하였음.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1/4분기에 산란용 마리수 감소, 폭설피해로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21.1% 상승한 847원이었음. 2/4분기에는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과 비슷하나 생산력 저하로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부활절 특수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32.0% 상승한 988원이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1/4분기 육계 평균 가격은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홍보강화로 2월 중순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전년동기보다 16.2% 상승한 1,132원이었음. 2/4분기 육계 평균 가격은 닭고기 공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68.9% 상승한 1,442원이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산지가격(원/10개, 원/생체kg)

<table>
<thead>
<tr>
<th>03.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1</th>
<th>12</th>
<th>04.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r>
</thead>
<tbody>
<tr>
<td>홍계</td>
<td>999</td>
<td>742</td>
<td>1,177</td>
<td>938</td>
<td>930</td>
<td>693</td>
<td>753</td>
<td>1,248</td>
<td>1,042</td>
<td>938</td>
<td>878</td>
<td>659</td>
<td>1,029</td>
<td>1,704</td>
<td>1,608</td>
<td>1,432</td>
</tr>
<tr>
<td>계란</td>
<td>694</td>
<td>652</td>
<td>752</td>
<td>757</td>
<td>754</td>
<td>733</td>
<td>734</td>
<td>818</td>
<td>842</td>
<td>813</td>
<td>807</td>
<td>784</td>
<td>989</td>
<td>948</td>
<td>983</td>
<td>1,032</td>
</tr>
</tbody>
</table>

주: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1/4분기에 임식된 산란용 종계병아리수는 13만 3천수로 전년동기보다 36.4% 증가하였음. 2/4분기에는 5만 6천수로 전년동기보다 44.2% 감소하였음.

- 1/4분기에 임식된 육용 종계병아리수는 128만 4천수로 전년동기보다 32.4% 증가하였음. 2/4분기에는 80만 6천수로 전년동기보다 18.9%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통관기준)

- 1/4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9천톤으로 전년동기보다 60.5% 감소하였음. 4월~5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1만 4천톤)보다 크게 감소한 3천톤이었음.
VI. 특별주제\(^1\)

1. 전환기에선 중국의 옥수수시장

2. 중국의 밀 산업 현황과 수입전망

---

\(^1\) 두 편의 특별주제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중국의 곡물 수급 불안정이 세계적\n인 이슈가 되고 있어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가 발간한 최근 중국 곡물\n관련 보고서를 번역하여 게재한 것임.
전환기에선 중국의 옥수수시장

개 요

○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옥수수시장이 10여년의 옥수수 주기에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에 들어와 옥수수 수출을 줄이고 2004/05 유동년도에 옥수수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의 옥수수 가격을 상승시킨다. 옥수수 가격 상승과 해상 운송료 상승으로 미국 옥수수가 중국시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중국은 옥수수 수요 증가와 생산능력의 제한으로 결국 옥수수 수요나입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수출 감소로 미국은 옥수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1. 서론

○ 2004년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옥수수시장이 10여년의 옥수수 주기에서 전환점에 도달함으로써 세계시장에 큰 파급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과 1995년에 세계의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었으나, 그 후 수입이 줄어들어 결국 주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2001/02 유동년도에 8.6백만톤에서 2002/03 유동년도에 15.2백만톤까지 급증하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입국 시장에 미국의 수출을 압박하였다. 그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이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에서 발간한 ‘Is China’s Corn Market at a Turning Point, FDS–04C–01, May, 2004’보고서를 번역한 것임.
러나 2004년에 들어와 중국의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중국내 옥수수 시장이 원활치 못하게 되자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급격히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의 옥수수 수출 감소는 미국의 옥수수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으며 세계시장 가격이 강세를 띤게 되었다.

○ 중국의 국내 옥수수시장은 2003년 후반에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수년동안 옥수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2003년 10월과 12월에 급속히 상승하였다(그림 1). 광동성의 옥수수 가격은 거의 2년동안 토당 1,150원(139달러)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 10월에 1,450원(175달러)로 상승하였으며 12월에는 1,600원(193달러)까지 급등하였다. 약간 멀하긴 하지만 대련향의 옥수수 가격도 유사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길림성과 산둥성과 같은 생산지역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은 하였지만 그다지 급등하는 사례는 없었다.

○ 2003년 후반의 옥수수 가격 급등은 짧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설정적인 요인과 철도운송 장애와 관련이 많다. 즉, 2003년 말경에 옥수수 수출이 급증하여 12월 수출량이 과거 월평균의 3배나 되었고 옥수수의 내수시장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2003년 12월 가격을 감각스럽게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가격 상승 압력은 옥수수 공급 전언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광동성의 옥수수 가격은 2004년 1월에 약 1,370원(165달러)로 안정화되었지만 그 이전 9월 평균가격에 비해 20% 상승하였다. 대련향과 길림성의 옥수수 가격도 시장에 햇물수수가 출자되었음에도 9월 평균가격에 비해 12% 상승한 채로 안정되었다. 그 가격은 2004년 2월, 3월에도 계속 상승하게 되었다.
그림 1. 중국의 3개 지역 옥수수 도매가격, 2003.6월~2004.4월

위안/톤

자료: 중국 국물 및 유지 정보중심, 미발간 자료.

2. 수출보조로 옥수수 과잉 완화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 정부는 옥수수를 국내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수출에 대한 재정보조를 줬다. 중국은 1995~99년 사이에 누적된 옥수수 재고량을 처분하기 위해 1999년에 수출보조를 시작하였다. 누적된 재고량 중 많은 양이 북동부 4개 성인 갈림성, 흑룡강성, 내몽고, 요녕성에 있었다. 중국곡물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북동지역의 곡물비축량은 1995년보다 3.5배나 늘어났으며 그 중의 절반이 옥수수였다.3)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미발간 농촌가구조사결과에 의하면, 갈림성과 흑룡강성의 연도초 곡

3) 국물재고현황은 중국곡물국의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재고량에는 농가보유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재고량은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

- 옥수수는 중국의 북동지역 농업경제에서 주요작물이나 이들 지역의 수요가 과도한 공급량을 흡수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의 곡물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사료곡물 재배 건장, 주정 생산, 전분 등 기타 식품가공 용량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정부에서는 지역의 옥수수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과잉 재고량을 처분하기 위해 타 지역 판매와 해외수출을 위해 옥수수 운송에 보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중국은 국내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옥수수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수출업자들이 상당한 수출보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면 2000/01 유통연도 사이에 북동부지역의 1차 수출항인 대련항에서의 옥수수 가격이 톤당 평균 139달러였으나 수출가격은 FOB 가격으로 103달러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국내사료업체나 다른 사용자들이 중국의 옥수수에 대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용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중국의 옥수수 수출정책 비용 추정, 1998-03년

<table>
<thead>
<tr>
<th></th>
<th>대련항 가격(A)</th>
<th>수출가격(B)</th>
<th>수출보조(토당)</th>
<th>수출량</th>
<th>수출보조 재정비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국내시장)</td>
<td>(f.o.b.가격)</td>
<td>(A-B)</td>
<td></td>
<td></td>
</tr>
<tr>
<td>단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98/99</td>
<td>138</td>
<td>105</td>
<td>33</td>
<td>3.3</td>
<td>110</td>
</tr>
<tr>
<td>1999/00</td>
<td>109</td>
<td>100</td>
<td>9</td>
<td>9.9</td>
<td>90</td>
</tr>
<tr>
<td>2000/01</td>
<td>139</td>
<td>103</td>
<td>36</td>
<td>7.3</td>
<td>260</td>
</tr>
<tr>
<td>2001/02</td>
<td>125</td>
<td>103</td>
<td>22</td>
<td>8.6</td>
<td>190</td>
</tr>
<tr>
<td>2002/03</td>
<td>127</td>
<td>104</td>
<td>23</td>
<td>15.2</td>
<td>350</td>
</tr>
<tr>
<td>2003.10-12.</td>
<td>146</td>
<td>111</td>
<td>35</td>
<td>5.7</td>
<td>200</td>
</tr>
</tbody>
</table>

주 1) 유통연도는 10월~익년 9월  
2) 톤당 보조액은 대련항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f.o.b. ) 차액을 추정  
3) 수출보조재정비용총액은 톤당 보조액 * 연간 수출량임.  
자료: 중국곡물 및 유지작물정보중심; 중국관세통계; 미국 농무성 ERS 추산치.

○ 수출정책은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수출량을 곱하게 되면 옥수수 수출정책의 추정 비용은 유통년도동안 260백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보조를 삭감하는데 동의하였으나, 국내외 가격을 비교해 보면 WTO에 가입한 이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여전히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3. 정부의 수출보조 감축

○ 중국은 곡물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재고가 쌓이기 이전인 1994/95년과 비교할 수준으로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지표는 있다. 사실 10년전 중국 정부에서는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식품가격인플레이 우려가 심하고 곡물생산 감소에 대한 관심이 커 곡물 중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많은 조건들이 2003년에서 2004년초에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중국 정부는 옥수수의 국내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2004년에 옥수수 수출에 대한 보조를 줄였고, 많은 인쇄매체들이 2003년에 옥수수 수출이 가속화된 배경 요소로 수출보조와 비축보조 감축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 중앙정부의 수출정책은 동북부지역의 정책과 어긋나게 되었다. 중앙정부 관리들은 수출계획 추진의 재정부담을 줄여서 충분한 옥수수가 국내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임원들은 또한 수출 보조가 기본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비효율적인 국영유통체계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
하였다. 정책입안자들은 이제 수출보조와 저장보조를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복합국, 성장부, 수출회사들은 옥수수 수출정책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있어 이러한 보조 감축을 반대하고 있다. 옥수수 수출은 북동부지역이 외화수입에 주요 원천이다. 이러한 수출정책이 상당한 모험이기 때문에 수출보조정책을 지속하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수출정책에 양보와 태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옥수수 수출은 계속될 것이지만 수출증가 속도는 감소될 것이다.

○ 2004년 전반기동안 옥수수 수출쿼터량은 1.4백만톤으로 정해졌다. 이 쿼터량은 3월까지 이미 거의 다 채워졌으나 수출업체들은 아직도 옥수수 해외판매를 열망하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가격이 올라 수출 속도를 줄이는 요소가 되는 한편으로 일부 중국의 수출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아시아까지 운송료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옥수수 가격은 상승하였다.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아시아시장에 대한 미국의 옥수수 수출가격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심지어 중국의 수출보조가 없더라도 경쟁적이다. 이러한 조건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옥수수 수출을 회복할 수는 있으나 2003년보다는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4. 중국의 옥수수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

○ 정부 정책과 국내 수급사정이 중국의 옥수수 수출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보이나, 과거 추세를 보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관계 또한 옥수수 판매 시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수출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멕시코만 가격보다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미국의 옥수수 가격을 참조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그림 2). 대량행 국내가격은 수출가격의 월별 진폭에 비해 큰 진폭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옥수수 가격비교: 중국 대량행 국내가격, 수출가격(f.o.b.), 미국 멕시코만 가격(f.o.b.), 월별, 1997-04년

위안/톤

자료: 중국 곡물 및 유지 정보공실(미발간 자료) 및 중국관세통계.

-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미국의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상승하는 기간동안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하락하는 기간동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그림 3). Rozelle는 옥수수 수출계약시점과 실제 수출시점 사이를 시차 조정한 결과 중국의 옥수수 수출가격이 국내가격과 나타나면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중국의 수출은 대량행 국내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림 3.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과 수출가격, 월별, 1998-03년

![그림 3.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과 수출가격, 월별, 1998-03년](image)

자료: 중국 국물 및 유지 정보중심(미발간 자료), 미농무부 ERS., 중국관세 통계.

- 단순회귀분석을 해 보면 중국의 수출량과 수출가격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 대량항 국내가격, 미국의 옥수수 가격(미국의 멕시코만 가격 +북아시아까지 운임료)의 1998-03년 월별자료를 사용하면 OLS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도출된다.

\[
\ln(\text{Exports}_t) = 21.62 - 3.30 \ln(\text{Chinese Dalian Price}_{t-4}) + 2.94 \ln(\text{U.S. Gulf Price}_{t-1}) + \text{month effects.}
\]

- 방정식은 옥수수 수출의 월별 변동의 73%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가격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경제적 논리와 일치한다.
국내가격 상승은 중국의 수출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옥수수 가격이 상승은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두개의 가격 효과에서 시차는 서로 다르다. 중국의 국내 가격은 수출량에 4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가격은 가격 변동 후 단지 한달만에 수출량에 영향을 주어 더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중국 대량수입 국내가격의 시차가 4월보다 긴다는 것은 Rozelle의 발견, 즉 가격은 수출 시점의 국내시장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일치한다. 시차는 물리적으로 옥수수가 수출되기 이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模特에 따르면 대량수입 가격이 1% 상승하면 4개월후에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3.3% 줄어든다. 이려하여 모델은 2003년 10월 대량수입 가격이 15% 상승하여 2004년 2월 수출량이 50% 줄어들 것이며 예측하였다. 2004년 실제 수출량은 445,000톤으로 2003년 2월 수출량 1,770,000톤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단순회귀모델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 감소는 세계 옥수수 가격에 의해 발생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옥수수 가격은 연속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수출량 감소와 이것이 세계 옥수수 공급량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발생하였다. 또한 유인(className: 'Classified') 상승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옥수수 가격을 상승시켰다. 2004년 전반기 4개월동안 경제적인 상황은 중국의 옥수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중국의 경제결정자들이 2월까지 더 소진된 최대 수출허가량을 설정한 이후에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급감되었다.

○이와 다를뿐模特에서 월별 효과는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의 계절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수출량은 12월과 7월에 최고조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옥수수 수확은 연도말에 최고조를 이룬다.
또한 1월, 4월, 5월에 옥수수 수출은 최저 수준에 이른다.

5. 중국의 옥수수 수입가능성

○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여건 변화가 중국의 옥수수 구매자들을 2004년에 수입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광동성에서 미국의 백시코만 CNF 옥수수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2002년초 이후로 거의 없었다 (그림 4). 중국 남부의 옥수수 주소비지역의 가격 상승과 중국시장 내에서 남북간 가격차 확대는 수입으로 인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옥수수 주소비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곡물 제로를 보충하기 위해 고물을 수입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 광동성의 옥수수 가격과 옥수수 수입량, 월별, 2001-03년

주 : 중국 광동성에 미국 옥수수 조달가격은 미국 멕시코만 옥수수 가격에 1% 세금, 13% 부가가치세, 보험료, 항만세 등을 더한 추정가격임.
자료: 중국관세통계; 중국 국물 및 유지 정보중심, 미국 소매협회; 미국농부
ERS 산출치.

○ 중국의 옥수수 수출 감축은 중국의 국내시장에서 옥수수를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들어 통제가 힘들었던 옥수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은 옥수수 국내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수입수요도 줄여드린다. 이러한 과정은 2003년 말에 반전되어 대량의 옥수수 수출이 중국 국내시장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광동성의 옥수수 가격이 평균 1,600원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 북동부지역에서 광동성으로 옥수수 공급을 늘리면서 광동성의 옥수수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할 것이며 수입 옥수수의 경쟁

달러/톤

1,000톤

주요/톤

 להגיע/톤

중국 광동성의
미국 옥수수 조달가격(추정)

중국의 광동성의
국내산 옥수수 가격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우편축)

2001 2002 2003 2004

0 50 100 150 200 250 3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력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2004년 1월에서 3월까지 시행된 것 같다. 옥수수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그로 높게 오르지는 않았다. 광동성과 대만항 시장의 옥수수 가격 차이는 2003년 12월 20% 이상에서 2004년 3월에 15%로 줄어들었다.

○ 중국은 WTO 가입협약에서 2004년 옥수수 수입허용을 7.4백만 톤으로 정하였다. 4) 인터바 수입량에 대한 관세는 1%이하 중국은 수입곡물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실제로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Gale). 어떤 농업회사 대표는 2002년에 중국 정부가 수량의 경제성 없는 수량을 수입허용으로 배정하고 수입수요가 아주 적은 서부와 북부 지역의 수입업자에게 수입허용을 배정하여 옥수수 수입에 직접 개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입허용 배정과정에서 수입을 재판하였다는 뜻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2002년과 2003년에 수입수요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도 어렵다.

○ 또한 GM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제로 중국의 옥수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제반되는 8종의 옥수수 GM 품종 중에서 많은 것이 수입되기 전에 중국 정부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04년 4월까지 중국은 4품종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2품종은 재검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4) WTO 가입 이후인 2002년에는 옥수수 수입량은 연간 수입허용량을 정하지 않고 수입허용에 1%를 관세로 설정하고, 정부에서 곡물수입허용처로 지정된 수입회사인 COFCO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도록 하였다. 사정은 지금도 비슷한데, 다만 중국의 WTO 양허안에 의해 매년 퀘이량이 정해지고 매년 퀘이량의 일정 비율을 COFCO 이외의 수입업체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 환율 재평가는 미국의 옥수수 수출에 유리

○ 2003년 중국은 무역상대국들로부터 환율을 재평가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중국 위안화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당 8.28위안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환율이 위안화가 자유거래 될 경우의 환율에 비해 40%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여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제3국의 통화가치에 비해 더 낮아졌다.

○ 중국 정부는 환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어떤 지표도 제시하지 않았으나, 외환 준비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왜곡하고 경제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소간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는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국제교역과 재정시스템의 관별한 개혁의 일환으로 더 신속적인 환율로 나아갈 것이라 약속하였다.

○ 미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미국 옥수수의 경쟁적 위치를 개선할 수 있으며 중국의 수출비용을 높일 것이며 중국시장에서 수입을 더 유인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통화를 달러당 8.28위안에서 8.00위안으로 평가절상을 할 경우 대현항의 옥수수 국내가격을 톤당 5달러씩 올릴 수 있으며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수출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거나 수출을 통해 톤당 위안화 수입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8.28에서 8.00으로 평가절상은 또한 중국 서부지역에서 미국산 옥수수의 조달가격을 톤당 50위안까지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수입을 더 유인할 수 있다.

5) 중국 정부는 통화가치절상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 보상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아시아 통화위기때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는데 중국정부는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반대하였으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7. 장기 전망: 중국의 옥수수 순수입국화


○ 옥수수 소비는 축산업의 성장에 의해 늘어나는데 중국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축의 사료곡물은 국내 총 소비량의 약 4분의 3에 달한다. 중국의 가축과 사료곡물 소비 통계는 아주 부족하며 믿을 수 없어 옥수수 소비량 추정치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적어도 중국의 GDP 성장률인 8~9%와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식품 소비 연구에 따르면 육류, 낙농, 수산물 수요는 소득 증가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한다. 축산물 수요는 도시민의 육류, 낙농, 가금육 소비가 농촌 주민의 평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촌향도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 다. 농가들은 가축 사육을 위해 더 많은 곡물을 사용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축사료급여방법은 작물 부산물과 음식물 썰매기이거나 지급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상업용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민들은 가축에게 많은 량의 저급쌀과
소백을 급여하고 있으나 최근의 정책변화로 저급 곡물 생산이 줄어들었다.

○ 중국에서 식용 옥수수 소비량은 국내의 전체 소비량의 약 5%에 불과하며 이러한 식용 수요 구조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옥수수와 다른 조합곡물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이들 식용 곡물을 "下級財"로 인식하게 되었다. 도시가구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조합곡물 소비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도시민들이 농촌 주민들보다 옥수수를 적게 먹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으로 상쇄되고 있다.

○ 옥수수의 공업용 소비는 시장수요와 정부의 직접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업용 사용자와 식품가공용 사용자들은 중국의 옥수수의 10%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 수요가 늘어나 전문과 기타 식품으로 사용하는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료용 알코올 생산시설이 여러 군데 옥수수 주산지에 세워져 있어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

○ 중국의 옥수수 생산능력이 소비증가를 따라가지 않을 것 같다. 옥수수 생산면적과 단수는 1985-95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으나 현재 작물 재배면적은 도시화로 줄어들고 있으며 옥수수는 대두, 면화, 시설채소, 기타 용도 토지와 경합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습지, 임야, 경사지로 과거에는 곡물 생산과 대두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작되었으나 농업산 기술 개발과 추진됨에 따라 경작지가 줄어들었다. 2004년에는 공과 면화 가격이 감소를 보이자 일부 면적이 옥수수 재배에서 공과 면화 재배로 전환되었다. 5) 농업부의
재배의향조사에 의하면 2004년에 옥수수 파종면적이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5. 중국의 지역별 옥수수 단수 추이, 1985~2002년

주: 북동부지역은 요녕성, 길림성, 흉룽강성, 내몽고로 구성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과거 10여년동안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단수 증가가 정체되었다. 중국의 옥수수 단수는 여전히 주요 경쟁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유럽에 옥수수 단수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의 단수에 비해서는 50% 이상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단수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옥수수 단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초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품종개

6) 북동부지역에서는 정부가 옥수수 수매와 유동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옥수수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경작하게 되었다.
신이 이루어지고 비료 사용이 늘고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5). 1996년에는 ha당 단수가 5톤 이상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에는 그 이상으로 단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 1995년 이후 단수 추세는 해마다 전폭을 보였다. 그 이유는 주로 북동부지역의 기후가 여름철 한발과 서리 피해, 수확기 집중 강우 등 변화가 심해 단수가 줄어들었다. 과종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 생산능력의 증가는 단수가 높아져야만 가능하다.

그림 6. 아시아국들의 수입선별 수입비중, 1997–03년

8. 미국의 옥수수 비중 증가

○ 중국의 옥수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옥수수 생산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출 감소는 미국의 수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시장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옥수수는 2000-03년 동안 중국의 수출 증가로 인해 한국과 남동 아시아지역에서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6). 물론 2004년초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운임료가 계속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옥수수 수출 감소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옥수수시장 점유율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중국의 경쟁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세계시장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옥수수 생산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밀 산업 현황과 수입 전망

개 요

○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밀 생산과 무역거래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었다. 밀 생산은 1997년에 가장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그 후 2003년까지 3천만 톤 이상이 감소하였다. 밀의 수입은 1995년 에 1천 2백 3십만 톤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97년 이 후 매년 백만 톤 이상의 밀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밀 생산 및 소비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수입 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밀 수입 이 향후 1년 ~ 2년 이내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안정적인 수준으 로 하락하면서, 중국이 다시 밀의 순 수입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1. 서론


○ 생산 감소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중국의 밀 수입이 감소한 배경에\(2004\)년이거나 2005년에 밀 수입이 1천만 톤 이상 증가하여 밀의 순 수입국가가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수입이 연간 5백만 톤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밀 생산 감소

○ 중국은 1997년 이후 밀 생산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밀 생산 국가이다. 대부분의 밀은 중국 북부 평원에서 생산된다. 그 중 향남성(24.5%), 산둥성(17.6%), 흑북성 11.9% 세 지역에서 중국 밀 생산량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2003년 밀 생산은 2002년 생산 수준보다 하락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하락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밀 생산의 감소는 산출량의 감소보다는 재배 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이 다. 예를 들면, 1997~2002년에 밀 생산은 26.2% 감소하였고, 재배 면적은 20.5% 감소하였다(그림 1). 반면, 밀 산출량은 같은 기간 동안 단지 7.2%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 이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밀의 재배면적이 3천

만 핵타르에 머물고 있었으며, 밀 생산은 산출량이 증가함으로써 증가하였다(그림 2).

그림 1. 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중국)

---

그림 2. 밀의 단위당 산출량(중국)
○ 중국에서 면 재배면적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산출량이 많은 저 품질 밭 생산을 감축하는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농민은 밭 생산 대신 고부가 가치의 원예작물로 대치하고 있다. 주요 밭 생산지역에서는 수자원의 부족과 다른 환경적인 요인 또한 재배면적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 밭의 낮은 가격 또한 중국 농민들이 밭 생산 대신 다른 작물 생산으로 대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역 통계연보(Rural Statistical Yearbook)에 따르면, 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작물이 되고 있다. 밭 생산을 통한 소득은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원예작물의 생산을 통한 소득보다 확실히 적다. 게다가, 중국 북부 평야지역의 유전자가 변형된 면화가 도입됨으로써 면화가 수익성이 높은 작물이 되고, 밭 생산지역에서 면화생산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면화가격과 낮은 밭 가격으로 인해 중국의 농민들은 밭과 면화의 복합 재배방식 보다는 면화의 봄 과종(spring-sown cotton)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 정책의 변화, 시장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 산업화 또한 중국의 밀 생산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년 동안, 밀을 생산한 농민들은 생계용으로 밀을 소비하고, 농지 할당에 대한 일종의 세금 형태인 '곡물할당 납부의무(grain quota delivery obligation)'를 체우기 위해 지방 정부에 납부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방에서 '곡물할당 납부의무' 대신에 현금으로 세금과 요금을 받고 있다. '곡물할당 납부의무'가 없게 되면서, 농가는 밀 대신에 상업성이 높은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 자원의 고갈, 특히 수자원의 고갈 또한 밀 생산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밀 재배는 충분한 관개(irrigation)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밀 재배지역, 특히 중국 북부 평야지역에서는 밀 수확이후인 여름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하수의 높이(level)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세 번째 밀생산지인 호북성의 어떤 지역에서는 일년에 3m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두 번째 밀생산지인 산동성 지방은 중요한 관개수의 원천인 황하강(Yellow River)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다. 황하강은 때때로 관개기간 중에 바다로 흩려가기 전에 말라 버리기도 한다. 물론 1999년 이후에는 보존방안이 마련되어 개선된 점도 있긴 하지만 199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악화되었다. 비록 수자원 관리와 보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런 정책이 효과를 가질지는 알 수 없다.

○ 수자원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외에도, 중국은 토양 보존과 산림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1999년부터 착수된 '퇴경환림(退耕還林)(Grain for Green)' 프로그램은 농경지를 숲이거나 조지로 변경하는 농민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황폐
화되기 쉬운 토지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경사지에 초적을 두고 있다. 시행 첫 2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총 1백 2십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숲과 초지로 변경되었고, 2010년까지 1천 3백만 헥타르 이상(이중 4백 4십만 헥타르는 경사지)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린 생산지인 황하강 유역에서의 토양 유실 감소가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다.

- 이러한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중국의 린 생산은 향후 9천만 톤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원예작물 생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중국의 린 출하협회들은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 중심이 되어 가고 있고, 농민들은 상업적인 마인드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이행되고 있는 토지 및 수자원 보존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2. 린의 수입

○ 중국의 곡물 재고량은 엄격하게 비밀로 부처져있고, 중국정부의
 관계자들의 실제 곡물 저장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도 불확실
하다. USDA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하반기에 4천2백4
십만 톤의 밀 재고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러
한 재고량은 2005년 상반기까지 3천백4십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SDA-WASDE, May 12, 2004). 2003년 8
월 이후 중국에서의 밀 가격 상승은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 소실분(disappearance)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중국의 밀 재고량
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실분은 음식으로 소비되는 밀 뿐만
나라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밀과 유통 및 재분 과정에서 손실
되는 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중국은 생산 통계와 수출과 수
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관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국내의 밀 소실분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
구자들은 소실분을 추정해야만 하고, 이런 추정치들은 중국의 최
근 정세에 따라 복잡하게 일어게 된다. 즉, 소득의 증가, 지방의
상업화, 도시화는 음식으로서의 밀 소비(밀의 총 소실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가 줄어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밀의 총 소실분 중에서 비 소비부문(사료용과 소실분) 또한 밀의
유동경로가 상업화 되고 가공이 더욱 효율화 되면서 지난 10년 동
안 감소하고 있다.

○ 중국의 1인당 밀 소비량은 소비자들의 음식문화가 책소, 과일, 고
기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
의 소득수준이 높고, 시장과의 접근성이 높고, 음식을 저장하거나
요리할 수 있는 냉장고나 전기오븐과 같은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소비자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음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 중국은 농촌지역의 1인당 밀 소비량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만, 도시지역에 대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02년 농촌가구 조사 연보(2002 Rural Household Survey Yearbook)'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연간 1인당 밀 소비량은 75kg인 것으로 나타났고, ERS(미국 USDA)는 중국 도시지역의 1인당 밀 소비량은 농촌지역의 1/3 수준인 26kg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2년 통계 연보, 통계국(2002 State Statistical Yearbook,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지역 인구는 7억 9천 5백 6십만 명이고, 도시 인구는 4억 8천 6십만 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중국 총 인구의 밀 소비량은 7천4백6십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촌 거주자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소비량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농촌 거주자가 1억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중국의 전체 밀소비량은 6천6백2십만 톤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제분(milling)과정에서의 손실율을 고려한다면 밀 소비량은 더욱 불분명해 진다. 만약 제분율이 0.79라고 가정한다면(즉, 제분과정에서의 손실율이 0.21), 밀 소비량은 6천6백2십만 톤 ~ 7천4백6십만 톤의 범위에서 8천3백7십만 톤 ~ 9천4백4십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3. 밀의 품질

- 중국 소비자들은 밀을 적게 먹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품질
의 밀을 먹기를 원한다. 대중화된 가공식품과 서구식품이 증가함으로써 다른 품질을 가진 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농가들은 가공식품산업에서 선호하고 있는 품질의 밀을 생산하는 데 큰 인센티브를 갖지 못했다. 1990년대의 정책들은 밀의 품질보다는 밀의 생산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비록 산출량은 멀어지지만 고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품종의 밀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곡물의 물류시스템은 유통과정에서 다른 품질의 곡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농가들은 단백질 함유량이 평균 이하인 밀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 1999년에 이르러서, 중국의 정책당국은 고품질 밀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당초 ‘특수 밀(special wheat)’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써 출발하였으며, ‘특수 밀’ 생산지역을 지정하고 밀의 품질(글루텐 함유량이 많은 밀)을 높이 위해서는 사용되는 세앗이나 다른 투입요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가격보조(Price Premium)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보조는 관료주의적으로 결정되었고, 농가들은 생산에 따른 손실을 항상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밀의 재배면적이 2002년에는 5백만 헵타르까지 확대되었다. 이 면적은 전체 밀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면적이었다.

○ 중국은 최근 몇 년 만에 고품질 밀 생산이 놀랍만한 증가를 보였지만, 고품질 밀 생산촉진 정책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 특정 품종의 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다. 예를 들어, 고 품질 밀은 단백질의 양이 많은 적을 간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
는 품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글루텐(단백질의 일종) 함유량이 높은 밀만이 고 품질 밀로서 인식되고 있어, 글루텐 함유량이 낮은 밀은 정책임안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수 품종에 대한 지원은 고위 관리자들의 부탁을 받은 마을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농가들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마을 지도자들 또한 농민들이 지원대상의 고품질 밀의 썰antro 외에 다른 썰antro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밀이 마을과 사용계약을 맺은 콤폴로스로 수확되면서부터, 개별 농민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품종의 밀을 재배해야 한다.

○ 밀의 품질은 중국의 밀에 대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밀 수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고 단백질 함유 밀과 저 단백질 함유 밀에 대한 수요는 현행 제한조치 때문에 밀 수입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특수 밀’ 캠페인은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밀의 국내 공급을 증가시켰지만, 캠페인을 이끌어 가는 정책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급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의 수요는 중간정도의 단백질 함유하고 있거나 다른 품질을 가진 밀에 대한 수요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고 품질 밀은 수출하고 저 품질 밀은 수입하게 될 것이다.

４. 결론

○ 1990년대는 중국의 밀 생산과 무역이 활발한 시기였다. 밀 생산은

○ 비록 2004년이 Lester Brown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된 해이지만, 중국은 밀 생산을 포함해 식량생산에 있어 자급자족을 균형히 유지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은 밀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보다 수익성 높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 대규모 초과생산분에 대한 저장비용 등이 중국의 자급자족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다.

○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특히 WTO가입과 같이 세계경제와 더욱 융합하게 되면서부터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농촌지역에서 식량자급자족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하기 보다는 시장이 생산과 무역거래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맡길 것이 다. 이러한 정책변화 중국에서의 밀 생산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중국은 앞으로도 밀의 주요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 될 것이고, 수
입은 향후 몇 년 동안 밀 산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1인당 밀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며, 전체 밀 소비량 또한 감소할 것이다. 중국의 연간 밀 생산수준은 전체 소비수준과 거의 비슷한 9천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국내 생산에 적합하지 않는 어떤 품질 형태의 밀에 대해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밀 소비량 추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생산이 소비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면, 중국은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밀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부 록

○ 2004년 2분기 농정이슈와 여론동향
2004년 2분기 농정이슈와 여론동향

1. 2분기 여론동향 개요

- 2004년 2분기 연론에 비중있게 다뤄진 농업관련 주요 이슈와
  쟁점은, 5월6일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9개국과 개시된 약 재협
  상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취급된 가운데, 우리 나라와 1차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 태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자국산 쌀의 수출 확대에 관심을 보인 한편 수입
  쌀 시장 문제도 갈등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중국과 태국은 관세화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이들 나라의 요구가 실재협상의 결과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의 지나친 확대 요구가 있을 경우 실
  익위주의 협상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 중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연론들은 관측하였음.

- 지난해 잔류논의 결렬 이후 담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WTO/DDA 협상은 7월말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관세 감축방식을 농고 수출국 그룹인 G-20 그룹과,
  우리 나라 등 수입국 그룹인 G-10 그룹간에 이견이 평행해

1) 이 자료는 김동원 전문연구원(dongweon@krei.re.kr)이 2004년 2분기 동안의 주요 농정 이
  슈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경찰, 유관기관 동향, NGO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은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
  이지(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큰 진전없이 협상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또, 한-칠레 FTA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한-일 FTA 추진과가 관련해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2분기 들어 한-일 FTA '속도조절론'이 탄력을 받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음.

○ 6월 이후에는 한-미 FTA에 대한 문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해 7월에는 한-미 양국 재계에서 FTA 논의를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언론들은 한-미 FTA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 등의 반발 등이 겹리들이 될 것으로 관측하였음.

○ 농협에 대한 개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여론화된 가운데, 정부는 6월 29일 절대적인 경영권을 보유한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를 책임성이 강조되는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일선조합은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규모화·전문화시키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과제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 농가소득 중 쌀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농림부 발표가 나온데 이어,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논란 끝에 추국수체가 4% 인하안을 정부안으로 결정하였고, 언론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논평하면서도 농민들의 반발로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태도 완화하는 등
의 농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
론들은 농지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와 난개
발 방지 대책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음.

2. 주요 이슈와 여론

2.1. 쌀 재협상, 수출물량 확대·수입쌀 시장 문제 제점화

- 5월6일 미국을 시작으로 6월3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 9개국과
쌀 1차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언론들은 1차협상 결과 이들 9
개국의 협상전략은 우리의 시장에 더 접근하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협상 전략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다만 중국과 호주은 관세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 것으로 전망
하였음.

- 또, 6월18일 중국을 시작으로 2차 협상에 들어간 쌀 재협상은,
중국이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이면 의무수입 물량을 얼마나 더
늘려줄 수 있는지를 우리측에 타진해 오는 등 구체적인 요구조
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차 협상에서는 미국·호주
등이 관세화보다 정부에서 가공용으로 관리하는 수입쌀의
소매판매 허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었음.

- 이와 관련해 정부는 6월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세화
든 관세화 유예를 최대한 실리하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다는 기본 방침을 제외한 한 것으로 전해져 설익위주의 연착륙
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지난 5월 6일 첫 협상을 벌인 미국은 '미국산 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시장 접근'을 제시함. 이는 미국이 현재 국내에 수출하고 있는 수준을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현재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는 자국산 쌀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들은 폴리하였음.

○ 태국은 기본적으로 관세화를 선호하지만 자국산 쌀의 수출량을 확고하게 더 늘리려는 방안이 제시되다면 관세화 유예의 연장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호주도 자국산 쌀을 일정 물량 이상 수출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중국은 표면상 관세화에 협을 설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같은 태도는 자국의 수출물량을 더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음.

○ 언론들은 아직 나머지 협상 참가자 5개국과의 1차 협상이 남아있지만 일단 협상 분위기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들여가고 있다고 관측하면서, 하지만 이들 국가가 자국산 쌀의 수출물량 증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과연 우리측이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가 협상의 관건이라고 분석하였음.
<table>
<thead>
<tr>
<th>협상국</th>
<th>개최일</th>
<th>협상 상대국 연급 내용</th>
<th>연론 보도 논조</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5.6</td>
<td>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중국과 협상 지켜보며 결정</td>
<td>자국쌀 국내시장 허용 요구 등 수출물량 증대에 관심</td>
</tr>
<tr>
<td>중국</td>
<td>5.12</td>
<td>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는 이유는? 관세화가 당연</td>
<td>관세화 강력히 주장해 협상 최대 난적</td>
</tr>
<tr>
<td>태국</td>
<td>5.14</td>
<td>농업협정상 관세화가 기본원칙. 시장접근의 질적 개선에 관심.</td>
<td>원칙적인 관세화 주장불구, 관세화유에 타협 가능성</td>
</tr>
<tr>
<td>호주</td>
<td>5.18</td>
<td>쌀 시장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진출과 시장접근 확대에 관심.</td>
<td>자국산 쌀 일정물량 수출에 관심 보여</td>
</tr>
<tr>
<td>파키스탄</td>
<td>6.1</td>
<td>한국에 대한 실적이 미미하지만 향후 시장 진출에 관심.</td>
<td>캐나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등 나머지 5개국은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농 수출보다는 쇠고기 보리 밀수수 등 다른 농축산물의 대한(협정) 수출을 위한 '반대급부 카드'로 사용하는 듯</td>
</tr>
<tr>
<td>인도, 이집트</td>
<td>6.2</td>
<td>주요 쌀 수출국으로서 향후 시장 진출에 관심.</td>
<td></td>
</tr>
<tr>
<td>캐나다, 아르헨티나</td>
<td>6.3</td>
<td>농업협정상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가 원칙.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이해관계가 있어</td>
<td></td>
</tr>
</tbody>
</table>

○ 한편, <경향신문 5.11>은 쌀 협상과 관련해 농업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은 한결 갈아 원칙적인 개방반대이며, 특히 DDA, FTA 협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만 쌀 재협상에 대해서 목소리가 갈린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에 따르면, 전농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유예는 물론 저비용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TQR)도 협의 조건에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농 소재법 정책실장은 "TQR 중량을 최소 범위 내에서 막는 수준에서 관세화가 유예되어야 한다"며 전농 입장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함. 또, 농단협 신동현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는 관세화 유예지만 농민들의 실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세화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2.2. 농협법 개정안 확정…전문경영체제 도입

○ 정부는 농협과 농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업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주장해 온 개선내용이 대폭 수용돼 있어 농협조합이 조합원인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체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개정안 내용은, 농협중앙회는 전례 없는 경영권을 보유한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를 책임성이 강조되는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로 전환하고, 일선조합은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규모화·전문화시키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

○ 특히,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또 일선조합의 경우 시·군 법위 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는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한 지역을 상대로 여러개 지역농협이 경쟁을 벌이면서 취약한 농협은 자율적으로 합병되는 등 규모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

○ 농림부는 일선조합을 폐목조합 중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폐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는 한편, 근년말까지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해 조합이 스스로
합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한 방침임.

- 이에대해, <연합뉴스 6.29>는 최대 쟁점인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 문제는 두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1년뒤 농협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할 즈음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함.

- <중앙일보 6.30>는 농협 vs 농협...지역조합 영업범위 넓혀-내부경쟁서 낙오된 퇴출되는 등 경제체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으며, <동아일보 6.30>는 시·군과 특별·광역시 범위 안에서 농민들이 기존 우·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음.

- 또, <서울신문 6.30>은 경쟁력 떨어 농협 ‘갈아엎기’-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한 농협의 환골탈태를 노리고 있다며, 농림부가 ‘농협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율개혁으로 포장했지만 더 이상 농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폄이함.

- 한농연은 6월30일 성명을 통해 6월29일 발표한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규변하는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고려한 결과물로, 농민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을 큰 방향성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시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하고 기업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의 사업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그동안 수행해왔던 협동조합의 운동성과 공공적인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
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함.

○ 또한, 농협의 사업 및 경영, 조직구조 등 농민조합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이번 농협법 개정만으로 끝내다면 농민조합원의 사업 및 경영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이에 앞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5월12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발시대 농정개혁의 핵심은 농협 개혁”이라면서 “농협이 자발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행정권한으로 농협 개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으며, 부실조합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농협 개혁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음.

○ 하지만, 5월10일 농협중앙회 정대근회장은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조합의 통·폐합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서는 조합의 자생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소분금 확충 등 정부 지원이Absolutely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부의 다른 일정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으며, 신용·경제 분야도 농협과 합의하지 않은 농림부의 장기구상이라고 주장해 협동조합 개혁추진 주체를 농협 논란이 있었음.

2.3. 한-미 FTA 가능성 고조...농업부문 타격 커 반발 불가피

○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 정계가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간 경제협력은 투자협정(BIT)을 넘어 FTA 협상으로 급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관측함.

○ 제계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대미 무역흑자를 내 고있는데다 농산물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높는 것보다 얻는게 더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경 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FTA 논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

○ <연합뉴스> 등은 현재 한-미 양국 정부차원에서 FTA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지만 한-미 제계가 FTA 체결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만큼 향후 양국 간 FTA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헤럴드경제 7.3>는 양국간 FTA 추진에서 가장 큰 결림돌로 작용할 부분은 농산물과 서비스,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 등 으로 농산물, 서비스 부문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강력한 반발이 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양국간 FTA는 진품목 완전자유화, 농업분야 일부 제외, 농업분야 완전제외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농 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양국간 FTA 추진의 가장 큰 결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헤럴드경제 7.3>는 미국 국제무역위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54% 증가하고, 수입은 21% 늘어날 것으로 추정. FTA 체결 4년 뒤 미국은 농산물 104억달러, 공산품 87억달러 등 총 192억달러의 대한국 수출 증가가 전망됐다고 보도하였음.

○ 결국, 미국은 대한국 농산물 수출을 200% 이상 증가시키고 한국은 대미국 섬유 및 의류 수출을 12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촉함.

○ <연합뉴스>도 양국간 FTA 추진에서 가장 큰 결점으로 작용할 부분은 역시 농산물과 서비스,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서비스부문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다고 전망함.

2.4. 추과수재가 4% 인하한…농민단체 반발

○ 지난 5월4일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더 검토하라는 당시 고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의결이 보류했던 추과수재가 4% 인하안이 5월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이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수재가 인하 결정은 쌀개방 협상을 하고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정치권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수재가 인하안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하였음.
2.5. 농가소득 중 쌀 비중 2003년 50% 넘어

- 농림부가 지난해 농가당 쌀 소득이 545만원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5월9일 발행에 따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1082만5000원) 중 쌀 소득 비중은 50.3%로 전년보다 3.4%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는 UR 체제 시작인 1994년보다 11.1%p 높은 수준으로,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은 95년 38.1%까지 떨어진 뒤 상승하기 시작해 97년 54.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한편, <한국 5.10>은 국내 쌀 소비가 1995년 쌀시장 개방 이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가운데 올해로 UR형 상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쌀 공급과잉과 재고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라고 보도 하였음.

2.6. 도시가구 교육비 농촌의 5배

- 5월10일 통계청이 ‘2003년 농가경제조사’와 ‘2003년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통행’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수매가 인하 결정은 쌀 산업을 포기하는 결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수매가 인하안을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쌀산업의 향상을 제시하고 촉구하였다.
농촌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은 1,800만 3,000원으로 같은해 도시가구 평균 가계지출액(2,323만 8,000원)의 77.5%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농촌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평균 84만원으로 도시가구(264만 6,000원)의 3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문화 5.10> 등 언론들은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농촌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보다 3.2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규모는 농촌가구의 5배에 달해 가득이나 심각한 도농간 학력격차가 구조화하거나 심화되는데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2.7. 정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 정부는 6월 18일 이현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원을 확대 확대하고, 적정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 방안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그동안 사과와 배 등 6개 품목과 태풍 및 우박 등의 재해에 한해 운영돼 왔으나, 오는 2013년까지 30개 이상 품목과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게 됨.

- 정부는 또한 1.5ha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선도농을 오는 2010년까지 2만 2천호를 육성, 전국 총생산량의 50%를 만들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천140억원의 자금을 조성, 규모화를 위해 과원을 매입.임차할 경우에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음.

2.8. 농가-도시가구 평균 잉여금 3배차

○ 6월2일 농림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촌 1가구당 잉여금이 평균 248만8,000원으로 같은 해 도시가구 평균 잉여금 790만4,000원의 3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가구의 잉여금은 지난 2001년 연간 681만1,000원에서 787만 8,000원(2002년)→790만4,000원(2003년)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촌가구의 잉여금은 지난 2001년 481만9,000원에서 2002년 579만4,000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248만8,000원으로 급락하였음.

○ 전문가들은 도시와 농촌간 잉여금 차이는 도-농간 실질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농가소득 중 농업의존도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2.9. KREI, “수입농산물값 10년뒤 50% 떨어질 것”

○ 5월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팀이 발표한 ‘주요 양념재료의 도하개발비판다(DDA) 농업협상 파급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타결될 경우 10년 후
수입 농산물 가격이 40~60% 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추의 경우 DDA 협상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관세가 선진국 평균수준인 43.2%까지 낮아질 경우 수입 고추 가격은 을해 kg당 6,840원에서 2015년 최고 2,450원으로 6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입량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음.

○ FTA 체결과 DDA협상에 따른 외국산 과일 수입의 증가로 과일 재배면적도 크게 감소한 사과의 경우 2003년 2만6,000ha에서 2013년 2만4,000ha로 줄어들고, 배도 2만4,000ha에서 2013년 2만1,000ha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2.10.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키로

○ 불량반품 과동 등으로 믿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월14일 농림부가 마련한 ‘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화보대책’에 따르면 식품·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제’ 도입과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6월중 입법예고키로 하였음.

○ 현재 일부 유통회사에서 ‘생산이력제’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가 법적으로 규정돼 시행되면 농산물 생산에 사용된 종자와 재배방법, 농약 사용량, 유통과정 등이 제품 ‘바코드’에 모두 기록돼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유통이력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됨.
2.11. 도시민 농지 소유규제 대폭 완화…기대한다 권력

○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영농의사가 있으면 사실상 농민들
과 마찬가지로 우량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
그러나 도시민들이 실제로 영농에 나설 때까지는 소유농지의 운
영을 신설될 예정인 농지관리기구인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는
농지의 이용측면에서는 계속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언론들
이 보도함.

○ 농림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
을 농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월21일 밝혔
는데, 개정안 내용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게되는 등이 골자임.

○ 농지에 대한 투기 규제책으로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전용부담금제 등이 도입되며, 도
시민의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소유는 현행대로 0.1ha 미만으로
유지될.

○ 이에 대해 <한국 6.23 사설> 등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여 최소 5년 동안 위탁영농하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
지므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음까 걱정한다고 투기를 특
히 우려함.

○ <국민 6.23 사설> 등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철저한 보
완책을 마련해 우리 농업이 자본주의 체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으며, <한경 6.23 사설>도 중소 규모의 농사
을 짓던 자작농들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fn시설 6.22>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은 ‘경작 유전(耕者有田) 원칙’, 다시 말하면 자영농 원칙을 규정한 헌법 조항과 거리가 있음을 알아야. 위헌논쟁과 투기수요를 비롯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먼저 농업 관련 이익집단부터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2.12. 농업도 기업화...전문경영인 농업법인 육성

○ <연합뉴스 6.25>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를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발에 대응해 농업 분야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앞당기기 위한 농업 법인 육성 방안이 추진됨.

○ 농림부는 6월25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법인에 대한 진입 제한 완화와 세계 개선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표이사와 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민이 맡도록 되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진 제한규정이 철폐돼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며 비농업인 출자 제한도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됨.

○ 또, 지방자치단체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농어
춘관광휴양, 읍식점 등 농업법인의 사업 허용 종류가 늘어나며
창업후 2년내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추진.

- 농업법인과 농민 모두에 대해서는 △ 농업소득세 부과 5년간 중
단과 세율개선 △ 농지구입용 임차자금의 지급이자 경비처리
허용 △ 전적,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용자재의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이뤄질 전망.

- 개선내용별 추진일정

<table>
<thead>
<tr>
<th>개선 내용</th>
<th>조치 일정</th>
</tr>
</thead>
<tbody>
<tr>
<td>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지방세법 개정)</td>
<td>2004년 말</td>
</tr>
<tr>
<td>농지구입자금 경비처리 허용(해석지침 변경)</td>
<td>&quot;</td>
</tr>
<tr>
<td>창업후 2년내 취득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td>
<td>&quot;</td>
</tr>
<tr>
<td>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제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td>
<td>&quot;</td>
</tr>
<tr>
<td>농업법인의 농업용 건물 매입시 국민주택착권 구입의무 면제(주택법 시행령 개정)</td>
<td>2004년 9월</td>
</tr>
<tr>
<td>친환경농업용 자재 영세율 추경(관련법령 개정)</td>
<td>2004년 말</td>
</tr>
<tr>
<td>농업법인 지분제한 규정 개선(농지법 개정)</td>
<td>&quot;</td>
</tr>
<tr>
<td>농업법인 설립주체에 지자체 포함(농업농촌기본법 개정)</td>
<td>2005년 말</td>
</tr>
<tr>
<td>농업분야 장업보육센터 확충(주간방안 마련)</td>
<td>2004년 말</td>
</tr>
<tr>
<td>작품재배엽 사업자등록제 마련(제도마련)</td>
<td>2005년 말</td>
</tr>
<tr>
<td>농업경영체 설립임 조직확충(시장지침 개선)</td>
<td>2004년 말</td>
</tr>
<tr>
<td>재무조건 등 경영회생지원제 보강(제도 개선)</td>
<td>&quot;</td>
</tr>
<tr>
<td>농업법인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허용사업 확대</td>
<td>&quot;</td>
</tr>
<tr>
<td>농업법인 종사자 고용,산재보험과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적용확대 검토(지원방안 마련)</td>
<td>2005년 말</td>
</tr>
</tbody>
</table>
2.13. WTO 농업협상 난조…특별회의 지연될 듯

○ 〈연합뉴스 7.9〉 등은 7월 8일 WTO관계자와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농산물 협상의 흐름은 WTO농업위원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7월 9일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주에 열리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향이었으나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특별회의는 당초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 21~23일로 연기될 것이 유력시되면서 이는 그로서 의장의 초안 작성이 난관에 부딪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그로서 의장은 7.9일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 20개 개도국 그룹(G20), 10개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등의 입장이 충돌하게 대충하고 있어 초안 발표는 일리도 7.16일까나 나올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G20의 구간대 방식에 이른바 ‘스위스 공식’을 포함시키는 종전의 입장은 이날 다시 강하게 주장했지만 EU와 인도,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대립이 현저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3. 중앙언론에 다뤄진 주요 논단

3.1. 사설 논조
<table>
<thead>
<tr>
<th>언론사-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일보/5.6</td>
<td>추국수배</td>
<td>정부의 쌀 정책 헛갈린다</td>
</tr>
<tr>
<td></td>
<td></td>
<td>- 수매가 4% 인하한 국무회의 보류조치 입 회장 등 현실 감안</td>
</tr>
<tr>
<td></td>
<td></td>
<td>- 반면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지원은 자생력 없을 수 있어</td>
</tr>
<tr>
<td></td>
<td></td>
<td>- 진정 농업실리는 길 무엇인지 생각해야</td>
</tr>
<tr>
<td>세계일보/5.6</td>
<td>추국수배</td>
<td>추국수배가 인하를 보류하다니</td>
</tr>
<tr>
<td></td>
<td></td>
<td>- 소득보전 대책 결정위해 인하안 보류했다는 설명 설득력 없</td>
</tr>
<tr>
<td></td>
<td></td>
<td>- 한미 합의상에서 미국 진지하게 설득하는데도 차질</td>
</tr>
<tr>
<td>한겨레/5.12</td>
<td>추국수배</td>
<td>추국수배가 인하에는 농가소득 안정 대책 미흡과 쌀산업</td>
</tr>
<tr>
<td></td>
<td></td>
<td>- 자체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서 오는 문제를 알고 있어</td>
</tr>
<tr>
<td>매일경제/6.15</td>
<td>한-미FTA</td>
<td>못 FTA 제외 불씨 살려야</td>
</tr>
<tr>
<td></td>
<td></td>
<td>- 한-미간 FTA에 있어 농산물 개방 문제가 걸립돌어가는 하</td>
</tr>
<tr>
<td></td>
<td></td>
<td>- 나 기상 도학개발센터(DDA)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에</td>
</tr>
<tr>
<td></td>
<td></td>
<td>- 관한 양보가 불가피하게 돼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미측의</td>
</tr>
<tr>
<td></td>
<td></td>
<td>- 제외에 관심 가질 필요 있어</td>
</tr>
<tr>
<td>한국경제/6.23</td>
<td>농지제도</td>
<td>농지제도 개편에 앞서 해야할 일</td>
</tr>
<tr>
<td></td>
<td></td>
<td>- 농업법인 범위 확대 등 대규모 농업경영체 진입을 용도하다</td>
</tr>
<tr>
<td></td>
<td></td>
<td>- 농지제도 변경과 새로운 자원의 농촌공간 개혁 지야</td>
</tr>
<tr>
<td>서울경제/6.23</td>
<td>농지제도</td>
<td>도시민 농지보유 허용, 투기방지가 관건</td>
</tr>
<tr>
<td></td>
<td></td>
<td>- 점부는 입법과정에서 잔재와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td>
</tr>
<tr>
<td></td>
<td></td>
<td>- 젠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야</td>
</tr>
<tr>
<td>국민일보/6.23</td>
<td>농지제도</td>
<td>농지법 개정 투기 여지 없애야</td>
</tr>
<tr>
<td></td>
<td></td>
<td>-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우리</td>
</tr>
<tr>
<td></td>
<td></td>
<td>- 농업이 자본주의 체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td>
</tr>
<tr>
<td>한국일보/6.23</td>
<td>농지제도</td>
<td>농지가 투기장이 될까 두렵다</td>
</tr>
<tr>
<td></td>
<td></td>
<td>- 농지를 구입하여 최소 5년 동안 위탁영농하면 얼마든지 매매</td>
</tr>
<tr>
<td></td>
<td></td>
<td>- 가능해지므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td>
</tr>
<tr>
<td>파이낸셜/6.23</td>
<td>농지제도</td>
<td>농지소유 한제한폐, 간단화 않다</td>
</tr>
<tr>
<td></td>
<td></td>
<td>- 인절미경과 투기수요를 비롯한 모든 문제점을 대한 검토와</td>
</tr>
<tr>
<td></td>
<td></td>
<td>- 대책을 마련해 먼저 농업관리 이익감당자에게 설득해야</td>
</tr>
<tr>
<td>연합신문/6.23</td>
<td>농지제도</td>
<td>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바람직한가</td>
</tr>
<tr>
<td></td>
<td></td>
<td>- 정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농민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td>
</tr>
<tr>
<td></td>
<td></td>
<td>-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야</td>
</tr>
<tr>
<td>세계일보/6.25</td>
<td>농지제도</td>
<td>농지제도 토지제도 완화, 투기 일어나지 않게</td>
</tr>
<tr>
<td></td>
<td></td>
<td>- 논란이 되온 난개발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 역시 발생하지</td>
</tr>
<tr>
<td></td>
<td></td>
<td>-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소모적인 사회비용 줄여</td>
</tr>
<tr>
<td></td>
<td></td>
<td>-야</td>
</tr>
<tr>
<td>파이낸셜/7.5</td>
<td>한-미FTA</td>
<td>가시권에 들어온 한-미 FTA</td>
</tr>
<tr>
<td></td>
<td></td>
<td>- 한-미 자유협정 가시권에 들어온 이상 범과 제도가 균형</td>
</tr>
<tr>
<td></td>
<td></td>
<td>- 이를 수 있도록 개편, 또는 개선해 나가야</td>
</tr>
<tr>
<td>언론사-일자</td>
<td>분야</td>
<td>제목 및 논조</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한국일보/5.3</td>
<td>농림개혁</td>
<td>농협계 이적자 자주적 협동조합으로 돌이키려는 대구대 교수</td>
</tr>
<tr>
<td>서울경제/5.6</td>
<td>쌀채협상</td>
<td>관세와 농가가 아닌 / 서울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td>
</tr>
<tr>
<td>경향신문/5.6</td>
<td>쌀채협상</td>
<td>세계 쌀시장 수급 불안 개방 저지/박응수 전농 정책위원장</td>
</tr>
<tr>
<td>중앙일보/5.6</td>
<td>쌀수폐가</td>
<td>추국가 빌리 결정을 /김명훈 중앙일보 재임 부기자</td>
</tr>
<tr>
<td>중앙일보/5.6</td>
<td>농촌관광</td>
<td>농존체험관광 성공하려면 /김강량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 교수</td>
</tr>
<tr>
<td>세계일보/5.10</td>
<td>신림정책</td>
<td>사업을 보호하려면/우종춘 신림경제학회장</td>
</tr>
<tr>
<td>파이낸셜/5.10</td>
<td>농지제도</td>
<td>농지제도 개선방향 /이상규 국회의회법계 김재관</td>
</tr>
<tr>
<td>파이낸셜/5.10</td>
<td>쌀소비</td>
<td>쌀의 해 쌀소비 농가로 /김주수 농협부 차관</td>
</tr>
<tr>
<td>한국경제/5.11</td>
<td>중남미FTA</td>
<td>중남미와 FTA 서두르자 /성승철 외교통상부 국장</td>
</tr>
<tr>
<td>국민일보/5.11</td>
<td>한-일FTA</td>
<td>한일 FTA 협상 이외 /김천호 한양대 국제학회학회 교수</td>
</tr>
<tr>
<td>한국경제/5.12</td>
<td>한-싱FTA</td>
<td>석달만에 비판 FTA 전략 /이정호 경제부 기자</td>
</tr>
<tr>
<td>국민일보/5.12</td>
<td>FTA 전략</td>
<td>석달만에 비판 FTA 전략 /이정호 경제부 기자</td>
</tr>
<tr>
<td>문화일보/5.12</td>
<td>농업정책</td>
<td>차별화만이 농업이 살 길/노경상 농림중앙회 상무</td>
</tr>
</tbody>
</table>

- 쌀은 농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산물의 쌀수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농업정책에서는 차별화만이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table>
<thead>
<tr>
<th>언론사·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able>
| 서울신문/5.12 | 써 협상 | 써 협상 /오승호 논설위원  
- 협상에 있어서 농업인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보다 성숙해질  
 느낄, 대표단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 중앙일보/5.17 | 양국정책 | 써 문제, 이전 국가 나서서/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교수  
- 17대 국회는 농업문제와 관련해 총대의 소극적이며 미온적 자  
세에서 벗어나 발목의 미래지향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적 역  
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실질 |
| 한겨레/5.18 | 기 타 | 직접 농사지리 보니 알겠더라 /주영미 농민 |
| 동아일보/5.18 | FTA정책 | 선진국과 FTA 신중해야 /장하주 영국 캐PrototypeOf 경제학 교수  
-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  
게 접근해야 |
| 조선일보/5.19 | 농업통계 | 동계전의 올모니사업은 통계 /이성우 서울대 농경계사회학부 교수  
- 동계전이 제공하는 자료는 '졸모니'에 너무 많아, 메일 또는  
매년 실시하는 '도시과계조사'나 '농가경제조사'도 마찬가지어  
서 정중적이고 부정확한 조사가 시행되고 있어 개선 필요 |
| 문화일보/5.21 | 써 협상 | 써 협상, 실리 추구하자 /이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서울신문/5.24 | 축산정책 | 축산업 정책보다 신화가 우선/송석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 수입개방, 늘어난 가에는 부채 등 난관으로부터 우리 축산농민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믿음 |
| 경향신문/5.24 | 써 소비 | 써는 나플 만다 / 김숙희 한국식품영상재단 이사장  
- 최근 써 설탕의 감소는 우리 건강유지에 중대한 적절하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
| 경향신문/5.24 | 써협상 | 써개발 시대 모두의 설달 /모현섭 전남도 정무부지사  
- 연론은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위한 신중한 보도자체가 요구되  
며 농민들도 농업의 풍요를 만들어 경제해야 할 것 |
| 조선일보/5.27 | 현-미FTA | 한·미 FTA 논의 필요하다 /박영철 고려대 교수  
- 한·미 FTA 논의 이유는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확대 필요성  
과 또 구체적 방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 |
| 서울신문/5.27 | 농촌개발 |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이홍규 농촌사랑운동본부 대표  
- 국민적인 농촌사랑 운동과 연계하여, 정부와 농업인, 농협이  
지혜를 모아 우리 농촌에 많은 사랑이 찾아오도록 해야 |
| 한겨레/5.28 | 농협개혁 | 농협개혁과 국회의 책임 /박진도 중남대 경제정책학부 교수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원칙과 시기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농  
협법을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의회 권한의 책임 |
<table>
<thead>
<tr>
<th>언론사-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body>
<tr>
<td>문화일보/5.29</td>
<td>농촌개발</td>
<td>부활하는 농활 /김희명 문화일보 논설위원</td>
</tr>
<tr>
<td></td>
<td></td>
<td>- 학점 인정 등 달라진 농활 인식에도 불구하고 참여학생이 줄고 있으며, 농사 체험을 통해 생명의 의미 깨우치는 계기지길</td>
</tr>
<tr>
<td>세계일보/5.29</td>
<td>새만금</td>
<td>새만금사업 경제성 평가 문제없다/박정근 전북대 농경채학 교수</td>
</tr>
<tr>
<td></td>
<td></td>
<td>- 간척사업이 국가차원의 확고한 사업 당위성과 많은 금융적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적인 면은 경시된 채 환경양상 측면만 부각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 개개째야</td>
</tr>
<tr>
<td>동아일보/5.31</td>
<td>쌀개방협상</td>
<td>쌀 개방 협상 일어버린 10년/문양섭 동아일보 차장</td>
</tr>
<tr>
<td></td>
<td></td>
<td>- 쌀개방 문제는 10년을 미처거리다가 일어버렸지만, 이제 정부는 농민들에게 쌀 개방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대안 제시해야.</td>
</tr>
<tr>
<td>국민일보/6.1</td>
<td>농촌개발</td>
<td>재소발의 영광이며 /이진명 시인</td>
</tr>
<tr>
<td>조선일보/6.3</td>
<td>농촌일손</td>
<td>농촌일손돕기 휴가 인정해야…/송재일 농협조사연 조사역</td>
</tr>
<tr>
<td></td>
<td></td>
<td>- 농촌일손은 도와주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휴가를 인정해 주고, 기업체마다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단’ 만들어야</td>
</tr>
<tr>
<td>서울신문/6.3</td>
<td>쌀 소비</td>
<td>현미밥/의목회 서울신문 논설위원</td>
</tr>
<tr>
<td>중앙일보/6.3</td>
<td>GMO</td>
<td>유전자조작 작물 왜연할 건가 /박미아 식품영양학 박사</td>
</tr>
<tr>
<td></td>
<td></td>
<td>- 유전자조합작물 및 식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농업생명과학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신뢰 확보기반 필요</td>
</tr>
<tr>
<td>한겨레/6.3</td>
<td>협동조합</td>
<td>협동조합 문제는 공공성 강화로 풀자 /김재균 전국축산협동조합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td>
</tr>
<tr>
<td></td>
<td></td>
<td>- 축산업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삶을 위해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접근해야</td>
</tr>
<tr>
<td>중앙일보/6.3</td>
<td>새만금</td>
<td>새만금, 일산은 농지로 조성/이정재 서울대 생명활성공학 교수</td>
</tr>
<tr>
<td></td>
<td></td>
<td>- 지금까지 도시나 산업용지는 농지에서 전용해 왔으므로 새만금 같은 새로운 토지는 먼저 녹색공간이 농지로 조성해야</td>
</tr>
<tr>
<td>조선일보/6.4</td>
<td>유통개선</td>
<td>복잡한 유통구조 바뀌야 우리 농경정책 산다 /이홍규 농촌시장 유통분부 대표</td>
</tr>
<tr>
<td></td>
<td></td>
<td>- 산지와 소비자 조합간의 업무체류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에 틀임을 기울여야 할 것</td>
</tr>
<tr>
<td>한겨레/6.4</td>
<td>쌀개방협상</td>
<td>쌀 개방 보도 고민의 깊이가 안보인다 /정영은 언론개혁시민연 대상공동활동가</td>
</tr>
<tr>
<td></td>
<td></td>
<td>- 일련의 개방에 따른 영창난 위기상황이 빠르게 보임에도 우리 언론에서 식량위기나 농촌의 상황에 대한 보도 찾기어려웠다</td>
</tr>
<tr>
<td>조선일보/6.7</td>
<td>해외농업</td>
<td>해외농업</td>
</tr>
<tr>
<td>세계일보/6.7</td>
<td>쌀</td>
<td>쌀은 인족의 혼/김성훈</td>
</tr>
<tr>
<td>언론사-일자</td>
<td>분야</td>
<td>제목 및 논조</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동아일보/6.9</td>
<td>에너지</td>
<td>생물에너지 개발 서두로자/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실장</td>
</tr>
<tr>
<td>문화일보/6.9</td>
<td>산림</td>
<td>도시숲 가위 햇빛을 /김재준 산림과학원 휴양·동호연구실장</td>
</tr>
<tr>
<td>한국일보/6.10</td>
<td>농업보도</td>
<td>농촌·농업에 뜻은 사와 곡물의 관점 자가야 /이상식 농협중앙회 원예부차장</td>
</tr>
<tr>
<td>서울경제/6.10</td>
<td>새만금</td>
<td>새만금사업의 경제성 평가 /정영호 농어촌연구원장</td>
</tr>
<tr>
<td>서울경제/6.10</td>
<td>새만금</td>
<td>새만금사업의 경제성 평가 /정영호 농어촌연구원장</td>
</tr>
<tr>
<td>문화일보/6.16</td>
<td>도농생산</td>
<td>농부 사망 기업이 할 일/김병직 문화일보 경제부차장</td>
</tr>
<tr>
<td>한국일보/6.16</td>
<td>식품산 전</td>
<td>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시급 /김성균 경양대 식자 교수</td>
</tr>
<tr>
<td>국민일보/6.16</td>
<td>한-미FTA</td>
<td>한·미 FTA 적극 검토해야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td>
</tr>
<tr>
<td>동아일보/6.17</td>
<td>학교급식</td>
<td>학교급식에 외국산은 안된다?어린이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td>
</tr>
<tr>
<td>중앙일보/6.17</td>
<td>농촌체험</td>
<td>농촌체험학습 동적교육과 연계를/이홍규 농협조합부 선임조사역</td>
</tr>
</tbody>
</table>

- 나무나 음식재료 등 우리 주변의 생명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어
- 도시에 숲을 놓려가는 것은 못지않게 도시숲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해야
- 농업상실의 시대에 우리의 농녀, 농존과 농업에 좀 더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
- 새만금의 경제성 판단은 환경단체 추세에서 요청한 한 개인의 판단된 경제상식으로만 판단에서는 안해
- 새만금의 경제성 판단은 환경단체 추세에서 요청한 한 개인의 판단된 경제상식으로만 판단에서는 안해
- 농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농산물 시장개방의 수혜부문(수출업계) 이득을 모두 피해부문(농업계)을 위해 볼 수는 없지만,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자는 사회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무궁무진해.
- 외국에서는 이미 식품 안전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을 조속히 만들어 실질적으로 식품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 한국은 미국과의 FTA 아래서 농업은 전면으로 개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책 안보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을 균형되게 평가하면 추진 필요성이 매우 높아.
- “우리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수입품은 나쁜 것”이라는 가관을 갖게 하는 것.
- 이어들이 농촌의 대자연에서 농사를 제일해보고 자연을 관찰하며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과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역량있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부·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의 협력과 노력을 기대.
<table>
<thead>
<tr>
<th>언론사-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able>
| 한겨레/6.17 | 쌀산업 | 민족의 자존심, 쌀/이문화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장  
- 쌀은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새로운 품종개발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성이 높고 노력을 적게 들이는 새로운 쌀 배(getClass) 개발이 더욱 절실한 때. |
| 경향신문/6.19 | 수해해방 | 수해해방 (지)인프라 구축부터 /서성배 농업기반공사 부사장  
- 인간의 힘으로 극대한 자연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수 인프라 구축 시급해. |
| 서울신문/6.22 | 식품안전 | 식품안전과 함께 "인심"에도 신경써야 /이영준 서울대 교수  
- 신부산 영남식품업체 공개 등의 사례와 과학적으로 정확히 연  
구조가 어려울 때까지 보도도 자체할 필요있어 |
| 중앙일보/6.22 | 식품안전 | 학교 식탁서 불량 맥거리 추방을 /김영일 농협조사연구소  
- 계속되는 맥거리 문제로 온 나라가 끝에 맥한 이때 학교급식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세워야. |
| 중앙일보/6.23 | 농촌개발 | 농촌을 살리는 길/ 중앙일보 중거호 사회부 기자  
- 농촌에서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그린마을에서도, 전환병 유기농을 개발 간장 필요. |
| 문화일보/6.28 | 농업정책 |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필요하다 /서규용 한국미사회 감사  
- 경쟁력 있는 농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선택하고 감증을 해서 투자를 계속해야. |
| 서울신문/6.28 | 농지개혁 | 농촌 현실 /오승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 농지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기가 아닌 농촌을 살리기  
위한 도시인들이 유입으로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 되길 바래. |
| 세계일보/6.28 | 농촌개발 | 농촌현실 휴일조차 없다... /김주영 소설가  
- 주5일제가 시작되면서 도시인들은 농촌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  
물 하지만 농촌은 언제나 농사일로 바빠, 서로 매치 필요. |
| 경향신문/6.29 | 산림정책 | 나무의 능력을, 숲의 힘을 /이미경 국립산림과학원 임지보전과장  
- 나무의 능력과 숲의 힘은 숲가구기에 흔치의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발휘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숲 가려야 |
| 국민일보/6.29 | 식품안전 | 안전하고 음을 권리 /박민채 법률사무소 정지 변호사  
-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안전하고 음을 수 있는 권리, 건강권의  
보장임. 식품위생에 대한 불감증 내지 무지에서 비롯되는 야  
의없는 사고사고가 이때 더 이상 되풀이 되는 안해. |
| 한국일보/6.29 | 농업정책 | 고양물들에 짜릿한 향을 둘러주자 /경영구 농협 충북지역본부장  
- 우리 농업, 농촌의 꿈의 가치 중요해, 이제껏 힘겹게 지켜온  
우리 농촌이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을 바라고 있어. |
| 동아일보/6.29 | 산림정책 | 나무는 억단하다/조연환 산림청 차장  
- 나무를 1평에 1그루씩 백백하게 심어만 농고 30년이 지나도록  
늘어가지 않아 지금 숲은 숲도 제대로 된 수 없을 정도로 과  
밀화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숲이 온장해졌다고 좋아해. |
<table>
<thead>
<tr>
<th>언론사-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body>
<tr>
<td>파이낸셜6/30</td>
<td>농업정책</td>
<td>농민 위한 농정개혁 필요하다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td>
</tr>
<tr>
<td>서울경제7/1</td>
<td>농업정책</td>
<td>농촌 위기, 오히려 기회 /안중문 농업기반공사 사장</td>
</tr>
<tr>
<td>중앙일보7/2</td>
<td>식품안전</td>
<td>농산물 유통자 관리 철회해야 /전현희 변호사</td>
</tr>
<tr>
<td>조선일보7/5</td>
<td>농촌개발</td>
<td>옥면 소재 23차 산업 지원으로 농촌을 살리자/ 최준용 경상남도 농산유통과 유통지원 팀장</td>
</tr>
<tr>
<td>문화일보/6/28</td>
<td>농업정책</td>
<td>경쟁력있는 농업인이 필요하다 /서규용 한국마사회 감사</td>
</tr>
<tr>
<td>파이낸셜7/5</td>
<td>농업정책</td>
<td>농업발전을 위한 4대 혁신 /김명욱 농촌진흥부장</td>
</tr>
<tr>
<td>서울경제7/8</td>
<td>농업가치</td>
<td>쌀나무 아닌 벼를 가르쳐라 /안중문 농업기반공사 사장</td>
</tr>
</tbody>
</table>

- 농정개혁 주간은 농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있으며 대상이 되는 농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주느냐에 있어. |
- 영세한 농업환경을 바꾸고 발 개방에 맞설 대안은 규모화 사업과 전업농 육성, 특색있는 발 생산 밖에 없어. |
-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이 극도에 달해있는 이 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구체되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개선하려면 우선 연소재지라도 허법적으로 농업관련 기업과 2·3차 산업의 중소기업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체제 환경, 장려자금 지원, 무지 제공 등 사회화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필요. |
- 경쟁력 있는 농업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선택하고 집중해 투자를 계속해야. |
- 우리 농업의 가장 취약한 영역인 '경영·품질·마케팅·기술'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 |
- 어린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 바로 옆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지각이 가장 결실할 때. 이는 학습이나 참고서에 적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실질의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이뤄져야. |
### 3.3. 농민단체 성명

<table>
<thead>
<tr>
<th>단체명-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body>
<tr>
<td>전농/5.6</td>
<td>쌀 재협상</td>
<td>미국 쌀생산계-농가 감마, 주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처부하려는 듯입니다!</td>
</tr>
<tr>
<td></td>
<td></td>
<td>- 쌀시장을 개방하려면, 목표를 내놓으라는 일체의 대외 세력은 추호도 용서지 않은 것이며 농민투쟁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명으로 기르고 움직일 것</td>
</tr>
<tr>
<td>한농연/5.6</td>
<td>대북설치원</td>
<td>북한식량문제 해소와 농업생산력 증대 정부 지원 촉구</td>
</tr>
<tr>
<td></td>
<td></td>
<td>-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문제 해소와 장기적인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체제적인 틀을 체결</td>
</tr>
<tr>
<td>전농/5.11</td>
<td>수매가인하</td>
<td>정부는 쌀생산군인 쌀 산업을 포기할 상징가!</td>
</tr>
<tr>
<td></td>
<td></td>
<td>- 정부의 수매가 4% 인하안은 수매제 폐지 사전 정지 작업, 정부는 4% 인하안은 즉각 철저하고 식량 자금을 범례하고</td>
</tr>
<tr>
<td>한농연/5.11</td>
<td>수매가인하</td>
<td>정부의 무책임한 추가수매가 4% 인하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td>
</tr>
<tr>
<td></td>
<td></td>
<td>- 기존 추가수매제를 유지하되 별도의 공공비축제를 즉각 도입</td>
</tr>
<tr>
<td>한농연/5.11</td>
<td>농업예산</td>
<td>119조 농업투자 예산에서 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제 대원 전액</td>
</tr>
<tr>
<td></td>
<td></td>
<td>- 규제회계로 이전한 농림부 및 타 부처 소관예산이 정부의 '총 액배분 자율편성' 방침에 의해 농업투자 축소가 우려</td>
</tr>
<tr>
<td>농협노조/5.16</td>
<td>추가수매</td>
<td>정부의 추가수매가 4% 인하 수매 만 감소 결정 반대</td>
</tr>
<tr>
<td></td>
<td></td>
<td>- 정부의 수매가 인하 추진은 농업생산주민에 대한 신자유주의 경제적 구조조정 이행의 실현, 즉각 인하안 철퇴를</td>
</tr>
<tr>
<td>한농연/6.1</td>
<td>농업정책</td>
<td>17대 국회의 농업 희생을 위한 당면 농정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td>
</tr>
<tr>
<td></td>
<td></td>
<td>- 17대 국회는 당면 농정 환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우리 농업의 회복과 발전을 앞당기는 데 노력을 해야할 것</td>
</tr>
<tr>
<td>전농/6.5</td>
<td>한-칠FTA</td>
<td>한-칠레 FTA, 알고 보니 마이너스 성장표! 이리도 국민 앞에 맛 못할 수 있는가</td>
</tr>
<tr>
<td></td>
<td></td>
<td>- 한-칠레 FTA 체결 1년만에 사상최대의 훅칠레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진행되는 둔-동-북 식품외연 혐상 결과에 대해 정부 책임져야</td>
</tr>
<tr>
<td>전농/6.7</td>
<td>농업정책</td>
<td>17대 국회개원에 투명하여</td>
</tr>
<tr>
<td></td>
<td></td>
<td>- 17대 국회는 쌍협상과 관련한 국민적합의를 모아내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 회가 되어야</td>
</tr>
<tr>
<td>전농/6.9</td>
<td>쌀산업</td>
<td>쌀생산 홍보 설명회로 전략적 농업부의 지역수 토론회를 거부</td>
</tr>
<tr>
<td></td>
<td></td>
<td>-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목표도 항상 농업을 농교, ‘토론회‘라는 형식을 받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 회가 되어야</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언론사-일자</th>
<th>분야</th>
<th>제목 및 논조</th>
</tr>
</thead>
</table>
| 한농연/6.14 | 식품안전 | 정부는 수입농산물 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내 농식품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라.  
- 최근 빈란 수입 농산물의 파동이 확산되면서 국산 농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당국 대책 배려야. |
| 한농연/6.25 | 농산물수입 | 중국산 쌍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을 철저히 하고, 유통 감시를 강화하라.  
- 수입농산물 유동체계를 개점검해 우리 국 농가가 어려움을 덜 아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
| 한농연/6.25 | 농자재 |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 정수 방침을 촉각 철저히하라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 부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 전농/6.23 | 농자재 |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 촉각 철저히하라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
| 한농연/6.30 | 농협개혁 | 농협법에 국한하지 말고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사업, 경영 등 전체 개혁방안을 추진하라  
- 농협법 개정 농협의 사업 및 경영, 조직구조 등 농민조합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뤄야. |
| 한농연/7.1 | 농업정책 | 농업정책 외연하는 열린우리당을 구현한다  
- 열린우리당 당내대표 국회의 대표연설 농업문제는 언급도 없는 등 간략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을 수 없어. |
| 한농연/7.9 | 보리수배 | 보리는 잉여분을 특별수매하고, 대북지원 등 재고관리대책을 수립하라  
- 보리 생산량이 4년 만에 대폭을 뭉쳤으나, 정부는 전년대비 4%인대화 가격으로 수매한다는 계획을 발표, 농가의 어려움 가중시켜. 보리수배의 잉여분을 특별 수매에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리에 대해 대북 지원 등의 재고관리대책과 거울질 농가소득 증양을 위한 원단의 소득대책을 마련한 것을 촉구. |
| 전농/7.2 | 농업인식 | 열린우리당과 하나당의 국회대표 연설문을 접한 400만 농민들  
- 처참이 오르는 물론을 참을 수 없다  
- 열린우리당과 하나당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농업문제 언급조차 안한데. 정치권에는 농업은 산업으로 보이지 않고, 농민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